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 학 석 사 학 위 논 문

박용철의 시에 나타난 시대인식

2016년 8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국 어 국 문 학 과

송 현 희

문 학 석 사 학 위 논 문

박용철의 시에 나타난 시대인식

지도교수 조 동 구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8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국 어 국 문 학 과

송 현 희

송현회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6년 8월 26 일



주 심 문학박사 송 명 희 (인)

위 원 문학박사 남 송 우 (인)

위 원 문학박사 조 동 구 (인)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선행 연구 검토	3
3. 연구 방법 및 범위	13
II. 1930년대 식민정책과 순수문학	24
1. 일제의 식민정책과 조선어	24
2. 순수문학의 대두	27
III. 박용철의 순수시론과 언어의식	31
1. 순수시론의 내용과 특성	31
2. 민족어 완성의 사명	50
IV. 박용철의 시에 나타난 시대인식	66
1. 고향상실과 복원의식	66
2. 절망극복과 유랑의식	81
3. 민족어로서의 방언과 고어 사용	101
V. 민족어의 완성과 민족의식의 고양	118
VI. 결론	134
* 참고문헌	140

A study on the age recognition of Park Yong-cheol's poems

hyeon hee song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has inquired aspect of age recognition of Park Yong-Cheol's poetry. In existing discussion, Park Yong-Cheol was estimated as a romanticist. However, Park Yong-Cheol's the romanticism literary point of view seems to access to the reality. He had already realized the situation of literature and politics in 1930s. He emphasized the literature effect on society. This point would be a revelation of racial consciousness as a literary men who knew how despair world was.

Park's literature emphasized 'the infection of emotion' as a social pragmatism. 'the infection of emotion', as he said, was a method for leading people's unity and sympathy, and also through expanding emotion, he intended to make people's regimentation.

Park Yong-Cheol concentrated on a language of poetic diction to get a sympathy of people's emotion. He emphasizes poetic transformation of experience, and a poem is the world of experience. The experience he mentions is related to reality. For leading people's sympathy and unity through 'infection of emotion', emphasizing true experience supports the effect of spreading literature as social utility.

Park Yong-Cheol shows his strong consciousness about Japanese colonial era with asserting establishing Korean Language and Korean literature identity. He requested independence of Korean literature while making Korean culture on an equal footing with Japanese culture in the time when Korean literature was about to degenerated into Japanese local literature. We can look Park

Yong-cheol's one of his mind who had already known that he must have kept his language and literature although his country was under colonial rule.

Park Yong-Cheol who had a plan for finding his ethnic identity and arousing people's emotion through establishing Korean literature and spreading Korean language found the essence of Korean through dialect and archaic word. When he chose Korean dialect under colony time as a literature language, the effect was the cause which can make a wide bond of sympathy, with having planning formation of a national literature.

For looking over aspect of age recognition of Park Yong-Cheol's poetry, his poetry's world is divided into ① Losing home and restoration sense. ② overcome despair and consciousness of vagrancy ③ use a dialect and archaic word as national language. At that time, his awareness about the world was his national reality when Korean was plundered by Japanese and lost everything to them. However, his pure lyricism was made up of people emotion. He tried to get a sympathy through restoring will about losing his country. With this, We can infer that he tried to pursuit fate communal solidarity.

There are some poems which show Korean will to overcome their despair in reality. This will turns up consciousness of vagrancy, but the consciousness of vagrancy doesn't come from personal escape. This is part of realizing the era, imagining an ethnic community. In case of Park Yong-Cheol, he actually was not against Japanese behaviorally and directly. As his resistance appears in his inner side not external one, we could know harmonizing his purity with the lyricism at his poetry that he tried to escape from tragic reality under Japanese colonial era.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His awareness of poetic diction is through Korean Language. By enhancing his language, the dialect and the archaic word which he used in his poetry are for arousing his racial emotion. This is coincided with the ideals of literature of 'Simunhakpa' which is 'the completion of ethnolinguistics', and also could be intention to promote the racial spirit.

Through the ideal like context, Park Yong-Cheol suggests that it is possible to exist the great epic, considered as ethnic group, in the background of his pure literature. I don't mean that we should consider Park Yong-Cheol as a fighter who was strongly against Japanese colonial era. The way of writing

Park Yong-Cheol chose brings out a meaningful critical mind about situation Korean Language was in then and true mean of Korean literature, and it is revelation of national consciousness which has pitiful looking on ethnic group's reality.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박용철의 등단은 1930년 『시문학』 창간호에 「떠나가는 배」를 포함한 다섯 편의 시를 발표하면서부터다. 박용철이 문단에서 활동한 기간은 1930년부터 1938년에 사망하기까지의 8년간으로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의 활약은 눈부시다. 그는 시 창작, 외국 시 번역, 희곡의 번역 및 연극 운동, 문학 동인지 및 잡지의 편집과 발간, 순수시론의 확립 등 여러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것으로 평가된다.¹⁾

한국 현대시사의 큰 흐름에 있었던 박용철의 시론과 비평에 대한 기존 연구는 대부분 순수시론, 존재로서의 시론, 그리고 변용의 시론 등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박용철은 순수시론을 통해 시문학과와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 그의 ‘순수시론’은 우리의 시사에서 최초로 순수시의 이론을 정립했다는 점 외에 ‘현대시’의 진정한 모습을 최초로 시론화했다는 의의를 지니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박용철의 시와 시론은 사회의 식이나 시대의식을 배제한 순수성의 문학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런 경향은 순수문학이라는 개념의 적용을 통해 그의 작품이 다루어지는 양상이 반복적으로 답습된 결과이다. 박용철에 대한 기존의 논의에서 ‘시대인식’에 대한 고찰이 제외되었던 것은 박용철의 시와 시론을 ‘시대인식’과는 대척적인 자리에 두었기 때문이다. 만일 박용철의 시와 시론에서

1) 이러한 다각적인 삶과 박용철이 한국 현대시의 길을 닦는 데에 희생과 헌신한 점에 주목하여 유윤식은 박용철을 ‘문예 운동가’라 칭하였다(유윤식, 「박용철의 문예운동연구」, 『한국시문학』 15호, 한국시문학회 2004, 6면).

‘시대인식’의 문제를 핵심요소 중 하나로 본다면 낭만주의적 특성을 지닌 박용철 시론과 균열을 일으킬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또 한 가지 문제는 1930년대의 시문학사를 서술할 때 오랫동안 지배하고 있었던 ‘목적문학’ 대 ‘순수문학’의 도식이 내면화된 측면이 있다고 본다. 1930년대의 시문학이 괄목할 만한 도약과 성취를 이루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이 성취의 양상을 계급문학이 퇴조하고 순수문학이 부상하는 가운데 시의 언어적 심미성에 주목함으로써 이루어졌다고 단선적으로 파악할 때, 조선문단의 문학가들이 고향하고 갈등하던 현실적 정황은 일부 가려지고 만다. 1930년대 조선에서 행해졌던 일본어 교육 및 매체에 대한 검열 강화 등은 식민지 조선의 언어적 주체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였으며, 민족어 수호와 민족문학의 형성이라는 문화적 대응 논리를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파시즘의 대두와 제국주의 세력 확장 등에 따른 동아시아의 위기감 고조는 민족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시키는 배경이 되었다. 박용철 또한 식민지 현실이라는 물리적 조건과 조선의 지식인이라는 정신적 위상 사이에서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조선문학의 독자성이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를 두고 조선어와 조선문학의 진로에 대한 고민은 박용철도 예외일 수 없었던 것이다.

본고에서는 박용철의 문학관에 공통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핵심요소 중 하나를 ‘시대인식’의 문제로 보았다. 박용철의 시에는 ‘상실· 절망· 비애· 우울· 낭만’ 등의 감정이 이질적으로 얽혀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들의 저변에는 식민지 현실이라는 당대 상황이 맞물려 있음을 주목해 보아야 한다. 일제 강점기 하에서 시대적 암울과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상황이었기에 박용철을 단순히 시대에 무관심했던 순수문학자로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박용철이 추구한 새로운 시는 언어에 대한 자각을 전제로 한다. 그에게

있어 시어란 ‘선진제국’의 언어가 아닌 ‘민족’의 언어, 곧 고유한 생활의 언어였다. 이러한 점은 박용철 문학에서 시대의 인식과 식민지 조선의 사회적·역사적 상황이 어떻게 만나는가에 대한 고찰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식민지체제 하에서 심미적 낭만성만을 추구한 것이 아닌 시대의 현실을 의식한 문학인으로 그 의미를 좁혀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박용철의 문학은 예술지상주의의 문학으로 평가되며 인간 고유의 감정만을 노래하고 호소하는 현실 외면의 의미로 파악되었다. 그런데 그러한 감정은 민족적 감정에 매개됨으로써 민족의 공감성을 얻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의지적 주체의 성향은 조선어의 수립과 조선문학의 독자성을 주장하며 민족주의적 소망을 보여주게 된다.

식민지 사회에서 지식인의 선택은 기로에 놓이게 된다. 비록 왜곡된 형태이기는 하지만 식민 질서를 수용하여 특권을 향유하는 존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이에 저항하여 민족적인 독립 투쟁을 감행할 것인가 하는 어려운 선택의 문제에 놓이게 된다. 박용철의 경우는 끊임없이 시대를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문학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였다. 비록 그의 노력은 그를 저항시인·민족시인이라는 위치로 만들기에 부족했지만 그는 당시 조선문단의 흐름에 동반하면서 시대 현실에 대한 참담한 민족감정을 표출하였다.

본 연구의 가치는 그동안 박용철 시론과 시세계의 균열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물론 박용철을 두고 현실 도피 성향의 시인으로만 평가하던 기존의 평가를 재고하여 박용철에 대한 평가를 좀 더 보완하는 데 있다.

2. 선행 연구 검토

박용철의 문단활동 경력은 8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30년 전후 한국 시사를 구명하기 위해서는 박용철의 저변을 알지 못하고는 불가능할 것²⁾”이라는 평가는 문단에서 박용철의 영향력이 지대했음을 암시한다.

김윤식은 「용아 박용철 연구」³⁾에서 박용철의 전기적 사실을 기초로 하여 그의 활동을 편집인, 비평가, 시인, 번역가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다. 또한 박용철의 비평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존재로서의 시론과 초기 비평의 한계, 하우스만의 시론에 기반한 순수시론의 특성을 구명하고 기교주의 논쟁, 전시적 의미 등을 상세하게 분석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릴케의 영향을 전제로 박용철의 창작시를 살피기도 하였는데 그의 연구방법은 전기적 사실에 바탕을 두었으면서도 심리학, 비교문학의 방법을 원용하여 작품분석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서구문학과 비평의 딜레탕티슴- 용아 박용철 연구」⁴⁾도 박용철의 전반적인 생애와 문학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어서 이후 연구의 바탕이 되었다.

박용철에 대한 연구를 세분하여 시에 대한 연구, 시론과 비평에 대한 연구, 서구시와의 영향관계에 관한 연구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시에 대한 연구는 창작시편이 적고 다른 시문학 동인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는 작품도 많지 않다는 이유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윤식은 「시문학과 연구」⁵⁾에서 박용철이 주재했던 『시문학』을 중심으로 『시문학』 동인들의 문학적 특성과 함께 문학적 위치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또한 박용철이 외국문학의 번역을 통해 받은 영향으로

2) 김윤식, 「순수시론- 박용철론」, 『한국근대작가론고』, 일지사, 1978, 145면.

3) 김윤식, 「용아 박용철연구」, 『학술원논문집』 9집, 1970.

4) 김윤식, 「서구문학과 비평의 딜레탕티슴- 용아 박용철 연구」, 『근대한국문학 연구』, 일지사, 1973.

5) 김윤식, 「시문학과 연구」, 『한국현대시연구』, 일지사, 1974.

시법을 배우려 했다는 사실을 언급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시가 갖는 특질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①순수서정시에 대한 진념이 강하다. ②기술적인 면보다는 정신적인 자세를 드러내고자 한 작품이 많다. ③인생 해석에서 어두운 면, 우수 같은 것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박용철의 시적 경향이 어느 정도 번역시와 부합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김학동은 「용아 박용철론」⁶⁾에서 박용철의 시를 초기시와 후기시로 구분하고, 초기시는 주로 허무와 비애가 주를 이루는 시세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후기시는 이미지의 형상화에 중점을 둔 시가 많다는 점을 논하고 있다. 유성호는 「박용철 시 연구」⁷⁾에서 박용철의 시적 성취는 그의 시론이 갖는 이론적 완결성에 반비례하면서, 시적 형상의 파탄과 느슨함으로 귀착한다고 언급하였다. 그 원인을 ‘경험’과 ‘시’의 분리 양상에서 생겨난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점이 그의 초기 시편에서는 낭만주의적 감상성을 가져오고, 후기 시편에서는 경험적 현실의 문맥을 벗어난 낭만적 화해의 시풍을 가져온 원인이라 하였다. 유윤식의 「<시문학과> 연구」⁸⁾는 외래성과 전통성의 조화를 통한 한국어의 시적 가능성이 이 유파에 의해 실현되었다고 보고 있다. 즉 ‘문학의 성립은 민족어의 완성’이라는 명제로 출발한 시문학과가 전대의 문학적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독창적 시세계를 구축함으로써 30년대 이후의 새로운 시적 전개의 기반을 마련해 준 순수시 유파라는 것이다. 이외에도 송기한⁹⁾, 서경수¹⁰⁾, 강웅식¹¹⁾, 오경수¹²⁾, 김미경¹³⁾, 추방

6) 김학동, 「용아 박용철론」, 『국어국문학총론』, 탑출판사, 1977.

7) 유성호, 「박용철 시 연구」, 『한국시학연구』 10호, 2004.

8) 유윤식, 「<시문학과> 연구」,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1988.

9) 송기한, 「박용철 시의 순수성과 그 한계 연구」, 『개신어문연구』 31집, 2010.

10) 서경수, 「용아 박용철 시 연구」, 목포대 석사학위논문, 2008.

11) 강웅식, 「‘서정시의 고고(孤高)한 길’, 혹은 창조적 주체의 길」, 『한국학연구』 47집, 2013.

12) 오경수, 「박용철 시 연구」, 호남대 석사학위논문, 2007.

13) 김미경, 「박용철시 연구」, 동덕여대 석사학위논문, 1995.

원¹⁴), 조영희¹⁵), 이임규¹⁶) 박청호¹⁷), 진창영¹⁸), 진순애¹⁹) 등의 연구가 있다.

두 번째는 시론과 비평에 관한 연구이다. 이명찬은 「박용철 시론의 의미」²⁰)에서 박용철의 시가 아니라 시론을 논의의 중심에 놓고 비평가로서의 문학사적 위치를 논하였다. 박용철 시론의 의미는 창작 체험의 내밀한 부분을 최초로 언표화하려 했다는 데에 놓여있다고 보았다. 조동구는 「박용철의 시론고」²¹)에서 박용철의 ①시론에 있어서 출발점이 되는 ‘존재로서의 시론’과 ②그의 본격적인 순수시론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던 하우스만의 시론과 수용 양상, ③선시적인 것의 의미 ④시인의 내적 필연성의 결과로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기교’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박용철이 하우스만의 시론을 번역·수용하면서 본격적인 순수시론을 전개하였으며 박용철의 시론은 이념적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던 시를 비판하고 시의 본질로서의 순수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도가 강한 것으로 보았다. 한계전은 「하우스만 시론의 수용과 순수시론」²²)에서 하우스만 시론과 박용철 시론의 특성을 비교하여 두 시론의 유사점과 영향 관계를 밝히고 있다. 이외에도 오형엽²³), 이기서²⁴), 김진경²⁵), 정봉래²⁶), 김상윤²⁷), 양해경²⁸), 김

14) 추방원, 「용아 박용철의 시세계 고찰」, 조선대 석사학위논문, 1982.

15) 조영희, 「박용철 시의 죽음의식 연구」 박용철 시의 죽음의식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03.

16) 이임규, 「박용철 시의 한 연구」, 공주대 석사학위논문, 2005.

17) 박청호, 「용아 박용철 연구」, 호남대 석사학위논문, 2010.

18) 진창영, 「시문학과 유과적 의미 고찰- 박용철을 중심으로」, 『동아어문논집』 2집, 동아어문학회, 1992; 진창영, 「시문학과 연구」, 동아대 박사학위논문, 1993.

19) 진순애, 「시문학과 연구-순수성을 중심으로」, 『한국시학연구』 8집, 한국시학회, 2003.

20) 이명찬, 「박용철 시론의 의미」, 『한국현대문학연구』, 한국현대문학회, 1993.

21) 조동구, 「박용철의 시론고」, 『1930년대 민족문학의 인식』, 한길사, 1990.

22) 한계전, 「하우스만 시론의 수용과 순수시론」, 『한국현대시론연구』, 일지사, 1990.

동근²⁹⁾, 안한상³⁰⁾, 정영미³¹⁾, 손광은³²⁾, 홍영기³³⁾, 김종란³⁴⁾, 박영순³⁵⁾ 등의 논문이 있다.

세 번째는 서구시와의 영향관계에 대한 연구이다. 김효중은 번역가로서의 박용철에 주목하였다. 「박용철의 하이네 시 번역과 수용에 관한 연구」³⁶⁾에서 박용철이 하이네 시를 번역하면서 자신의 창작시에 미친 영향 관계를 논의하고, 이러한 번역 문학이 한국 문단에 미친 영향도 아울러 검토하고 있다. 또한 「용아의 괴테시 번역 고찰」³⁷⁾에서는 박용철이 괴테의 시를 번역한 양상과 박용철의 시 창작에 끼친 영향 관계를 검토하고 있다. 박용철의 전체적인 번역 태도에 대해 원문에 충실하려는 의도가 명백

-
- 23) 오형엽, 「1930년대 시론의 구조적연구 - 김기림, 임화, 박용철을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98; 오형엽, 「김수영 시론과 박용철 시론의 관련성 연구 - 한국근대비평의 구조와 계보」, 『어문연구』 39집, 어문연구학회, 2002.
- 24) 이기서, 「용아 박용철 연구 - 시사적 위치를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71.
- 25) 김진경, 「박용철비평의 해석학적 과제 - 효과주의적 비평논장을 중심으로」, 『선청어문』 13집, 서울대 국어교육과, 1982.
- 26) 정봉래, 「용아 박용철의 변용의 시학」, 『문예운동』 40호, 1989.
- 27) 김상운, 「박용철 시론 연구」, 인천대 석사학위 논문, 1991.
- 28) 양혜경, 「박용철 시론의 전통지향성 연구」, 『동남어문논집』 3집, 동남어문학회, 1993.
- 29) 김동근, 「박용철 시론의 변용적 의미」, 『한국언어문학』 34호, 한국언어문학회, 1995.
- 30) 안한상, 「박용철의 순수시론시고」, 『인문과학연구논총』 19집, 명지대학교, 1999.
- 31) 정영미, 「용아 박용철론 - 순수시론을 중심으로」, 인천대 석사학위논문, 1999.
- 32) 손광은, 「박용철 시론 연구」, 『용봉논총』 29집, 전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0.
- 33) 홍영기, 「용아 박용철 연구: 시와 시론을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09.
- 34) 김종란, 「박용철 시론과 미적 근대성 연구」, 충남대 석사학위논문, 2009.
- 35) 박영순, 「박용철의 시와 비평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1982.
- 36) 김효중, 「박용철의 하이네 번역과 수용에 관한 연구 - 박용철의 창작시와 한국문단에 미친 영향을 주로하여」, 영남대 박사학위논문, 1986.
- 37) 김효중, 「용아의 괴테시 번역에 관한 고찰」, 『영남어문학』 43집, 영남어문학회, 1984.

히 드러나고, 시의 운율, 우리말의 어법 등에 맞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용아의 릴케시 번역에 관한 고찰」³⁸⁾에서는 릴케시의 번역 양상과 박용철의 시 창작에 끼친 영향을 고찰하였다. 박용철이 릴케 시를 번역하는 데 있어서 우리말답게 번역하기 위하여 고심한 흔적이 역력함을 언급하면서, 박용철이 오역한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그의 번역이 현대 번역을 능가하는 면도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리고 끝으로 박용철이 시를 창작하는 과정에서도 릴케의 표현법, 발상법 등의 영향을 받았음을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김학동³⁹⁾, 정양완⁴⁰⁾, 김재혁⁴¹⁾, 최박광⁴²⁾, 김병택⁴³⁾, 안삼환⁴⁴⁾, 한계전⁴⁵⁾ 등의 연구가 있다.

박용철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 업적이라고 여겨지는 위의 논문들은 ①그의 시와 시론들이 외국문학의 영향 하에서 전개되어 왔다는 점 ②그가 남긴 일련의 시작품들이 그의 시론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 ③그의 그러한 시론들이 1930년대 시문학과와의 이론적 지주 역할을 했었다는 점 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하지만 1930년대라는 시대상황은 박용철을 식민현실에 외면한 순수성 용

38) 김효중, 「용아의 릴케시 번역에 관한 고찰」, 『국문학연구』 8집, 효성여자대학교 국어국문과, 1984.

39) 김학동, 『한국근대시의 비교문학적 연구』, 일조각, 1981.

40) 정양완, 「박용철 연구 -주로 비교문학적인 견지에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64.

41) 김재혁, 「박용철의 릴케 문학 번역과 수용에 관한 연구 -릴케의 문학이 박용철의 창작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독일문학』 93집, 한국독어독문학회, 2005.

42) 최박광, 「박용철의 외국 문학 수련과 그 위상」, 『인문과학』 37집,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6.

43) 김병택, 「박용철 시론-서구시론의 수용을 중심으로」, 『영주어문』 2집, 영주어문학회, 2000.

44) 안삼환, 「박용철 시인의 독문학 수용」, 『比較文學』 38집, 한국비교문학회, 2006.

45) 한계전, 「박용철에 있어서 하우스만 시론의 반응」, 『冠嶽語文研究』 2집,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77.

호의 문학자로만 평가할 수 없는 계기를 마련한다. 또한 그에 대한 연구 업적들을 다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분화된 문제의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연구와 연구의 주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김명인⁴⁶⁾은 『시문학』에서 비롯된 박용철의 문학사적 위치가 특별히 강조되어 오고 있는 이유의 논리를 ①시문학과 옹호와 관련된 탁월한 시론의 전개 ②순문예지를 발간 주재하면서 문학의 본질과 함께 시대를 파악했던 놀라운 안목 ③외국의 작품과 문학이론이 번역 소개를 통한 한국문학에의 기여 등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에서 더 나아가 박용철의 시론을 문학과 사회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았다. 여기서 “식민지 질서의 심화라는 1930년대의 위상에 놓이는 그의 순수시론 또한 우리는 긍정과 부정의 동등한 물음에서부터 접근해 가야 할 것이다. 더구나 『시문학』 同人들을 하나의 流波로 묶는 데에는 더욱 세심한 주의와 배려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한다. 실상, 순수시론의 등장은 한국문학사의 내재적 요구에 어느 정도 부응해 간 결과로 판단되면서도 (중략) 박용철의 순수시론을 성립시킨 내부조건들을 차례로 검토하면서 그러한 정신이 밖으로 확산되었을 때, 필연적으로 부딪혀 가게 될 문제점들과 그 전반적인 한계를 그의 시론에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⁴⁷⁾ “시를 순수예술로 보려는 생각은 시의 교화적 기능을 가장 완벽하게 배격한다. 그러나 우리는 시가 삶에 대한 통찰력을 구현하거나 전달해서는 안된다든가 그것 때문에 소중히 여겨질 수 없다든가 하는 결론을 선불리 내세울 수는 없다.”⁴⁸⁾ 라고 언급한 점은 박용철 문학에서 시대인식과 식민지 조선의 특수한 상황이 어떻게 만나는가에 대한 반

46) 김명인, 「순수시론의 환상과 현실」, 『어문논집』 22집, 고려대 국어국문학 연구회, 1981.

47) 김명인, 위의 논문, 238-239면.

48) 김명인, 위의 논문, 252면.

성적 검토를 가능하게 한다.

김경복⁴⁹⁾은 박용철의 시적 공간을 상실의식과 탈출의지의 변증법적 관계 아래 생성된 공간이라 보고 이 시적 공간은 원심적 공간을 지향하게 된다고 하였다. 박용철에게 원심적 공간은 상실의식이 해소되는 공간이며 탈출의지가 실현되는 공간으로 해석하였다.

이승훈⁵⁰⁾은 박용철이 당시까지 시를 지배하던 깊이 없는 낭만적 태도를 극복하고, 또한 주체로서의 체험보다 집단적 이데올로기나 집단의 정서를 추상적으로 강조하던 신경향파의 깊이 없음을 극복하고자 노력한 점을 언급하였다.

오형엽⁵¹⁾의 “기교주의 논쟁이 표면적으로는 기교주의에 대한 쟁점인 듯하지만, 실상 내면적이고 핵심적인 쟁점은 낭만주의에 대한 평가”라는 지적은 기교주의 논쟁을 재구성하면서 이를 토대로 박용철의 낭만주의 수용에 대한 재평가를 가능하게 해준다.

신재기⁵²⁾의 경우에는 박용철이 ‘민족언어의 완성’을 지향했으나 결과적으로 ‘민족’보다는 ‘언어’에 치우쳤으며, 바로 그러한 지점이 그의 한계라는 평가를 내린다.

문혜원⁵³⁾은 그의 시를 전체적으로 볼 때センチ멘털한 경향과 그것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 사이의 갈등으로 설명하며 이러한 갈등의 저변에는 식민지 현실이라는 당대 상황이 놓여 있음에 주목하였다. 박용철의 시를 단순히センチ멘털리즘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로 보고 그의

49) 김경복, 「박용철 시의 공간의식 연구」, 『한국문학논총』 11호, 한국문학회, 1990.

50) 이승훈, 「박용철의 시론」, 『한국 현대 시론사』, 고려원, 1993.

51) 오형엽, 「한국근대시론의 구조적 연구」, 『한국근대시와 시론의 구조적 연구』, 태학사, 1999.

52) 신재기, 「박용철의 시적 언어론」, 『어문학』 83집, 한국어문학회, 2004.

53) 문혜원, 「박용철의 시세계 - 애상적인 정조와 의지에의 지향」, 『시로 여는 세상』 9호, 2004.

시는 식민지 현실에서 오는 절망감과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 사이의 갈등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새롭게 조명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승원⁵⁴⁾은 박용철의 시론을 검토하며 그가 민족의 언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점을 언급하였다.

김용직⁵⁵⁾은 순수시인 박용철의 마음 바닥에는 뚜렷이 조선문학 곧, 모국어 문학에 대한 인식이 자리하고 있었음을 언급하며 박용철은 우리문학의 독자성을 강조하고, 언어와 문학만은 식민상황에서도 지켜야 할 것으로 생각하였음을 주장하였다.

남진숙⁵⁶⁾은 박용철의 미발표 시 중에는 시의 창작 과정 속에 시를 통한 현실 인식과 시 쓰기의 고뇌와 갈등,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았다.

주영중⁵⁷⁾은 박용철 연구에서 제외되어 왔던 ‘과학’의 문제를 그의 시론의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라고 보고 박용철에게서 ‘과학주의자’의 면모를 발견한다. 여기에서 박용철 시론이 20년대 낭만주의 문학과 민족주의 문학, 20·30년대의 카프문학과 모더니즘 문학과 어떠한 지점에서 만나고 어떠한 지점에서 분기하는지를 규명하고 있다. 박용철은 20년대의 낭만주의 시를 계승했지만 20년대 낭만주의 시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들- 기술 혹은 과학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낭만주의 시에 대한 변별점을 구축하려 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론의 입지를 구축하려 했다고 보았다.

김미미⁵⁸⁾는 박용철의 시론이 낭만주의의 세례를 받았으나 소박한 차원에 그쳤고 그로 인해 현실에 무관심한 경향을 띠는 부정적 측면을 지녔다는

54) 이승원, 「박용철의 시론과 비평」, 『시로 여는 세상』 9호, 2004.

55) 김용직, 「순수문학자의 조선문학 인식」, 김용직(편), 『박용철 유품원고 자료집』, 깊은샘, 2005.

56) 남진숙, 「박용철 시전집’에 대한 재검토」,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45집,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9.

57) 주영중, 「박용철 시론 연구」, 『한국시학연구』 32호, 한국시학회, 2011.

58) 김미미, 「박용철 시론 연구- “순수”의 의미지평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57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4.

점에 대해 낭만주의 개념의 재고를 통한 새로운 시각의 전개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신진숙⁵⁹⁾은 시문학과 의 입장에서 현실 인식의 다각적인 측면의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여기에서 주체와 타자, 주체와 공간의 관계는 당대 현실에 대한 시적 인식의 일면을 고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며 시문학과가 갖는 현실 인식의 불철저함과 비역사성의 지적에 대해 이를 균질한 미학적 동질성만으로는 판단을 거부하며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할 것을 제기하고 있다.

조성문의 「박용철 시의 음운론적 특성 분석」⁶⁰⁾은 기존의 내용적 평가와는 방향을 달리하여 형식적 평가를 한 점에 주목할 만하다. 이 연구에서는 음절을 중심으로 하여 초성, 중성, 종성으로 구분한 후 음운론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박용철은 시어를 선택함에 있어서 공명성이 높은 소리를 선호했는데 이러한 점은 시문학과인 김영랑, 정지용의 작품 분석 결과와도 일치하는 특성이라고 언급하였다. 이 점은 박용철이 전남 출신이며, 그의 시에 주로 사용된 전남 방언의 가락을 표현했다는 면에 연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

박용철의 시와 시론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연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이상의 선행연구를 정리해 보면 박용철에 대한 논의에서 제외되거나 축소되었던 사회·역사적인 관점의 시각이 재고된 측면을 볼 수 있다. 물론 낭만성 극복의 측면, 조선문학의 독자성 강조, 전남방언의 사용, 상실의식과 탈출의지의 관계 등을 언급하며 다양한 각도의 연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지만 박용철의 시를 대상으로 하여 시대인식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런 점에서 본고는 박용철의 전기적 부분을 세세히 다루지 않았으나 그가 관통해 나갔던 시대를

59) 신진숙, 「시문학과 시의 근대성과 공간 인식 고찰」, 『우리문학연구』 27집, 우리문학회, 2009.

60) 조성문, 「박용철 시의 음운론적 특성 분석」, 『동아문화연구』 28집, 2011.

간략하게라도 살펴보고 그의 시에 나타나는 시대인식의 측면을 고찰할 것이다.

3. 연구 범위와 방법

본 논문은 『박용철 전집』(1·2)⁶¹⁾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개작 과정이 주요한 의미를 띠는 경우 신문이나 잡지에 발표된 원문을 참조하여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논의에 반영한다. 미발표작 및 전집에서 제외된 작품들의 경우에는 후대에 발간된 자료를 참고로 하며, 새롭게 발굴된 작품들 역시 연구 대상에 포함시킨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박용철 전집』(1·2)은 몇 가지 문제점⁶²⁾을 안고 있지만 박용철을 연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료임에 틀림이 없다. 『박용철 전집』(1)에서 창작시는 I·II·III·IV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I부 18편, II부 15편, III부에 28편, IV부에는 13편으로 총 74편이 수록되어 있다. 하지만 그 중 10편은 이장희의 시로 밝혀짐⁶³⁾에 따라 이를 제외한 64

61) 박용철, 『박용철 전집』 1·2, 깊은샘, 2004.

62) 박용철은 1938년 5월 12일 작고하였다. 그가 남기고 간 원고들은 그의 아내 임정희가 정리하고, 김영량이 주축이 되어 1939년 『박용철 전집』(1-시집, 시문학사)이 출판되었다. 그 후 1940년 『박용철 전집』(2-평론집, 시문학사)이 발간되었다. 이것이 바탕이 되어 1963년 『박용철 전집』(전2권, 현대사) 영인본이 나왔다. 1976년에는 문학사상사에서 박용철의 시를 모아 『박용철시집』이란 이름으로 출판하였다. 2004년에는 박용철기념사업회에서 1939년 초간본의 원형을 그대로 살려 복간본으로 출판하였다. 지금까지 출판된 시전집은 모두 1939년 판에 실린 원전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다만 2004판은 방언과 옛말 등 1930년대의 시어에 익숙하지 못한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허형만 교수가 주석을 붙였을 뿐이다.

63) 「눈은 나리네」, 「달밤 모래 우에서」, 「어느 밤」, 「밤」, 「失題」, 「하염없는 바람의 노래」, 「한 조각 하늘」, 「좁은 하늘」, 「너의 그림자」, 「다시」(김학동, 「박용철의 시와 산문- 서지적 접근」, 『현대시인연구』 2, 새문

편의 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남진숙이 「밤」, 「한 조각 하늘」은 박용철의 시로 봐야 한다고 언급⁶⁴⁾한 것에 주목하여 본고에서는 66편의 시를 대상으로 한다. 『박용철전집』(2)에는 일반비평, 시론과 수상, 일기, 서간문 등과 함께 「기사와 서기」, 「사랑의 기적」 등 두 편의 창작희곡 그리고 번역 희곡이 실려 있다.

논의를 위해서는 몇 가지 개념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먼저 ‘순수’, ‘순수시’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 문학사에서 1930년대의 시는 일반적으로 ‘순수시’ 또는 ‘순수서정시’라고 규정되어 오고 있다. 하지만 한국 문학에서 ‘순수’는 선명한 담론의 장을 형성하며 등장한 개념이 아니다. ‘순수’는 일상적 용법으로 사용되는 ‘순수한’ ‘순수하다’ 등의 어휘가 문학 장(場)에서 혼용되며 관습적으로 인정되는 의미와 별다른 구별 없이 사용되었다. 그래서 비평적 용어라기보다는 문학을 일컬을 때 관습적으로 선택하는 관습적 어법으로 받아들여도 무리는 없다.⁶⁵⁾

본래 순수시란 19세기 프랑스 상징주의 시인들에 의해 일반화된 개념인데, 그것은 넓은 의미로 비본질적인 것을 제거하고 본질적인 요소들만을 추출하여 창작한 시를 가리킨다. 순수시의 정신은 포우(E. Poe)의 “시란 강한 밀도를 지니고 음악에 일치하는 효과의 서정에 본질을 두며 오로지 심미적인 현상에만 몰두할 뿐 지성이나 모럴엔 초연해야 된다”는 것에 토대를 두고 있었다. 발레리의 경우 “시란 물리학자가 순수한 물이라고 할 때의 순수”를 지녀야 하며, “음악을 듣고 우리의 신경조직이 반응하는 것과 같은 효과의 절대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⁶⁶⁾

사, 1995, 303-304면). 「失題」라는 제목의 시는 모두 8편이다. 이 중 ‘저달이 ~’로 시작되는 시를 말한다.

64) 남진숙, 앞의 논문, 162면.

65) 한계진 외, 『한국 현대시론사 연구』, 문학과 지성사, 1998, 146면.

66) 오세영, 「『시문학』지와 순수시파」, 『국어학논집』 12호, 단국대 국어국문

한국문학사에서 ‘순수’라는 어휘가 문학 또는 서정시 등의 용어와 결합되어 주목할 만한 연구대상으로 등장한 것은 1930년대 중반 이후⁶⁷⁾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문학사에서는 프랑스 상징주의 시인들이 의미했던 순수시와 일치하는 말이 아닌, 1930년대 문학의 전반적 현상인 순수문학⁶⁸⁾의 하위 개념으로 순수시를 이해하고 있다. 1930년대 한국의 순수문학은 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문학 전반에 나타났던 현상이며, 음악의 절대성에도 달하려는 의도에서 씌어진 것도 아니다. 또한 지성과 모럴을 전혀 외면한 채 창작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요컨대 1930년대의 시는 문학의 본질성에 집착코자 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유효한 것이었지만 그 지향하는 목표가 상징주의자들이 동경했던 기하학적 추상공간은 아니라는 점과, 비록 이데올로기화된 현실을 외면했다 하더라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구체적인 삶의 세계에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프랑스 상징주의의 순수시와는 다른 것이다.⁶⁹⁾

한국문학사에서 ‘순수’와 관련된 논쟁은 다음과 같은 형태의 순수를 의미하며 전개되어 왔다.

유진오와 김동리의 세대-순수 논쟁과정에서 언급된 신인들의 순수성이나 1930년대 중반 부르주아 문학과 순(수)문학의 의미를 변별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대중문학, 통속문학에 대한 순수, 김종한의 발레리 수용에 따른 순수시의 개념, 기교주의 논쟁과정에서 근대문학을 ‘순수화에 대한 욕구’로 정리하고 있는 김기림의 의견, 박용철을 필두로 한 시문학과 순수시 개념 등은 모두 근대문학에 등장했던 ‘순수’의 다양한 모습이라 할 수 있다.⁷⁰⁾ 일상어의 용법과 달리 문학의 장에서 ‘순수’는 역사적 맥락이나 발

학과, 1985, 218면.

67) 김종훈, 『한국 근대 서정시의 기원과 형성』, 서정시학, 2010, 168면.

68) 오세영, 「1930년대의 문학적 상황과 순수문학의 대두」, 조동일 외, 『한국문학연구입문』, 지식산업사, 1982, 591면.

69) 오세영, 앞의 논문, 218-219면.

화주체의 문학관에 따라서 그 내포적 의미가 다양한 층위로 나뉘어 사용되었다⁷⁰⁾. ‘순수’는 통상 당대의 시대정세와 연관하여 그 의미를 정의내리는 경우가 빈번하다.

박용철 문학에서 시대인식적 가능성을 읽어내기 위해서는 맥락의 변화에 따른 저항의 간접화에 주목해야 한다. 맥락을 지워버리면 ‘간접화’는 포섭 혹은 협력으로 읽히게 된다. 식민주의는 구조적 양가성으로 인해 저항의 거점을 항상성으로 산출한다. 그러나 맥락의 변화는 저항의 방식을 선택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다. 저항의 간접화는 그 결과이다. 따라서 똑같은 발화가 맥락에 따라 협력이 되기도 하고 저항이 되기도 한다. 내적 저항의 ‘이념적’ 주체는 식민주의의 경계, 즉 내부와 외부의 경계에 위치한다. 따라서 내적 저항은 대항 체계모니를 추구하기 어렵다. 내적 저항은 일반적으로 자기 성찰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거나 식민주의의 비자족적이고 나약한 측면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식민주의에 맞선다. 그렇기 때문에 내적 저항은 식민주의를 전면 거부하기보다는 식민주의와 탈식민 주체 사이에 경계선을 그음으로써 차이를 보존하고자 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내적 저항은 비(非)동일화형 저항이라 할 수 있다. 내적 저항이 대안적 저항에 비해 저항이 간접화되고 내향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내적 저항이 식민주의와 타협했다거나 순응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양자의 차이는 ‘수준’이 아닌 ‘방식’의 차이이다. 대안적 저항이 전면 거부의 방식을 취하는데 비해 내적 저항이 택한 방식은 내부로부터의 격파, 곧 ‘내파(內破)’이다. 내파는 양가성의 모순관계를 극대화시킴으로써 식민주의를 임계점으로 몰아간다. 내적 저항은 대항 체계모니를 형성하는 것이 힘든 상황에서 주로 나타난다. 이러한 상황은 현실의 객관적 조건일 수도 있고,

70) 정은기, 「“순수”문학개념의 전개와 변용」, 『한국문학이론연구』 62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5, 351면.

71) 정은기, 위의 논문, 352면.

작가의 주관적 정세인식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두 가지가 서로 결합되어 있다. 72)

이렇게 볼 때 ‘순수’를 통한 창작행위는 시대의 대응 논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박용철의 순수시론은 일제 강점기에 택한 내적 저항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민족과 문화가 절망적인 지경에서 박용철의 순수시론은 시의 표현매체인 조선어의 수호를 위한 것이었고, 그 그릇인 민족과 문화를 지키고자 한 정신이었다. 다음의 글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또 하나 이런 말이 있다 한다. 『문학』지는 조선 문단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고, 아닌게 아니라 『문학』지는 문단적 관심을 의식적으로 절제하고 있다. 그러나 소위 문단적 관심과 조선문학의 건설을 위한 열의와는 전연별물인 것이다. 우리가 실상 한줄의 창작을 쓰고 한줄의 소개문을 쓰고 한줄의 번역을 하는 것이 모두 조선문학의 건설을 위하는 열의에서 나온일이 아니면 아니된다.73)

위 인용구절은 『문학』 3호 편집후기의 일부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박용철의 입장이다. 현실을 외면한다는 당대의 지적에 대해 ‘우리는 조선 문단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수하게 문학에 집중함으로써 오히려 조선문단을 열성적으로 위하고 있다’74)는 입장이다.

순수가 정의를 만나면 실천으로 발전하지만 불의를 만나면 세속으로 떨어지게 된다. 일제 강점기는 거역할 수 없는 불의였기에 이를 초월하는 방식으로 순수가 선택되었다는 것은 정지용의 논리와도 연결된다. 정지용은 일제 강점기에 펼쳐진 자신의 시에 대한 순수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이해했다.

72) 하정일, 『탈식민의 미학』, 소명출판, 2008, 32-34면.

73) 박용철, 「『문학』 편집여언」, 『박용철 전집』 2, 깊은샘, 2004, 225면(이후로 이 책에서 인용할 경우 저자명은 생략하고 소제목은 밝힌다. 책제목은 『전집』 1·전집』 2로 표기하고 책의 쪽수만을 밝히기로 한다).

74) 김미미, 앞의 논문, 18면.

남들이 나를 부르기를 순수시인이라고 하는 모양인데 나는 스스로 순수시인이라고 의식하고 표명한 적이 없다. 사춘기에 연애 대신 시를 썼다. 그것이 시집이 되어 잘 팔리었을 뿐이다. 이 나이를 해가지고 연애 대신 시를 쓸 수야 없다. 사춘기를 훨씬 지나서부담은 일본놈이 무서워서 산으로 바다로 회피하여 시를 썼다. 그런 것이 지금 와서 순수시인 소리를 듣게 된 내력이다.⁷⁵⁾

위와 같은 정지용의 발언은 두 가지 함의를 내포한다. 하나는 일제 강점기 시절의 문학행위에 대한 자기비판이고, 다른 하나는 이 시기가 요구하는 의무에 대한 적극적 실천의지이다. 민족의 관점에서 보면, 일제에 대한 적극적 저항이야말로 최상의 방책이었을 것이다. 적을 앞에 두고 적극적으로 저항함으로써 민족의 일원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지용은 그런 행동 대신에 시의 길이라는 간접적 방식을 선택했다. 그리하여 시를 통해 우리 언어와 문학을 사수할 수 있었다는 것, 곧 문필행위를 통한 실천을 통해서 민족의 정체성을 확보했다고 항변하는 것이다.⁷⁶⁾ 이러한 점은 정지용의 유학시절 김환태와의 일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정지용은 어느 칠흠같이 깜깜한 날 김환태를 교토시내의 상국사(相國寺) 뒤 끝 묘지로 데리고 가서 작품 「향수」를 읊어주었다고 한다.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열정이다. 시의 기법문제를 떠나 직접적인 애국주의나 고향에 대한 열정 없이 이 작품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⁷⁷⁾

이와 같은 논리는 순수의 전형으로 알려진 김영랑의 시세계를 통해서도 수긍할 수 있는 대목이다. 김영랑 또한 일제 강점기에 순수라는 매개항을 통해서 현실상황의 압력과 위기의식의 문제를 뛰어넘고자 했다.⁷⁸⁾ 김영랑

75) 정지용, 「산문」, 『정지용 전집』 2. 민음사, 1988, 219-220면.

76) 송기환, 「해방 공간에서의 정지용 문학연구」, 『한민족어문학』 66호, 한민족어문학회, 2014, 357면.

77) 송기환, 위의 논문, 362면.

78) 송기환, 위의 논문, 357면.

의 시는 자연을 매개로 한 서정성에서 출발했다. 그의 시는 연약하고 비현실적인 속성을 드러내는 것 같지만, 김영랑의 시가 안고 있는 순결성 추구의 자세는 현실의 황폐함에 맞서는 저항의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순수의 힘은 내면적 순결성의 유지에 의해 획득된 것이다.⁷⁹⁾

더불어 박용철의 ‘언어의식’과 ‘시대인식’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서는 당대의 ‘민족’과 ‘민족주의’ 개념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통합된 하나의 세계를 추구하는 현대 사회에서 구시대의 유물처럼, 새로운 세계질서를 거부하는 진부한 개념으로 취급될 수 있는 민족주의를 정의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다. 민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민족주의의 정의는 달라진다.

먼저 민족을 혈연(血緣)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견해가 있다. 즉 민족이란, 동일한 혈연집단이 하나의 독립적인 행동성을 보여주는 집단을 가리킨다. 이는 종족 민족주의(Ethnonationalism)라고 불리운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가 반드시 근대 민족국가의 필수적인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혈연이 아니면서도 하나의 민족국가는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민족을 동일한 역사, 전통, 문화, 언어의 동질성에 의하여 형성된 집단이라고 보는 견해에서 형성된 집단으로 생각하는 경우이다. 사람들은 같은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하나의 정신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또 그러한 공감대에 의해서 전통을 만들고 특정의 문화를 소유하게 된 인간집단을 민족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민족 개념은 문화민족주의(Cultural Nationalism)를 형성하게 된다.

세 번째로, 국가 제도적인 관점과 역사적 맥락에서 민족을 인식하려는

79) 이승원, 「김영랑 시정신의 민족사적 의의」, 『태릉어문연구』 16집, 서울여자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2010, 41면.

견해가 있다. 현대 사회에 있어서 국가를 배경으로 한 역사적 공감성과 운명공동체적 연대의식은 민족 형성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고 있다. 혈통이나 문화·언어의 동질성보다는 민족 형성의 가장 중요한 외적 요소는 공통의 영토 아니 그보다는 국가(state)이다 라고 한스 코온(Hans Kohn)은 강조한다.⁸⁰⁾

민족주의 운동이 역사적으로 항상 국가형성이나 정치적인 독립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한국의 민족주의의 성격도 일제의 탄압과 지배 하에서 민족의 독립과 민족국가의 건설을 목표를 직접 표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문화적 경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궁극적인 지향점은 민족의 주체성 함양과 민족정신의 수호를 통하여 민족국가의 건설로 나아가고자 했다⁸¹⁾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민족의식’의 형성과 자민족과 타민족의 구별을 위한 기준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때 언어가 민족을 구별하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나타난다. 민족주의자들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을 하나의 공동체로 규정하고 이를 민족으로 정의한다. 동일한 언어의 사용가능성에 따른 민족화는 실질적으로 언어 특유의 변별적 능력으로 인해 손쉽게 공동체 내부의 연합과 정체성 확립을 이루어낼 수 있다.⁸²⁾ 이렇게 민족국가의 건설보다는 문학·민속·모국어 및 역사 등을 통해 그 민족정신을 표현하는 문화민족주의에 포함되는 민족주의의 일 현상에 ‘언어적 민족주의’가 있다.⁸³⁾ 민족은 국민의 정서적 집단으로 정서적 표현인 언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의미로 헤르더는 “언어는 한 집단의 집단적 경험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는 국

80) 송명희, 「이광수의 문학비평 연구- 민족주의 문학사상을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학위 논문, 1985, 17-18면.

81) 송명희, 위의 논문, 32면.

82) 권혁재, 「부끄 까라지치(Vuk Karadžić)와 세르비아의 언어적 민족주의 연구」, 『동유럽발칸학』 4권 1호, 아시아 중동부유럽학회, 2002, 36면.

83) 송명희, 앞의 논문, 75면.

어를 갖고 의식의 통합과 공동의 행복을 추구해 간다”⁸⁴⁾고 했다. 여기서 언어는 민족, 국민의 감정을 형성하는 문화적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토대를 표상하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 민족의 언어가 민족의식을 통합하고 민족의 경험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견해로 생각할 수 있다. 식민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언어, 특히 민족어에 대한 관심은 민족과 민족어에 대한 애착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박용철의 조선어에 대한 인식은 남달랐다. 조선어에 대한 인식을 실천하며 창작방향을 모색한 박용철의 언어에 대한 인식은 민족의식의 발현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다음은 순수문학을 통한 민족의식의 발현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 보고자 한다. 미국의 역사학자 두아라는 20세기의 근대 민족 국가들이 전통을 끌어들이므로써 순수성의 체제를 작동시켰음을 지적한 바 있는데, 두아라의 논의는 민족주의적 태도와 순수성이 결합하는 지점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두아라에 의하면 민족 국가는 “이미 부식의 운명에 놓인 유구한 순수성의 상징들”과 닮은 것을 만들어냄으로써 개개인들이 가지는 순수한 자아의 이상을 정치체제로 결부시킨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체제는 새로운 것이지만 본래부터 존재해왔던 정신과 전통을 그대로 계승하는 생동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만들어진 순수성의 체제는 “정치체제 전체의 정체성을 상징화할 때 가장 큰 힘을 얻어내고” 민족 국가로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⁸⁵⁾ 이러한 논의는 우리 민족의 해방공간에서 이루어진 순수문학에 대한 논리의 연장선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 해방공간에서 순수문학은 “민족정신의 발휘 구현의 문학”으로서 민족문학과 동의어⁸⁶⁾로 규정되고, “데모크라시으로써 표방되는 세계사적 휴머니즘의 연속적 필연성에서 오는 민족 단위의 휴머니즘”에 기반한 “본령정계

84) 이광규, 『신민족주의의 세기』, 서울대출판부, 2006, 9면.

85) 프래신깃트 두아라, 한석정(역), 『주권과 순수성』, 나남, 2003, 80-81면.

86) 김동리, 「순수문학의 정의」, 『민주일보』, 1947. 7. 11 - 12.

(本令正系)의 문학”으로 규정된다.⁸⁷⁾ 본령정계의 문학이라는 뜻은 ‘당의 문학’과 같은 다른 문학관도 있을 수 있으나 “순수문학이 제일의적 문학”이라는 뜻으로 설명된다.⁸⁸⁾ 순수문학 역시 민족문학과 별개일 수 없으며 민족정신을 발휘하고 구현하는 문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다.

작가는 일차적으로 작품의 소재를 현실에서 구한다. 작품을 쓰는 매체로서 언어 역시 당대 역사 사회의 산물이다.⁸⁹⁾ 작가의 가치관, 윤리관, 사고방식도 그 시대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작품을 쓰는 행위 속엔 넓은 의미로 그 시대의 정치, 사회의 영향이 매개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순수문학이라 할지라도 완전한 의미에서 사회 현실과 단절될 수는 없는 것이다.⁹⁰⁾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박용철의 시에 나타난 시대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제는 우리 민족을 말살하고자 했다. 이런 상황에서 박용철의 정신세계에는 시 이상의 것이 자리하게 된다. 그것은 시의 표현매체인 조선어의 수호였고 그 그릇인 민족과 문화를 지키는 문제였다. 민족과 문화가 절망적인 지경에서 그는 상실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민족의 언어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박용철은 시문학을 발간할 때부터 시와 문학에 대한 인식은 모국어의 완성을 바탕으로 깔고 있었다. 그의 언어에 대한 자각은 민족어의 시적 가능성을 자각하는 일이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전개되었다. 먼저 서론에 해당하는 I 장에서는 본 연구의 전체적인 개관과 목적 및 연구 범위와 방법을 다룬다.

II 장에서는 1930년대 식민정책을 알아보고 순수문학이 대두하게 된 배경을 살펴본다.

87) 김동리, 「순수문학의 진의」, 『서울신문』, 1946. 9. 14.

88) 김동리, 「순수문학과 제3세계관」, 『대조』, 1947. 8.

89) 오세영, 『서정적 진실』, 민족문화사, 1983, 32면.

90) 오세영, 위의 책, 32-33면.

Ⅲ장에서는 박용철의 ‘순수시론과 언어의식’을 제시한다. 순수시론의 내용과 특성을 알아보고, 민족어 완성에 사명을 둔 박용철의 언어의식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박용철의 시에 나타나는 시대인식이 시론에서는 어떠한 전제조건을 제시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Ⅳ장에서는 박용철 시에 나타난 시대인식을 살피기 위해 박용철의 시세계를 ① ‘고향상실과 복원의식’ ② ‘절망극복과 유랑의식’ ③ ‘민족어로서의 방언과 고어 사용’으로 추출하여 살펴본다.

Ⅴ장에서는 Ⅲ장과 Ⅳ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박용철의 시론에 나타난 시대인식과 시에 나타난 시대인식 양상의 상관관계를 밝힌다. 시론과 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론적 바탕과 시가 어떻게 연관 지어지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맥락을 통해 그의 시에 나타나는 ‘시대인식’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의 시와 시론이 어떠한 배경으로 형성되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박용철의 문학 활동을 다양한 스펙트럼을 통해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박용철 연구에 대해 지금까지 행해진 순수 또는 낭만적 관점의 편향적 시각을 떠난 좀 더 종합적인 고찰의 시도라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Ⅱ. 1930년대 식민정책과 순수문학

1. 일제의 식민정책과 조선어

1930년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가 문화통치에서 군국주의적 무단통치로 강화되기 시작한 전환기라고 할 수 있다. 3.1운동 이후 일제가 표방한 1920년대의 문화통치란 실은 1930년대의 군국주의적 무단통치를 완벽하게 하기 위한 회유책이었으며, 1930년대는 세계대전을 위한 전시체제의 확립기라고 할 수 있다.

1930년대 들어서 서구에서는 세계대공황의 여파로 인해 자본주의 몰락의 징후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한 독일, 이탈리아 등을 위시한 파시즘 체제 강화는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다. 이 시기에는 일제의 노골적인 식민지 정책에 의해 일어와 조선어를 동시에 사용해야 하는 이중언어의 상황이 고착화되기 시작했다.⁹¹⁾ 일본 파시즘 체제가 본격화 되는 시점은 중일전쟁 발발 이후지만, 실상 식민체제 하의 조선 문단은 이미 오래 전부터 검열과 사상 통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1930년대 이전부터 일본 당국의 검열과 통제는 유명 문인들은 물론, 일반 학생의 투고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었다.⁹²⁾ 식민지 조선에 이러한 국내외 정세를 상징적으로

91) 여태천, 「1930년대 어문운동과 조선문학의 가능성」, 『어문논집』 56집, 민족어문학회, 2007, 264면.

92) 당시 이상과 함께 경성 고공을 다녔던 김희영의 1929년 3월 10일의 일기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내가 신생(新生)에 투고하였든 논문은 전부 삭제이다. 내가 무삼 저촉되는 말을 썼나? 하고 생각해야 보아도 도모지 과격한 것은 없다. 오죽 우리의 현 입장과 환경이 그러케 한 것 뿐이다. 생각할 때에 치가 떨리어 죽을 지경이다.” (김정동, 「고공 건축과 학생 시대의 김해경」, 『이상리뷰』, 창간호, 2001, 82면).

나타낸 사건은 1935년의 카프의 검거와 해산이었다. 카프의 해산이라는 사건은 단순한 기존 문단 단체의 와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상황에 대한 식민지 조선인 지식인들의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식민지 시기 조선총독부의 핵심적인 정책은 동화정책이었다. 그리고 동화정책에서 핵심은 일본어 보급이었다.⁹³⁾ 따라서 식민지 시기 언어정책은 곧 일본어 보급정책이었다. 일본어 보급을 위해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던 조선어는 금지되고, 일본어가 상용화되어야 했다.⁹⁴⁾ 일본에 있어서 ‘동화’란 일본이 자유롭게 착취할 수 있는 대상을 만드는 것이며, 여기에서 특별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언어’였다. 일본의 ‘민족어 말살 정책’은 노골적인 강제력에 의하여 일본어가 멋대로 식민지를 지배한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일본이 행한 것은 단순한 ‘언어 정책’이 아닌 ‘언어 폭력’⁹⁵⁾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식민지 교육 정책의 핵심에 일본어 습득이 들어있었던 것은 언어가 ‘상징자본’(symbolic capital)⁹⁶⁾으로서 ‘상징권력’(symbolic power)이 작동하는 매개이기 때문이다⁹⁷⁾

일본의 식민지에 대한 정책은 크게 대만과 조선, 그리고 만주국, 전쟁 점령지로 구분 된다. 대만과 조선은 국어(일본어)교육을 실시해 국어(일본

93) 이연숙, 『국어라는 사상-근대일본의 언어인식』, 소명출판, 2008, 299-303면.

94) 호시나 코이치(保科孝一)는 식민지 지배에 있어 언어문제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국어(일본어)가 독립을 잃게 되면 국민도 점차 국민적 정신을 잃게 되며, 어느새 국민의 세력이 쇠퇴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그러한 이유로 정책상에서 보면, 정복자이며 치자인 자는 그 피정복자이며 피치자인 자로 하여금 신속히 조상 전래의 국어를 버리게 하고 강제적으로 자기의 국어를 쓰게 하는 것이 통치상 가장 상책이다”(이연숙, 위의 책, 268-269면, 재인용).

95) 이연숙, 위의 책, 259면.

96) ‘상징자본’이란 이미 특정한 상징체계의 장에서 통용되는 여타의 구성원들로부터 승인된 자산들을 의미한다(피에르 부르디외(P. Bourdieu), 정일준(역), 『상징폭력과 문화재생산』, 새물결, 1997, 96면).

97) 피에르 부르디외, 정일준(역), 위의 책, 29면.

어)의 방언과 같이 식민지의 이언어(異言語)를 취급하는 태도를 취했다. 만주국에서는 다중언어제의 관점을 취했지만 사실은 일본어를 공통어로 하는 언어들 의 계층화를 도모했다. 동남아시아의 점령지에서도 공통어로서 일본어교육의 성격이 더 강하였다. 일본 정신 주입을 위해 일본어를 활용한다는 언어정책에는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⁹⁸⁾ 일제의 식민권력은 조선에서 국어(일본어)보급을 통해 조선어를 ‘지방어’⁹⁹⁾로 재편하고자 했다.

박용철이 활동했던 시대는 이미 조선어가 ‘국어=일본어’에 의해 권력과 제도로부터 소외된 이후였다. 조선어의 현실이 그렇듯 박용철이 살고 있는 현실의 ‘조선문학’은 민족의 원칙에 의한 국가를 배경으로 갖지 못했다. 1910년에 발간했던 『국어문법』이 1911년에는 『조선어문법』로 재발간된 사실은 조선어가 국가라는 배경을 상실하면서 겪는 정치적 의미를 함의한다.¹⁰⁰⁾ 이 둘의 표제가 ‘국어’에서 ‘조선어’로 변한 사실이 그러한 사실을 입증한다. 이미 식민지 권력에 의해 국어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조선어를 두고 가네자와 쇼자부로는 ‘조선어 연구’의 의미를 논하며 “일한 양 국민의 서로가 국어를 이해하고 결국에 고대에 있어서와 같이 다시 동화의 결실을 올리는 데 이르면 진실로 천하의 경사라고 해야 할 것이다”라고 언급한다. 일본 지식인이 한일 간의 정치적 관계를 배경으로 양국의 언어 역사의 복원을 자위적으로 구상했던 『日韓兩國語同祖論』에서 가네자와 쇼자부로는 일본어와 조선어의 뿌리가 같음을 주장하며 한국어는 ‘우리 국어의 하나의 방언’이라고 결론짓는다. 그러면서 조선어가 류큐어와 마찬가지로 일본어의 한 분파 혹은 방언임을 입증하고자 했다.¹⁰¹⁾ 조선어가 독립적인 민족

98) 야스다 도시야키, 「제국 일본의 언어 편제」, 미우라 노부타카 외, 이연숙 외 (역), 『언어 제국주의란 무엇인가』, 돌베개, 2005.

99) 일본은 조선에서 국어의 방언과 같이 식민지의 이언어(異言語)를 취급했다. (미우라 노부타카 외, 이연숙 외(역), 위의 책).

100) 박광현, 「언어적 민족주의 형성에 관한 재고-‘국문’과 ‘조선어’의 사이」, 『한국문학연구』 23집,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00, 256면.

어가 아닌 일본어의 지방어가 되면서 ‘조선어’ 교육은 일본어 교육 속으로 편입된다. 가네자와 쇼자부로 이외에 조선총독부의 조선어정책에 참여했던 니시무라 신타로(西村眞太郎), 다카하시 토오루(高橋亨), 오구라 신페이(小倉進平)들의 주장도 이와 궤를 같이 했다.¹⁰²⁾

식민지라는 정치적 공간 안에서 양 언어 간의 대립은 한층 강고하고 단일한 민족어로서 조선어를 배양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식민지 조선의 언어적 주체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였으며 조선어 수호와 조선문학의 형성이라는 문화적 대응 논리를 가능하게 하였다.

2. 순수문학의 대두

1930년대 순수시 또는 순수문학이 대두하게 된 배경은 정치적 불안의 객관적 조건 그리고, 민족주의 문학과 프로문학의 대결구도에서 발생한 주관적 조건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일제의 문화정치 종식과 만주사변 이후의 공포정치는 지식인의 사상·사고 및 언론을 통제하여 시인들로 하여금 현실과 거리가 먼 심미적 문학세계로 빠져들 것을 강요하였다. 순수문학 운동만이 가능했던 이러한 배경이 ‘시문학과’ 형성의 외적 요인이 된 것이다. 하지만 ‘시문학과’의 등장은 “문학 자체 내에서 발생한 주관적 사정”¹⁰³⁾이라는 요인을 제외하고는 논의할 수 없다. 1920년대 후반의 한국문학은 카

101) 박광현, 위의 논문, 257면.

102) 박광현, 위의 논문, 「경성제대 ‘조선어학조선문학’ 강좌 연구-다카하시 토오루를 중심으로-」, 『한국어문학연구』 41집,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3), 「김열관 니시무라 신타로에 관한 고찰」, 『한국문학연구』 32집,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07 참조).

103) 조연현, 『한국현대문학사』, 성문각, 1982, 476면.

프(KAPF)를 필두로 한 이념 투쟁이라는 특수한 양상으로 프로문학과와 민족문학과와 문학운동이 전개되었다. 이것이 1930년을 전후로 한 순수 문학 운동, 즉 문학 자체에 대한 논의로 발전하면서 ‘시문학과’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주관적 상황’이라 할 수 있는 당시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예술을 위한 예술’을 배격하고 ‘인생을 위한 예술’을 주장한 카프는 모든 문학정신을 이데올로기의 주입에 힘쓰면서 창작에 있어서는 큰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해체되고 말았다. 카프는 1931년의 1차 검거와 1934년의 제 2차 검거 사건을 겪으면서 제 2차 방향전환을 꾀하지만 제 2차 검거 사건을 겪으면서 퇴조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새로운 문학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민족문학과는 프로문학과와 계급주의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지 않은 문인들을 통칭하여 부른 것인 바, 민족문학과가 민족주의를 표방하고 나선 것은 프로문학과가 계급주의를 강력하게 들고 나온 1926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프로문학과와 계급주의적 민중론에 대해 최남선이 “조선국민문학으로서의 시조(『조선문단』 16호, 1926.5)”에서 국민문학론을 전개함으로써 민족, 즉 국민이라는 의식이 나타난다. 1920년대 중반 이후에는 시조부흥론이 등장하고 조선의 민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조선심’과 ‘조선정조’에 대해 산발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시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국민문학과와 등장은 ‘조선’과 ‘조선의 문학 전통’에 대해 조선문단이 재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뜻한다. 국민문학과와 문학 활동은 조선의 국민문학 및 조선 고유의 문학 전통 계승에 대한 인식의 실마리를 제시하였다.

요컨대 프로문학이 새로운 혁명을 지향한 것에 반해 국민문학과는 전통 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이 모두 편내용주의라는 점에서 문학 자체의 문제는 아니었다. 여기서 이른바 절충파가 등장하게 된다. 이들은 다

시 여러 계파로 나뉘는데, 논의의 초점은 문학의 내용과 형식에 관한 문제였다. 문학의 비중을 내용에다 두느냐 아니면 형식에다 두느냐의 소박한 문학논쟁¹⁰⁴⁾이었다.

1927년부터 해외문학과¹⁰⁵⁾가 순수문학론을 들고 나오으로써 이러한 소박한 문학논쟁이 문학의 본질적 논의로 승화되는 계기가 마련된다. 해외문학과의 궁극적 목표는 ‘외국문학연구만이 목적이 아닌 우리 문학의 건설¹⁰⁶⁾’이고 문학연구도 주체적 현실인식의 바탕 위에서 이룩하려고 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의 주된 작업이었던 외국문학의 번역과정에서 새로이 인식하게 된 우리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다는 점이다. 이는 번역과정의 체험을 통해 모국어의 중요성과 모국어를 발전시켜야 되는 이유를 깨달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해외문학과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시문학과가 언어에 대한 자각을 확고하게 하는 계기도 여기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해외문학과에서 비롯된 순수문학 운동은 ‘시문학과’에서 구체화된다. 해외문학과는 『시문학』, 『문예월간』을 통한 순수시 운동과 『극예술』을 통한 집단화¹⁰⁷⁾를 통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해외문학과의 문학사적 의의를 김윤식은 네 가지 항목으로 요약하였다. 첫째, 도식적인 프로문학과와 침체한 민족파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었다. 둘째, 순수문학의 온상이 되었다. 셋째, 이들이 저널리즘을 확보했다. 넷째, 그들은 비평의 영역을 확대하였다.

104) 김윤식,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 일지사, 2011, 116면.

105) 해외문학과는 1926년 동경 유학생들이 조직한 ‘해외문학연구회’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1927년 1월 서울에서 『해외문학』을 창간했다(김윤식, 위의 책, 137면); 박용철은 해외문학파를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하나의 유파로 묶었다. 적극적으로 주장을 선언한 일은 없을지라도 속물주의에 대한, 정치주의에 대한, 저급한 예술 등에 대한 투쟁 등이 있어 敵本的이나마 은연히 그 공통성이 나타나 있음으로 한 유파로 본다(『전집』 2, 36면).

106) 김윤식, 위의 책, 2011, 140면.

107) 김윤식, 위의 책, 2011, 155면.

이렇듯 시문학과가 형성된 문학적 배경은 문학 자체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문학에 대한 성취욕구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카프파와 민족문학과와의 근본적인 결함인 이데올로기문학에 대한 반성과 거기에서 촉발되는 새로운 문학에 대한 성취욕구가 시문학과와의 출현을 이끌어낸 것이다. 1920년대의 문학이 계급주의든 민족주의든 그 시대의 요청사항이 무엇이든 나를 파악하려는 정론성에만 급급하여 예술의 특성을 스스로 축소하고 있을 때 시문학과와의 등장은 문학에서 이데올로기를 반성케한 하나의 구심점일 수 있었다.

시문학과가 노린 것은 국어로서의 언어가 아니라 시어로서의 언어에 대한 자각, 그리고 민족어의 시적 가능성을 자각하는 일이었다. 이들의 작품을 두고 순수문학 혹은 순수시라는 말이 사용된 것은 이들에 의해 문학과 사회적 현상과의 변별성이 처음으로 문제 제기 되고, 작가나 시인의 창작의 실제로 기술성 혹은 기교의 문제가 중시되었기 때문이다.

IV. 박용철의 순수시론과 언어의식

이 장에서는 박용철의 ‘시론’과 ‘조선어 지향에 나타난 언어의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박용철은 순수시론을 통해 시문학과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 그의 ‘순수시론’은 현대 시사에서 최초로 순수시의 이론을 정립했다는 점 외에 ‘현대시’의 진정한 모습을 최초로 시론화했다는 의의를 지닌다. 또한 여타의 비평을 통해 박용철은 조선어의 수립과 조선문학의 독자성을 주장하며 식민시기를 강하게 의식하는 측면을 드러낸다. 이점에 주목하여 그의 시에 나타나는 시대인식이 시론에서는 어떠한 전제조건을 제시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순수시론의 내용과 특성

조선 시에 대한 탐구와 모국어의 사랑으로 전개¹⁰⁸⁾된 박용철의 순수시론은 서정시론의 본질에 다가서는 논의였고 『시문학』을 중심으로 1930년대 시론의 미학적 수준을 한층 심화시키는 공헌을 하고 있다. 특히, 미적 자율성을 고수하면서 시 창작의 과정에서 시인, 언어, 작품, 독자, 감상, 등의 영역을 각각 자율적으로 독립된 영역으로 설정하고 그 상호 관계를 분석적으로 접근한 점은 박용철 시론의 탁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¹⁰⁹⁾

108) 정 훈, 「박용철 시론 연구」, 『동남어문논집』 26집, 동남어문학회, 2008, 14면.

109) 김춘식, 「박용철 시론 연구」, 『한국문학연구 45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3, 133면.

박용철이 시에 대한 견해를 처음으로 보인 것은 시문학 발간 전 고향에서 김영랑과 주고받은 편지에서이다. 그의 대표시로 알려진 「떠나가는 배」를 김영랑에게 적어 보낸 편지에 다음과 같이 언급되었다.

재현설과 정서를 삭후라는 것도 알려 드렸네 나는 이즘 와서야 그것들을 차츰 깨달어 가네 좀 늦지만 어쩔 수 없지 느끼는 것이 없이 생각해 이해할라니까. 그 전에는 시를 (뿐만 아니라 아무글이나) 짓는 기교(기술)만 있으면 거저 지을 셈잡았던 말이야 그것을 이즘 와서야 속에 덩어리가 있어야 나오는 것을 깨달았으니 내 감양에 큰 발견이나 한 듯 가소! 시를 한 개의 존재로 보고 조소나 妻와 같이 시간적 연장을 떠난 한낱 존재로 이해(당연히 감이라야 할 것)하고 거기 나와 있는 창작의 심태(이것은 창작품에서 감상자가 받는 심태이지 창작가가 갖었든 혹은 나타내려하는 심태와는 독립한 것이지)를 해득하는데서 차츰 여기 이르렀단 말이야 그래서 가장 조잡하게 독후의 통일적 정서를 우미(優美) 애상(哀傷) 숭고(崇高) 등 추상적 형용사를 써서 윤곽을 정할 수 있는 것이라 하거든 추상적 형용사가 발달해야 수만어가 된다면 거진거진 가까히 같건 사실일 듯¹¹⁰⁾

위의 글에서는 순수시론의 핵심 개념이라 할 수 있는 “속에 덩어리”라는 개념과 시를 조소와 같은 하나의 객관적 존재로 보는 관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덩어리’는 “정서를 폭 삭후”여야 얻을 수 있기에 “기교만 있”다고 시를 지을 수 없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여기서 ‘덩어리’는 ‘사랑과 문학에 대한 열정’¹¹¹⁾, ‘어떤 사상의 덩어리가 아니라 일종의 정서의 덩어리’¹¹²⁾, ‘시의 내용이 되는 인생의 체험’¹¹³⁾ 등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는 체험이 정서로 순화될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함과 기교는 절실한 정서와 함께 만났을 때만 시적 표현으로 승화됨을 처음으로 언급한 부분이라 할 수 있

110) 「김영랑에게 보내는 편지」, 『전집』 2, 326면.

111) 김윤식, 앞의 책, 1978, 129면.

112) 김윤식, 앞의 책, 1973, 339면.

113) 김 훈, 「박용철의 순수시론과 기교」, 김용직 외, 『한국현대시사연구』, 일지사, 1983, 245면.

다. 시인의 치밀한 시적 어휘의 선택과 탐색 끝에 새겨진 순수 우리말로 표현되는 순수시의 특징¹¹⁴⁾을 보여주는 단초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박용철이 영감과 시적 형상화의 문제에 대해 깊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전대의 시인들처럼 개인의 느낌이나 생각 또는 관념, 정서 등을 있는 그대로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시적으로 형상화해야 한다는 분명한 의식을 지니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 볼 사실은 그의 순수시론에 내포된 민족의식이다. 물론 그러한 점이 강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덩어리’를 ‘인생의 체험’으로 보는 관점에서 조금 더 덧붙이면 박용철의 ‘순수시론’에는 ‘민족의식’의 덩어리가 자리하고 있지 않았을까 추측해본다. 순수시론의 세계를 표현한다고 해서 현실적 측면이 거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항 헤게모니를 형성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박용철의 마음 깊은 곳에는 ‘덩어리’로 자리잡은 민족의식이 꿈틀거리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시에 대한 의식이 싹트고 문단에 갓 발을 들여놓은 박용철에게 다가온 시인 의식은 기존의 시단에 대한 비판과 함께 새로운 시 정신의 발휘¹¹⁵⁾에서 시작하면서 ‘존재로서의 시’를 내세운다. 이의 기본 정신은 「시문학 창간에 대하여」에 잘 나타나 있다.

시라는 것은 시인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한낱 존재이다. 조각과 회화가 한 개의 존재인 것과 같이 시나 음악도 한낱 존재이다. 우리가 거기에서 받는 인상은 혹은 비애, 환희, 우수 혹은 평온, 명정(明淨), 혹은 격렬, 숭엄 등 진실로 추

114) 박미령, 「순수시의 기대지평」, 『용인대학교 논문집』 11집, 용인대학교, 1995, 31면.

115) 오형엽은 박용철의 시관에 대해 문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것에 닿아 있다고 보고 이는 이데올로기의 갈등으로 혼란을 빚고 있던 1920년대 후반에서 1930년대 초반의 시단에 대해 시의 순수성을 주장하고 회복하려는 시도로 해석하였다(오형엽, 「박용철 시론의 구조와 계보」, 『비평문학』 18호, 한국비평문학회, 2004, 354면).

상적 형용사로는 다 형용할 수 없는 그 자체수대로의 무한수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방향이든 시란 한낱 고처(高處)이다. 물은 높은데서 낮은 데로 흘러나려온다. 詩의 심경은 우리 일상생활의 수평정서보다 더 고상하거나 더 우아하거나 더 섬세하거나 더 장대하거나 더 격월(激越)하거나 어터튼 「더」를 요구한다. 거기서 우리에게까지 무엇이 흘러나와야만 한다. 무엇을 세밀하게 규정하려면 다만 편협에 빠지고 말뿐이나 116)

위의 내용은 순수의 개념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시는 다만 시일뿐이며, 시를 객관적 존재로 보아야 한다는 것, 순수예술로서의 시에는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개성의 표현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시의 심경’이 ‘일상생활의 수평 정서’보다 높은 것을 요구한다고 말한다. 시의 차원은 일상의 차원보다 높은 곳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시를 객관적 존재로 본다는 것은 일차적으로 시에서의 어떠한 이데올로기적 요소도 불순한 것으로 간주 배격되어야 하며 아울러 시의 예술성을 추구하는 입장이다. 그리고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또한 카프의 문학론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시가 구현하고 있는 정서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목적으로서만 시를 규정하는 카프의 편협한 시론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¹¹⁷⁾ ‘결벽의 시인’을 끌어내기를 중요한 임무의 하나¹¹⁸⁾로 여긴 박용철의 시론은 시인의 언어에 대한 감각적 추구라든지 개성을 중시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시의 예술적 영역을 강조한 언어에 대한 태도는 시인의 본질적인 존재를 설명한 것이다. 여기서 박용철이 지향하는 서정시는 “예민한 감성”의 영감에 의해 포착되는 것이다. “시의 꽃을 피워내는 창조자”로서의 시인이 “말을 재료삼아 꽃”¹¹⁹⁾으로 피워낸 것으로 유기체적인 성격의 시이다. 이렇게만 본다면 박용철의 시관은 낭만주의의

116) 「시문학 창간에 대하여」, 『전집』 2, 142-143면.

117) 이광호, 『미적 근대성과 한국 문학사』, 민음사, 2001, 137면.

118) 「시문학 창간에 대하여」, 『전집』 2, 143면.

119) 「시적 변용에 대해서」, 『전집』 2, 3-10면.

감성 중시와 영감설, 천재성 등의 특성을 보유한 문학관으로 규정될 수 있다.

하지만 박용철은 현실에 접근하려는 경향을 보이며 낭만주의 문학관을 지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시인이 시보다 먼저 사람으로서 모든 문제에 직면할 것은 눈을 기다리지 않는 것이다. 그는 조세를 면제 받으려하지도 않고, 병역을 면제 받으려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시인은 자진하여 의용병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류다.(...) 시의 길은 그렇게 정신을 전심을 요구한다. 이것이 범인(凡人)의 눈에 시인이 시밖에 모르는 것으로 비취는 까닭이다.¹²⁰⁾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속인들이 말하는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많은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시인의 길에 충실할 수 없다는 그의 생각은 조선의 식민지 현실을 외면하지 않게 만들었다. 식민지 조선에서 작가로 살아가는 일은 역사적·사회적 구조의 문제와 연관하여 보면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식민권력은 표면적으로 근대교육을 강조하면서도 내심으로는 우민화 정책을 기조로 하고 있었으니 식민지를 살아가는 지식인라면 자신의 가치를 사회화 시킬 수 있는 존재여야 함을 깨달아야 했다.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존재 양태는 다양했다. 하지만 민족적 양심을 지키면서 또한 자신의 존재를 사회적으로 표방하면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영역은 그리 많지 않았던 상황¹²¹⁾에서 박용철은 ‘문학’을 통해 “자진해서 의용병이 될 수 있는” 위치로 자신의 영역을 만들었다.

‘시란 언어예술이라는 자각’의 심미적 시관은 ‘예술작품’의 사회에 대한

120) 「기교주의설의 허망」, 『전집』 2, 24면.

121) 박헌호, 「식민지 조선에서 작가가 된다는 것-근대 미디어와 지식인, 문학의 관계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17집, 상허학회, 2006, 121면.

효과로서 ‘美的 影響力’을 행사해야 한다는 문학의 예술적 효용론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한 단초는 『문예월간』 창간호에 발표한 「효과주의적 비평논강」에서 볼 수 있다. 그는 이 글에서 ‘예술을 평가함에 그것이 사회 변화에 특히 우리생활의 가장 직접적 결정자인 정치의 변혁에 공헌하는 력(力)의 방향과 강약에 준거하여 하려하는 현대의 사회적 비평의 가능성에 대한 일논고’라고 쓰게 된 동기와 의도를 밝힌다. 여기에서 예술작품이 발표되면 하나의 사회적 존재가 되어 그것은 사회적인 효과를 일으킨다고 하였다. 「효과주의적 비평논강」은 박용철이 문단에 처음 제출한 비평으로 이 글을 통해 박용철은 문학이 지니는 사회적 책임의 국면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눈을 뜨고 문학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드러낸다. 박용철은 1930년대의 문학적 현실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회적·역사적 상황 또한 바르게 인식하고 있었다. 식민지 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으로서 문학인으로서 박용철은 문학의 사회적 책임을 거론하였다. 수학적 두뇌의 명석한 사고의 소유자¹²²⁾인 박용철은 「효과주의적 비평논강」에서 12개의 항목을 들어 비평의 요강을 상술했을 정도로 문학의 사회적 효과에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여기에서 그는 예술을 평가하려는 비평가는 어떠한 고찰을 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초안을 예술품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 ① 자기가 받은 인상의 분석 기술 (모든 비평은 인상비평을 통과하지 않고는 성립불가능이다)
- ② 자기 비판, 계급적 입장과 교양 등
- ③ 사회의 제세력의 구성관계의 파악
- ④ 작품의 실제독자의 예상
- ⑤ 그 예상독자의 받을 인상의 추측
- ⑥ 그 인상에 따른 독자의 심정·행동변화에 따른 독자의 행동변화의 방향과

122) 김윤식, 앞의 책, 1978, 134면.

강약

- ⑦ ⑥의 종합적 결과로 사회가 받을 영향
- ⑧ 미래 독자에게 끼칠 영향의 고려
- ⑨ 작자의 민족과 국토와 환경
- ⑩ 사회 제세력의 구성관계와 작자의 입장
- ⑪ 작자의 예술적 재능과 개성적 특질
- ⑫ 예술적 수법 - 소재의 취급방법과 표현의 기교 등¹²³⁾

위에서 제시한 방법론은 개인적인 인상주의 비평가의 입장에서부터 시작하여 작품의 효과를 측정하려는 수용미학적인 측면의 고려를 거쳐 왜 그러한 효과를 가진 작품이 산출되었는가를 이해할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이러한 고찰에 의하여 작품의 효과를 측정한 다음 비로소 자기의 사회적 이상에 비추어 그 가치의 유무 고하를 결정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 박용철은 후일에 증명할 수 없는 명제를 허술히 표출하는 평론가는 아니었다. ‘책임있는 평자라고 자임하는 사람이면 비록 하루의 신문, 한달의 잡지에 붓을 들 때에도 사실의 명확한 인식에서 출발해서 동양에서 말하는 바 사필의 엄정을 기해야 할 것’¹²⁴⁾임을 강조한 사실에서 박용철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박용철은 예술 작품의 사회적 효과를 고찰하기 위한 것으로 작품과 작자 그리고 독자의 관계를 언급하였다. 한 개의 예술 작품이 작성되면 작자의 손을 떠나 수만 수천의 잡지에 인쇄되어 수만 수천의 독자에게 읽혀진다고 하였다.¹²⁵⁾

작품을 읽은 독자는 거기서 어떠한 인상을 받아 얼마큼 심정에 변화를 일으켜서 그는 그 달라진 심정을 가지고 달라진 태도로써 모든 사회적 활동에 참가하여 전(全)사회가 그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그 사회의 전(前)상태Y

123) 「효과주의적 비평논강」, 『전집』 2, 32-33면.

124) 「기교주의 설의 허망」, 『전집』 2, 15면.

125) 「효과주의적 비평논강」, 『전집』 2, 226면.

는 그 작품의 영향X로 말미암아 $X+Y=Y'$ 의 변화를 일으켰다고 볼 수 있다. 예술은 은밀한 가운데 우리 생활의 모든 방면에 영향을 끼친다. 우리의 판별력으로 그것을 측정할 수 있고 없는 문제는 있으나 한 개의 예술적 작품의 효과는 간접 다시 간접으로 우리의 생활에 작용하여 우리의 정치, 경제, 사상, 과학, 종교가 다 그 영향을 입었다고 볼 수 있다.¹²⁶⁾

박용철이 말하는 “효과”는 독자가 작품에서 “어떠한 인상”을 받아 그것이 그들의 심정의 변화를 일으키고 거기서 파생된 달라진 심정이나 태도가 전(全)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작품의 효과가 “은밀한 가운데” “우리 생활의 모든 방면”에 ‘간접 다시 간접으로 작용’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사실을 ‘사회의 호수에 던져진 한 개의 돌멩이’라고 정리하며 문학의 사회적 효과를 언급하고 있다. 문학의 사회적 효과에 대한 인식은 시대의 절망을 파악한 지식인으로서 문학인으로서 당연한 민족의식의 발현이었을 것이다. 당시의 민족의식은 어느 특정한 민족주의자의 이념체제가 아니라 온 민족의 가장 중요한 과제였으며, 특히 지식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¹²⁷⁾였기 때문이다.

박용철은 사회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예술의 조건으로 ‘감정의 전염’을 요구하고 있다. 아래의 비평을 통해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예술은 추상적 관념에 의해서가 아니라 구체적 형상에 의해서 표현 하는 것이며 사회에 끼치는 영향도 논리의 설복으로서가 아니라 감정의 전염으로 하는 것이다¹²⁸⁾

위의 언급은 “추상적 관념”, “논리의 설복”으로 귀결되는 프로문학의 정치적 성향을 비판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계급현실이라는 정치

126) 「효과주의적 비평논강」, 『전집』 2, 27면.

127) 송명희, 「이광수의 문학평론 연구(3)톨스토이(Leo Tolstoy)와의 문학관 비교」, 『논문집』 33호, 부산수산대학교, 1984, 295면.

128) 「효과주의적 비평논강」, 『전집』 2, 31면.

적 관념이나 사상성보다는 ‘감정의 전염’을 더 중시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프로문학의 효과주의적 관점과 차별점을 두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박용철은 텍스트가 전달하는 감정이 독자의 해석과 상호 영향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점은 프로문학이 작자의 의도에 의해 독자에 끼치는 효과를 좌우한다고 보는 반면, 박용철이 문학에 대해 감정의 전염을 통한 예술의 사회적 영향력을 강조하는 부분이다. 박용철은 맑스주의의 효과주의를 비판하면서 예술이 다른 사회현상과 다름없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인정하지만 예술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함을 제시한 것이다.¹²⁹⁾ 감정의 전염을 강조한 박용철의 태도는 문학의 사회적 효용론과 접하는 지점이다. 효용론적 관점에서 박용철의 태도는 톨스토이의 ‘감염력’과 일부 일치하는 면이 있다고 본다.

톨스토이는 진정한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조건 중 하나로 ‘감정을 경험하고 이를 전달하는 요구와 가능성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¹³⁰⁾ 톨스토이는 예술이란 사람들이 작가와 하나의 감정으로 결합하는 이 감정을 경험해서 작가와 같은 심경에 감염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결합을 느끼는 상태이며, 따라서 감염력은 예술의 특징이며 감염력의 정도는 예술의 가치를 재는 척도¹³¹⁾라고 하여 감염, 즉 의사소통의 도구로서의 예술을 중시하였다. 이러한 ‘감염성’은 진짜예술과 가짜예술을 구별하는 확실한 특징이 된다. 작품을 읽거나 보면서 자신이 그 작자와 공감을 하고 또한 그 작품을 감상한 다른 사람과 공감을 하는 경우,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가치 있는 예술품이라 보았다. 반면 대상이 아무리 시적이거나 흥미를 돋우는 것일지라도 다른 사람들과 정신적으로 합일하는 감정을 환기하

129) 「효과주의적 비평논강」, 『전집』 2, 31면.

130) 톨스토이, 이 철(역), 『예술이란 무엇인가』, 범우사, 1988, 135면.

131) 톨스토이, 이 철(역), 위의 책, 177면.

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술품이 아니라고 보았다.¹³²⁾ 톨스토이는 ‘사람들을 결합시킬 수 있는 보편적 감정이나 만인을 결합시키는 힘이 있는’ 작품만이 예술로서 인정된다고 하였다.

이렇게 볼 때 박용철이 말한 ‘감정의 전염’은 무력한 존재로서의 자아를 넘어서 초개인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민족’의 공감과 단합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이었다. 박용철은 감정의 전염이라는 정서의 확장을 통해 민족의 결집을 이루고자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박용철이 감정의 전염을 통한 문학의 사회적 효과를 강조한 태도는 낭만이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함의한 공상적·비현실적·비실제적인 태도¹³³⁾로부터도 거리를 두는 부분이며, 박용철의 낭만주의적 성격의 문학관이 현실로부터 비껴설 수 없는 지점이다. 이런 점에서 낭만주의 이면에 대한 프레데릭 바이저의 역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바이저는 “낭만주의가 본질적으로 비정치적이며 사회 정치적 현실에서 문학적 상상의 세계로 도피하려는 시도라는 미신을 완전히 떨쳐 버려야 한다”¹³⁴⁾고 강조한다. 박용철의 시대인식은 강한 이데올로기적 성향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의 낭만성은 감정의 전염을 통한 문학의 사회적 효과를 강조함으로써 민족의 공감력을 획득하게 된다.

박용철은 문학의 사회적 효용론을 강조하며 비평가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한 작품이 개인의 심리에서 나아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은 지극히 미세한 것이어서 ‘비상한 천재의 진맥’이 아니고는 알아낼 수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것을 예측하는 책임이 문예비평가에게 있다고 보는데, 이점에서 박용철은 비평가를 특별히 예리한 감수력을 지닌 비범한 천재로 간주하고

132) 톨스토이, 이 철(역), 위의 책, 176면.

133) 김상성, 『문예사조론』, 일신사, 1990, 167면.

134) 프레더릭 바이저, 김주휘(역), 『낭만주의의 명령, 세계를 낭만화하라』, 그린비, 2011.

있다.

비평가의 직능……그러나 한 개의 작품이 개인의 심리에 나아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은 과연 측정하기 쉬울 만큼 두드러진 것이냐, 아니다. 이 영향은 지극히 미세한 것이어서 비상(非常)한 천재의 진맥이 아니고는 알아낼 수 없는 것이다. 보통의 독자는 자기의 받은 인상을 분석해야 언어로 발표할 수도 없는 미소한 영향을 더구나 사회의 실증적 측정이 아니라 예측할 책임을 문예 비평가는 가지는 것이다.(중략) 그러므로 비평가는 특별히 예리한 감수력을 가지고 자기의 받은 인상을 분석하므로 일반 독자의 받은 인상을 추측하여 이 작품이 사회에 끼칠 효과의 민감의 계량기, 효과의 예보인 청우계가 되어야 한다.¹³⁵⁾

효과주의론은 일종의 독자 수용론이지 양질의 서정시를 만들어 내는데 필요한 기법론이 아니었다.¹³⁶⁾ 위의 글은 ‘존재의 시론’과 ‘수용과정의 관점’을 결부시키고 이를 더 확장하여 사회적 효용론으로서 비평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다.¹³⁷⁾ 박용철은 문예 비평가와 독자의 차이점을 “예리한 감수력”의 유무에 둔다. ‘한 개의 작품이 개인의 심리에서 나아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은 문학의 사적인 것을 공적인 것으로 전환하여 표현하는 형식으로 정립함으로써 고립된 개인과 사회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식민지 조선에서 이러한 가능성이 지닌 사회적 가치는 쉽게 측정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것이다. 청우계가 되어야 하는 비평가의 목소리는 단순히 개인과 사회를 충실하게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학의 사회적 효과와 책임을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곧, 독자에게 공명과 감화를 일으킴으로써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이끌어내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로써 박용철이 말하는 감정의 시화는 감정을 직접 표출하는 하나의 방식

135) 「효과주의적 비평논강」, 『전집』 2, 28면.

136) 김용직, 「높고 깊은 차원의 모색-박용철론」, 『한국현대시사』 1, 한국문연, 1996, 130면.

137) 오형엽, 앞의 논문, 2004, 357면.

이 아닌, 감정의 전염을 통한 시대인식의 측면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감정의 공감력을 얻기 위해 박용철은 시어로서의 언어에 주목하였다. 현실에 대한 인식이 곧바로 시적 인식이나 표현이 될 수 없음을 자각한 박용철의 시론을 여타의 시론과 구별할 수 있는 요소는 ‘시어’에 대한 자각¹³⁸⁾이라고 할 수 있다. 시를 논함에 있어 시어에 대한 자각은 당대 문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게 되는데, 그것은 1920년대 일본 유학길에서 돌아온 바로 앞 세대의 시인인 김억 등이 일본식 상징주의의 세례를 받고 돌아와 「시형의 음률과 호흡」과 같은 글을 발표하면서 시 자체에 대한 관심의 싹을 보이긴 했으나 아직은 시 언어 자체에 대한 본격적인 탐구가 되지 못하였던 문단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박용철이 유학한 기간은 일본에서는 大正 후기에 속하는 데 당대 일본 문단의 경향은 종래의 상징시가 퇴조하고 로맨티시즘과 이상주의 시가 풍미하고 있었다.¹³⁹⁾ 그의 언어에 대한 관심은 1929년 9월 6일자 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언어개념의 성립과정을 인식론과 언어학을 연결시켜서 발전과정대로 따라서 좀 캐여 보아야지 과학이란 과학적 언어개념의 구성이 될 듯하다. 사물 간의 관계 (규칙성, 공통성, 複起性 등이 있는) 의 新發見은 새로운 개념언어를 성립시켜야 할 것이다.¹⁴⁰⁾

138) 박용철은 카프 문학이 한참 열을 올리던 1925년 전후에 그는 1923년 동경 외국어학교 독문화 수학 중 관동 대지진으로 귀국 후 잠시 연희전문 수학 후에 향리에 계속 은거하였다. 그는 프로문학운동도 봤을 것이고 장자로서 향리를 지키고 있는 그에게 비친 카프문학에 대한 비판의식이 없진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영랑에 의해 키워나가게 된 언어에 대한 인식 즉, 카프에 대한 비판의식과 언어에 대한 관심 이 두 가지는 그로 하여금 ‘시를 살로 색이고 피로 쓰듯’하게 하였다.

139) 최박광, 앞의 논문, 79면.

140) 「일기」, 『전집』 2, 370면.

그는 일찍부터 “새로운 개념언어”를 주시하고 있었다. 우리 쪽에 없는 말을 새로 만들어서 써야 한다는 시적 언어의 혁신에 대한 자각을 늘 가슴 속에 품고 있었던 것이다.

대체로 언어란 조잡한 인식의 산물이다. 흔히 우리가 간단히 감지할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드를 수 있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용이하게 사고할 수 있는 것에서 추상 되어 오고 있다. 우리는 원시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을 축적해왔다 하지마는 우리의 평균 재보(財寶)란 극히 빈약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공통인식능력이란 극히 저급인 것이다. 교통수단인 언어는 이 공통인식에 그 불발(不拔)의 근기(根基)를 박고 있다. 이것은 최대공약수와 같이 왜소하면서 또 평균점수와 같이 아모하나에게도 정확히 적합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조금만 미세한 사고를 발표할 때는 그 표현에 그리 곤란을 격지 않는 경우에도 표현의 뒤에 바로 그 표현과 생각과의 간의 오차를 느낀다. 그 생각이 특이하면 할수록 미묘하면 미묘할수록 남달리 강렬하면 할수록 표현문은 좁아진다. 한편 언어 그것은 극소한 부분 극미한 정도를 제하고는 임의로 개정할수는 없는것이요 장구한 시일을 두고 지지하게 변화성장하는 생물이다. 그러므로 상징 시인들이 그들의 유현한 시상을 이 조잡한 인식의 소산인 언어로 표현하게 되었을때에 모든 직설적표현법을 버리고 한가지 형체를빌려서 그 전정신을 탁생시키는 방법을 취한것이다. 이것은 불가능을 가능하게하려는 필연의 길이었다¹⁴¹⁾

박용철은 표현의 매재로써 언어가 갖는 한계, 즉 생각이 특이하고 미묘할수록, 또는 강렬할수록 표현의 문이 좁아지는 作詩苦의 체험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시고의 필연성을 동시에 자각하고 있었다. 그가 영감의 시적 변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표현과 생각 간의 오차’의 극복을 모색하게 된 지점이다. ‘시가 언어를 매재로 한 예술인 이상 매재의 성질을 탐구하고 깊이 모를 심해에 침잠하여 완강한 소재와 격투하는 것’¹⁴²⁾이 시인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141) 「기교주의 설의 허망」, 『전집』 2, 20면.

142) 「정축년시단회고」, 『전집』 2, 115면.

그에게 시란 객관적 현실에 대한 인식 및 성찰 이전의 것이라는 점에서 그가 출발 당시에 지닌 시의 인식은 다분히 낭만주의의 흐름을 느끼게 하지만 이런 류의 소박한 시론은 어차피 지양·극복되어야 했다.¹⁴³⁾ 아래의 인용문에서 ‘시가 말을 재료로 삼은 꽃이나 나무’라고 예를 들면서 언어가 시의 재료가 되지만 그것만으로 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시는 시인이 내려놓는 이야기가 아니라, 말을 재료삼은 꽃이나 나무로 어느 순간의 시인의 한쪽이 혹은 원통이 변용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위해서 이미 數千 言을 버려놓았으나 다시 도리켜보면 이것이 모두 미래에 속하는 일이라 할 수도 있다. 시인으로나 거저 사람으로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심두에 한 점 경경(耿耿)한 불을 기르는 것이다. 라마고대(羅馬古代)에 성전가운데 불을 정녀들이 지키는 것과 같이 은밀하게 작렬할 수도 있고, 연기와 화염을 품으며 타오를 수도 있는 이 무명화(無名火). 가장 조그만 감촉에도 일어서고, 먼 향기도 맡을 수 있고, 사람으로서 우리가 아무것을 만날 때에나 어린 호랑이 모양으로 미리 겁(怯)함 없이 만져보고 맛보고 풀어볼 수 있는 기운을 주는 이 무명화, 시인에 있어서 이 불기운은 그의 시에 앞서는 것으로 한 선시적(先詩的)인 문제이다. 그러나 그가 시를 닦음으로 이 불기운이 길러지고 이 불기운이 길러짐으로 그가 시에서 새로 한걸음을 내어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교호작용(交互作用)이야말로 예술가의 누릴 수 있는 특전이요 또 그 이상적인 코스일 것이다.¹⁴⁴⁾

여기서 새롭게 이해되어야 할 것이 ‘변용’이라는 개념으로 ‘변용’은 체험과 영감이 시가 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다. 즉 시는 문자화 되기 이전에 시인의 마음속에 영감으로 자리 잡는다. 이것이 시 이전의 선시적 체험으로 이것은 무명화를 거쳐 시로 변용된다. 박용철은 시적 변용에 관여하는 것으로 “심두에 한 점 경경한 불”을 기르는 일을 꼽았다. 이것은 언어로 표현되기 이전의 선시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시를 쓰는

143) 김용직, 앞의 책, 1996, 129면.

144) 「시적 변용에 대하여」, 『전집』 2, 9-10면.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능력이라는 것이다. ‘은밀하게 작렬할 수도 있고’ ‘연기와 화염을 품으며 타오를 수도 있는 무명화’를 통해 시의 본질에 이를 수 있다는 특성을 강조한다. 이처럼 ‘변용’은 영감과 체험이 시적으로 구체화되는 순간과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창작 방법론적 개념인 것이다. 시를 닮는다는 것, 그것이 닮는 대상일 때 시는 이미 일상의 대상이 아닌 현실 저 너머의 것이 된다. 이 시를 닮는 것이 곧 ‘무명화’를 기르는 것이고, 그 길러진 ‘무명화’에 의해 다시 시가 진전된다는 ‘교호작용’이란 그가 주장했던 시적 ‘변용’인 것이다.¹⁴⁵⁾

박용철의 시론을 변용의 시론이라 칭하게 된 것은 체험의 시적 변용을 강조했다기 때문이다. 「시적변용에 대하여」는 서정시의 본질을 가장 정확히 드러낸 것의 하나¹⁴⁶⁾이며 시의 창작과정에 대한 연구이다. 시 이전의 정신 문제를 다룬 원론적인 시론으로 이글은 릴케의 「말테의 수기」와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취해온 시적 변용에 대한 체험적 시론이다. 박용철은 릴케가 문학에서 추구하고자 했던 면모를 정확하게 포착하여¹⁴⁷⁾ 시는 감정이 아닌 체험¹⁴⁸⁾의 세계임을 강조한다.

시는 체험인 것이다. 한 가지 시를 쓰는데도 사람은 여러 도시와 사람들과 물건들을 봐야 하고, 짐승들과 새의 날아감과 아침을 향해 피어날 때의 적은 꽃의 몸가짐을 알아야 한다. 모르는 지방의 길, 뜻하지 않았던 만남, 오래 전부터 생각던 이별, 이러한 것들과 지금도 분명치 않은 어린 시절로 마음가운데서

145) 이광호, 앞의 책, 149면.

146) 김윤식, 앞의 책, 1978, 145면.

147) 김재혁, 앞의 논문, 42면.

148) ‘체험’이란 말은 사물의 본질을 제대로 읽기 위한 방법과 동일시 된다. 인식론의 차원에서 체험이란 경험과는 다른 세계로 정의된다. 경험이라는 말이 대상과 얼마간의 거리를 예상한 것임에 대하여 체험은 대상과의 직접적이고 전체적인 접촉을 의미한다. 이 말이 철학적으로 깊은 뜻을 가지게 된 것은 W. 딜타이에서 비롯되었다. 그에 의하면 ‘모든 진정한 시는 체험에 토대를 둔다’ (이승훈, 앞의 책, 72면).

돌아갈 수가 있어야 한다.¹⁴⁹⁾

인용한 문장처럼 시간의 축적을 통해 경험과 기억을 간직하고 회고하는 주체는 사실 하나의 주체가 아니다. 우선 ‘체험의 주체’가 기억을 축적해 나가는 동안 기억을 회상하는 주체는 그 체험을 재구성하면서 ‘전생리’의 가치를 ‘고쳐’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한다. 기억과 체험의 재구성이 시창작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것처럼 감각이 시어와 서로 동기화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감각적 체험 자체의 재구성과 2차화 된 관조의 과정을 피할 수는 없다.¹⁵⁰⁾ 서정적 상태에서 시인은 창작자이지만 또한 그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관객이다.¹⁵¹⁾ 최후에 열 줄의 좋은 시를 쓰기 위해서는 전생을 두고 참을성 있게 기다리며 의미와 감미를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핏속에서 자라난 파란 꽃, 붉은 꽃, 흰 꽃, 흑시는 험하게 생긴 毒茸, 이것들은 저희가 자라난 흙과 하늘과 기후를 이야기하려 하지 않는다. 어디 그런 필요가 있으랴, 그러나 이 정숙한 따님들을 그저 병어리로 알아서는 안 된다. 사랑에 취해 흘러드는 사람의 귀에 저의는 온갖 비밀을 쏟우기도 한다. 저의는 다만 짓거리지 않고 까불대지 않을뿐 피보다 더욱 붉게, 눈보다 더욱 히게 피어나는 한송이 꽃.

우리의 모든 체험은 피 가운데로 용해한다. 피 가운데로. 피 가운데로. 한낱 감각과 한 가지 구경과 구름같이 퍼올랐던 생각과 한 근육의 움직임과 읽은 시 한 줄, 지나간 걱정이 모두 피 가운데로 알아보기 어려운 용해된 기록을 남긴다. (...) 흙 속에서 어찌 풀이 나고 꽃이 자라며 버섯이 생기고? 무슨 솜씨가 피속에서 시를, 시의 꽃을 피어나게 하느냐? ¹⁵²⁾

위의 시론은 시의 창조과정에 대한 논리라 할 수 있다. 예문에서 체험

149) 「시적 변용에 대하여」, 『전집』 2, 5면.

150) 김춘식, 앞의 논문, 155면.

151) 김춘식, 위의 논문, 156면.

152) 「시적 변용에 대하여」, 『전집』 2, 3-4면.

은 피 속에서 자란 한 송이 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라는 꽃은 체험이 용해된 피 속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감각, 구경, 생각, 근육의 움직임, 시 한 줄, 지나간 걱정 등의 모든 체험들이 피 가운데로 용해한다는 말은 생리적 필연성으로 영혼화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그가 이루고자 했던 순수시의 조건은 모방의 장난에서 벗어나 진실한 자기 체험의 경지에서 가능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앞에서 언급한 감정의 공감력과 연결된다. 감정의 전염을 통한 민족의 공감과 단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진실한 체험을 통해야만 함을 내포한 것이다. 문학의 사회적 효용으로써의 감염력을 뒷받침하는 견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문학은 언제나 자기의 체험 가운데서 올려나오는 것이다. 체험이라 하면 자기가 직접 경험하는 사실이나 독서와 다른 사상의 영향으로 마음의 세계에 이러나는 변화까지를 의미하는 것이다’¹⁵³⁾ 라고 언급한 부분은 박용철이 시 쓰기에 얼마나 깊은 자기 성찰적 요소를 부여¹⁵⁴⁾하려 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박용철은 외적 환경이 체험의 용해를 통해 ‘피’ 즉 신체로 결합된다고 말한다. 진실한 체험을 통한 시인의 작품은 사회성·역사성을 내포하게 된다. 시는 결코 시대로부터 고립하여 씌어질 수는 없다.¹⁵⁵⁾ 설령 그것이 시대를 외면한다 해도 그 역시 시대에 대응해 가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과연 정치·사회의 현실과 절연한 문학이 있을 수 있을까 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넓은 의미에서 인간의 모든 활동은 정치적·사회적 현실과 관련을 맺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변용의 시론’이 지칭되는 “변용”은 그 외양을 바꾸는 것과 같은 단순한 변화를 가리키지 않는다. 그것은 기존에 이미 존재하던 것이 새로운 어떤

153) 「여류시단총평」, 『전집』 2, 138면.

154) 김재혁, 앞의 논문, 32면.

155) 오세영, 앞의 책, 125면.

다른 것으로 탈바꿈되는 과정, 즉 창조로서의 변용의 과정을 의미¹⁵⁶⁾하는 것으로 박용철이 말하는 시적 변용이란 체험된 모든 것이 피 속에 용해되어 그 원래의 형체를 완전하게 잃는 것을 1차적으로 하여 그것이 시로 태어나는 것을 뜻한다.

시인은 진실로 우리가운데서 자라난 한포기 나무다. 청명한 하늘과 적당한 온도 아래서 무성한 나무로 자라나고 장림과 담천 아래서는 험상궂은 버섯으로 자라날 수 있는 기이한 식물이다. (...) 꽃과 같이 자연스러운 시. 피끄리같이 흘러나오는 노래, 이것은 도달할 길 없는 피안을 이상화한 말일뿐이다. 비상한 고심과 노력이 아니고는 그 생활의 정을 모아 표현의 꽃을 피게 하지 못하는 비극을 가진 식물이다.¹⁵⁷⁾

“자연스러운 감정의 발로”라는 낭만주의의 강령은 박용철에게는 이상화일 뿐이다. 비범한 천재에 의해 신비한 한 순간, 영감이 떠오를 때 저절로 쓰여 지던 시를 추구했던 낭만주의 시인들과는 달리 박용철은 그와 같은 시는 이상일 뿐이고 시인에게 필요한 것은 ‘비상한 고심’과 ‘노력’이라고 했다. 손을 펼 때마다 꽃이 나오는 확실한 경지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무한한 고난과 수련의 길을 밟아야 함을 강조하며 그는 시는 감정의 배설로 보는 낭만주의적 입장을 부정한다. 감상은 감정과 정서를 구체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방해가 되기 때문¹⁵⁸⁾에 그는 감상의 개입을 경계해야 할 일로 손꼽았다. 위의 글에서 박용철은 시인을 “청명한 하늘과 적당한 온도 아래서 무성한 나무로 자라나고, 장림과 담천 아래서는 험상궂은 버섯으로 자라날 수 있는 기이한 식물”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시인의 “한쪽이 온통 변용하는 것이 시”¹⁵⁹⁾라고 하였다. 이는 시 또한

156) 강웅식, 「박용철의 시론 연구-존재와 무명화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39집,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1, 98면.

157) 「시적 변용에 대해서」, 『전집』 2, 7-8면.

158) 「신미시단의 회고와 비판」, 『전집』 2, 76-77면.

한 포기의 나무로서 시대에 대응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시인의 ‘피’ 속에 ‘외계의 감응’¹⁶⁰⁾이 용해되듯이 시 속에도 시대현실의 상황이 녹아 있어야 할 것이다. 시인이라는 존재가 외적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존재라는 점을 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박용철의 순수담론은 사회적·역사적 요건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박용철은 1930년대 ‘시문학과’의 일원으로 순수시에 대해 끊임 없이 정렬을 쏟았다. 박용철은 감정의 체험과 감정의 공감력을 통해 최고의 시를 창작하고자 했다.

박용철은 비애, 환희, 우수, 격렬 등 인간 존재의 근원적 문제와 관련하여 개성 있는 표현을 통한 시의 예술성을 추구하였다. 그렇다면 박용철은 낭만주의자로 분류되었다. 하지만 박용철의 낭만주의 문학관은 현실에 접근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박용철의 순수시론은 민족의식이 강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인생의 체험’이라는 ‘덩어리’를 통해 민족의식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효과주의적 비평논강」에 드러나는 문학의 사회적 효과에 대한 인식은 시대의 절망을 파악한 지식인으로서 문학인으로서 당연한 민족의식의 발현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회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예술의 조건으로 ‘감정의 전염’을 요구한 점이다. 박용철이 말한 ‘감정의 전염’은 무력한 존재로서의 자아를 넘어서 초개인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민족’의 공감과 단합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이었으며 정서의 확장을 통해 민족의 결집을 이루고자 한 의도였다. 그리고 감정의 공감력을 얻기 위해 박용철은 시어로서의 언어에 주목하였다. 박용철은 체험의 시적 변용을 강조하며 시는 체험의 세계임을 강조한다. 그가 말하는 체험은 직접 경험한 사실이나 독서, 그리고 다

159) 「시적 변용에 대해서」, 『전집』 2, 9면.

160) 「시적 변용에 대해서」, 『전집』 2, 8면.

큰 사상의 영향 등에 의한 것으로 외계의 상황과 전혀 무관할 수 없는 부분이다. 체험을 통한 변화된 감정을 시적으로 형상화하기 위한 언어 선택의 고민은 시대에 대한 고민이 전제되어야 했던 것이다. 박용철이 『시문학』 창간호에서 “사회에 대한 공헌, 민족문예의 수립 등 큰 포부는 가슴에나 갈마들것시오 실제에나 밟아볼 것이지 스스로 입에 올리다가는 낮간 지러운 짓에 가깝기 쉽다”라고 했듯이 그는 문학하는 사람들의 시대인식의 한계를 너무나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 문학하는 일이 입에 올릴 정도로 민족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공헌을 한다고 떠벌릴 만한 것이 못되며, 그러한 일은 실천이 중요한 것이지, 스스로 표방한다는 것이 부끄러운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또한 사회에 대한 공헌과 민족문예의 수립이라는 큰 포부를 항상 가슴에 담고 실천을 향해 나아가야함을 들어낸 것이다. 이러한 박용철의 면모를 통해 그의 순수시론에서 문학의 예술성과 시대인식의 측면을 도모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민족어 완성의 사명

박용철의 문학에 대한 인식은 『시문학』을 발간할 때부터 모국어의 완성을 바탕으로 깔고 있었다. 박용철의 순수시론은 시문학과는 이론을 대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시문학과가 강조한 시적 경향은 『시문학』 창간호 후기에 잘 나타나 있다.

우리는 시를 살로 색이고 피로 쓰듯 쓰고야 만다. 우리의 시는 우리 살과 피의 맺힘이다. 그럼으로 우리의 시는 지나는 거름에 슬적 읽어 치워지기를 바라지 못하고 우리의 시는 열 번 스무 번 되씹어 읽고 외여지기를 바랄 뿐 가슴에 느낌 있을 때 절로 읊어나오고 읊으면 느낌이 이러나야만 한다. 한말로

우리의 시는 외여지기를 구한다. 이것이 오죽 하나 우리의 오만한 선언이다. 사람은 생활이 다르면 감정이 같지 않고 교양이 같지 않으면, 감수의 한계가 달라 다르다 우리의 시를 알고 느껴줄 많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어 주저하지 않는 우리는 우리의 조선말로 쓰인 시가 조선사람 전부를 독자로 삼지 못한다고 어리석게 불평을 말하려하지도 않는다. 이것이 우리의 자한계(自限界)를 아는 겸손이다. 한민족의 언어가 발달의 어느 정도에 이르면 구어로서의 존재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문학의 형태를 요구한다 그리고 그 문학의 성립은 그 민족의 언어를 완성시키는 길이다.¹⁶¹⁾

위의 『시문학』 창간호 편집후기는 박용철의 시 창작에 대한 견해로 볼 수 있는데 이는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시문학』 동인들이 들고 나온 시는 영탄조에서 벗어난 ‘살’과 ‘피’로 이루어진 보다 높은 차원에 있다는 것이다. 박용철에게 시는 “살로 색이고 피로 쓰듯 쓰”는 것이다. 그것은 시언어가 유기체에 가까운 어떤 질서를 추구해야 함을 뜻¹⁶²⁾ 하는 것으로 이러한 유기적 질서에 대한 추구는 ‘영감이 우리에게 와서 시를 잉태시키고는 수태를 고지하고 떠난다’고 하는 박용철의 순수시론을 뒷받침한다.

다른 하나는 ‘민족 언어의 완성’이라는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한 민족의 언어가 발달의 어느 정도에 이르면 국어로서의 존재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문학의 형태를 요구하며, 이로 인한 문학의 성립은 그 민족의 언어를 완성시키는 길이다’라는 말로 요약 되는 바 ‘민족 언어의 완성’이란 민족의 고유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언어를 의미한다.¹⁶³⁾ 여기서 “존재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은 언어의 개혁 의지를 달리 표현한 것이며, “언어를 완

161) 「시문학 후기」, 『전집』 2, 218-219면.

162) 신진숙, 앞의 논문, 194면.

163) 이에 대해 신재기는 민족의 고유성을 잘 드러내 줄 수 있는 어휘를 발굴하고, 민족어의 전통적인 언어 사용 규칙들을 찾아 활용하고 그 가치를 인식한다는 의미로 보았다. 그리고 박용철의 입장에서 김영랑의 시가 ‘문학을 통해 민족언어의 완성’을 가장 모범적으로 실천한 경우라고 제시한다(신재기, 앞의 논문, 258-259면).

성”시킨다는 것은 시를 말의 완벽한 결정체가 되게 만들고자 하는 각오와 결의를 내포한 것이다.¹⁶⁴⁾ 즉, 한 민족의 언어와 문학과 의 관계에서 문학은 말할 것도 없이 민족언어의 완성에 그 사명이 있음을 강조하고 조선의 시를 규정할 수 있는 핵심 요소가 ‘조선말’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박용철의 이러한 관점을 신재기는 ‘언어적 민족주의’ 문학론의 연장선¹⁶⁵⁾에서 이해하였다. 언어는 합리적 진술의 도구일 뿐 아니라 또한 내적 경험의 외적 표현이요, 어떤 특수한 역사의 산물이며, 명백한 전통의 유산이다. 또한 언어는 한 민족을 다른 민족의 존재와 독자적인 국가를 형성할 그 권리를 인정받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다. 민족주의 이론이 언어를 민족성의 표지로 강조한 것은 언어는 어떤 그룹의 주체성의 외적 징표이며, 그 계속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¹⁶⁶⁾ 박용철이 민족언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민족의 언어를 완성시키는 길이 문학의 완성이라고 주장한 점은 민족주의 지향성¹⁶⁷⁾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30년대 시사에서 조선어의 지위는 식민 정책의 압박으로 인해 심각한 변동을 겪고 있었다. 1934년에서 1935년을 전후하여 발표되는 글들에는 전환기·전형기라는 용어들이 빈번히 등장하였으며 실제 이러한 조선어·조선문학의 위기는 1934년 카프 2차 검거 사건을 전후하여 “극히 불리한 내외정세에 억매인 조선문단”¹⁶⁸⁾과 같은 구절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실화된 사회정치적 상황이었다. 일제치하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시인들의 언어적 선택에 대한 고민은 박용철도 예외일 수 없었다. 이때 박용철이 계급주의 문학가들과 대결 관계를 형성하면서 이데올로기의 상대방에 두었던 것은 민족어로서의 ‘조선어’였다. 그를 ‘민족시인’, ‘저항시인’으로 보기에는

164) 김용직, 『한국근대시사』 下, 학연사, 2005, 466면.

165) 신재기, 앞의 논문, 256면.

166) 송명희, 앞의 논문, 1985, 75면.

167) 신재기, 앞의 논문, 257면.

168) 박상의, 「『조선문학』의 재기를 바랍」, 『조선일보』, 1934.10.19.

무리지만 카프의 해산과 더불어 당시 조선문단의 흐름¹⁶⁹⁾에 동반하면서 계급주의적 문학에 대한 반감을 표명하고 ‘조선어’의 가치를 내세우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박용철이 내세운 순수문학은 ‘민족어의 가치를 수호하고 조선어의 미감을 발견하는 형태’¹⁷⁰⁾로 진행되었다. 그러한 사실은 「조선문학의 과소평가」¹⁷¹⁾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조선문학의 과소평가」¹⁷²⁾는 1930년대 전반기에 발표한 평론으로 초고는 1933년 말경에 작성¹⁷³⁾된 걸로 유추하고 있다.

169) 3·1운동 이후 가속화되는 식민주의 아래서 민족주의적 인식이 확산되고 국민문학으로서 조선문학에 대한 인식과 논의도 서서히 생겨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당시의 많은 지식인들은 대한제국의 멸망과 조선의 식민화가 문명개화에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조선 왕조와 대한제국의 실패에 기인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조선의 문학적 전통을 살피는 일보다 외래의 문물과 근대이념을 받아들이는 일이 시급했다. 그러다가 1920년대 중반 이후 시조부흥론이 등장하고 조선의 민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조선심’과 ‘조선 정조’에 대한 논의들이 제출되었다. 시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이른바 ‘국민문학파’의 등장은 그동안 부정했던 ‘조선’과 ‘조선문학 전통’에 대해 조선문단이 재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뜻한다. 1920년대 조선시의 한 방향을 모색하였던 국민문학파의 문체제기 이후,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조선의 전통과 고전에 대한 문단의 관심은 점차 증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1930년대의 시인들은 조선어와 조선문학에 대해 부단히 사고하고 자각적으로 의식해야 했다.

170) 여대천, 「모국어와 민족어의 가능성」, 『미적 근대와 언어의 형식』, 서정시학, 2007, 287-310면.

171) 『박용철 전집』에는 평론 「조선문학의 과소평가」, 「소설계에 대한 희망」과 두 편의 희곡 「석양」과 「말 안하는 색시」가 수록되지 못했다. 이는 내용상 유추를 해보면 일제의 검열 때문이었다.

1932년 이후 일본 내에서 군부 주도의 내각은 치안유지법을 동원, 좌익 운동 탄압에 나섰다. 1933년 한 해 동안 1만 4천여 명이 체포되고 일본공산당 지도자들도 체포되었다. 1934년에는 교토제국대학의 타키가와 유키도키의 자유주의 형법학설과 관련된 저서에 발매금지 처분이 내려지는 등, 자유주의자들에 대한 공격도 시작되었다. 조선 또한 마르크스주의와 자유주의에 대한 일본의 탄압과 통제의 움직임에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된다(박찬승, 『민족주의의 시대-일제하의 한국 민족주의』, 경인문화사, 2007, 334-338면).

172) 「조선문학의 과소평가」의 부제목은 「「일본문학강좌」 속의 「조선어와 조선문학」에 대하여」로 되어 있다. 「조선문학의 과소평가」는 『신동아』(1934년 2월호)의 문예란에 게재되었다.

173) 김용직(편), 앞의 책, 2005, 239면.

춘원이 개조지 제작년 유월호에 「조선의 문학」이란 일문을 발표했을 적에 다소의 논란이 있었다. 취사에 편의가 있다는 것과 그 사기(辭氣)가 모든 것을 너무 경홀하게 취급한 듯하다. 해서 제집안 이야기를 남의 앞에 공개할 때에는 집안의 체면을 돌보는 참작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었으나 이것은 절대적인 시비는 아닐 것이다.¹⁷⁴⁾

박용철은 ‘개조사(改組社)에서 간행하기로 발표된 『일본문학 강좌』¹⁷⁵⁾ 중(中)에 춘원(春園)의 집필 예정인 「조선어와 조선문학」¹⁷⁶⁾의 일항목이 있는데 대한 감상을 말하는 것’으로 글의 서두를 시작한다. 박용철은 이광수의 「조선어와 조선문학」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전편이 일곱 개로 구분되어 있는데 ‘전체의 배합관계를 깊이 고려함이 없이’ 고전문학기의 조선문학에 대해서 소략한 점을 지적했다. 박용철은 이광수의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 검토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조선문학을 개관하고 통시적 고찰에 요구되는 원인 규명의 감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일’¹⁷⁷⁾에 대해서 염려했던 것이다. 이는 박용철이 문학과 사회 그리고 역사의 관계를 의식하고 이 점을 중개하려는 의도를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박용철에게 모국어란 민족의 역사·전통이었고 그 혼을 집약, 승화시켜 나갈 그릇이었을 것이다. 그것을 부당하게 이광수와 같은 조선 문단의 원로가 축소, 왜곡시키는 일을 박용철은 외면할 수 없었기에 총독부와 사찰

174) 박용철, 「조선문학의 과소평가」, 『신동아』, 1934년 2월, 109면.

175) 『일본문학강좌』는 당시 일본의 개조사에서 간행기로 한 기획도서의 이름으로, 전 17권으로 기획된 것인데 그 가운데 제 15권은 특수연구편이었다. 이는 「지나문학과 일본문학」, 「서양문학과 일본문학」, 「불교문학과 일본문학」 등으로 구성되어 지나문학, 서양문학 등이 일본문학에 끼친 영향을 연구한 것이다. 여기에 「조선어와 조선문학」도 그들 가운데 하나였다.

176) 「조선어와 조선문학」은 1932년 6월호 『개조』에 발표된 것으로 발표 당시 는 일문으로 되어 있었지만 1933년 3월에 『삼천리』를 통해서 한글판이 나왔다.

177) 김용직(편), 앞의 책, 2005, 248면.

진의 감시체제를 무릅쓰고 「조선문학의 과소평가」를 썼다. 이것은 분명히 박용철이 내세운 순수의 본바탕은 민족에 두고 있음을 뜻한다.¹⁷⁸⁾

위의 글에서 박용철은 우리 문학의 권위가 작가나 문단의 위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 박용철은 문단의 대선배격인 이광수를 예우하면서도 조선문학의 조술(祖述)에는 남다른 각오가 요구된다는 생각을 그 바닥에 담고 있었다.¹⁷⁹⁾ 이광수는 일어는 조선어와 뿌리가 같고 조선어는 더 우월한 ‘국어’의 일부이기에 ‘없어질’ 운명을 가진 국어의 ‘지방어’로 인식하고, 조선문학 역시 일본문학에 흡수될 한시적인 것¹⁸⁰⁾으로 설정하면서 쉽게 친일문학에로 나아간다. 그러나 박용철의 경우 식민정책을 그대로 구현하는 입장이 아닌 식민 정책에 대한 성찰과 그 변용으로서 ‘조선어’를 지향하는 노력을 보인다.

개조사의 『일본문학강좌』는 조선문학을 아이누문학이나 류큐문학과 같은 위상으로 다루려 하였다. 이러한 행태에 대해 박용철은 조목조목 그 부당함을 지적해 나갔다.

조선어와 조선문학 또는 조선인은 아이누어(語)와 아이누문학 또는 아이누인(人), 류큐어(語)와 류큐문학 또는 류큐인(人)과 전연(全然) 동렬(同列)에 노힐 것인가. 개조사에서 일본문학이라는 범주를 재래(在來) 통용(通用)되는 일본어문학의 범주로 해석하지 않고 정치적 범주로 해석해서 국가관도내의 문화현상을 일률로 취급하는 것도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 그러나 일본문학강좌중에 조선문학이란 항목은 불필요한 용의(用意)다. 문학은 한 개의 문화현상이다. 「조선어와 조선문학」이 일본문학강좌 가운데 점령하는 지위의 중요성과 그 참여여부는 「조선어와 조선문학」과 일본문학과의 상호영향의 강도(強度)에 의거할 것이오 일률적 정치형태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다.¹⁸¹⁾

178) 김용직(편), 위의 책, 2005, 249면.

179) 김용직(편), 위의 책, 2005, 242면.

180) 이광수, 「문학의 신도표3」, 『매일신보』, 1943.2.7. (이경훈, 『이광수의 친일문학 연구』, 태학사, 1998, 229면 재인용).

181) 박용철, 앞의 책, 110면.

일본이 최초로 이민족을 접촉하게 된 것은 북해도의 아이누족과의 관계를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민족 접촉에 의한 최초의 언어정책도 아이누족에 대한 언어동화 정책으로부터 시작된다¹⁸²⁾ 아이누족은 일본인이 이주해서 약 700년, 동화적 접촉 기간 약 150년이 지나면서 이미 언어적인 순수성이 없어졌고 그들 고유의 풍습은 관광용으로만 남아 있을 뿐이다. 이는 일본의 식민 정책 결과로 볼 수 있다. 박용철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아이누’는 북해도에 남아있는 미개한 종족으로 차차로 소멸되어 가는 종족이라 하였다. 그러면서 ‘남아있는 민요가 약간의 수집가로 말미암아 수집과 해설의 재료가 되어 있고 이 소멸되어가는 인류종족의 한 유형을 인위적으로 보존시키려는 것도 일부의 인종학자와 인도주의자 사이에 논의되어 있다.¹⁸³⁾’ 는 점이 이를 시사한다. ‘조선문학의 위상 변화가 일본어 공용화 정책의 강제뿐만 아니라 조선인 작가들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서도 일어나고 있던’¹⁸⁴⁾ 당시의 상황에서 박용철은 조선문학 자체를 일본문학에 편입하려던 일본의 정치적 속셈을 미리 파악하였다. 그리고 일본문화와의 대등한 위치에 조선문화를 설정하여 상호 영향의 강도를 살펴야 함이 타당한 것이라고 내세우며 개조사의 행태를 비판한다. 당시의 ‘정치적 형태’ 는 국권을 상실한 우리 민족의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문화의 한 형태인 문학을 정치적인 영향 아래 놓아 그 위치를 정할 수 없다는 논리다. 이러한 시각은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으로서 제국의 언어이자 공용어로서 일본어가 가지는 현실적 우위의 논리에 대항할 수 있는 논리를 마련한 것으로, 조선문학이 정치적 행태로 인해 일본의 지방문학으로 전락할

182) 이성연, 「열강의 식민지 언어정책에 관한 연구」,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1988, 87면.

183) 박용철, 앞의 책, 110면.

184) 하재연, 「1930년대 조선문학 담론과 조선어 시의 지형」,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7, 7면.

위기에 처해 있던 상황에서 조선문학의 독립을 요구한 것이다. 이러한 그의 의지는 다음 글에서도 드러난다.

어떤 이는 조선(朝鮮)문학을 손쉽게 영국의 애란문학에 비교하기도 한다. (중략) 애란문학과 조선문학과를 동일시(同一視) 하는 것은 비상(非常)한 착오(錯誤)다. (중략) 애란 출생이라도 버너드 쇼의 문학을 애란문학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영어로 된 애란문학이 영문학의 일부분인 것과 조선문학과는 조금도 상동점이 없는 것이다.¹⁸⁵⁾

위의 글은 박용철을 포함한 당시 문학인들의 조선어와 조선문학에 대한 진로와 고민을 내비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는 조선문학을 언급하며 일본 문학 가운데서 평가될 것도 아니며, 또 영국의 애란문학에 비교될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당시 아일랜드와 조선은 실질적으로 식민지의 역사, 식민모국의 통치방식, 종교의 문제성, 게일어 지위와 조선어 지위, 문학적 전통 등의 여러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의 유사성이 비교¹⁸⁶⁾ 되던 상황에서 박용철은 민족의 현실과 조선문학의 역사적 위치를 파악함으로써 진정한 조선문학의 진로를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사천년의 역사가 있고 또 현재에 있어 독자의 문화를 가지기 위하여 미약하나마 노력하는 중에 있는 일민족(一民族)의 문학이라는 것을 정당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아모리 미약(微弱)한 종류에 대해서라도 경시(輕視)의 감정을 갖는 것은 우리로서 절대로 배척할 일이지마는 사멸(死滅)되어 가는 아이누 민요 류유큐 민요와 조선문학이 동렬(同列)에 놓이는 것을 생각할 때에 솔직히 말해서 유쾌(愉快)한 일이 아님이 물론이다.

이것을 개조사의 계획의 입장으로 보면 조선문학이란 일본문학에 있어 불필

185) 박용철, 앞의 책, 110면.

186) 이승희, 「조선문학의 내셔널리티와 아일랜드」, 『민족문학사연구』 28집, 민족문학사학회, 2005, 72면.

요한 항목이오 또 그것은 아이누문학 류큐문학과 동렬(同列)로 대우한다는 것은 문학적 양형(量衡)의 경중(輕重)을 그릇친 처사(處事)일 것이오 춘원(春園)으로서 그것을 집필하는 것은 또한 본의(本意)아닌 일일 것이다. 그러나 춘원이 이 항목을 집필하기로 약속한 것은 「일본문학강좌」 전체의 배합관계를 깊이 고려함이 없이 다만 청하는 대로 허락한 것에 지나지 아니할지도 모른다. 그럼으로 이 적은 감상에 오해가 있다면 석연(釋然)할만한 수교를 바라는 것이고 만일 조금이라도 정당한 의미가 발견된다면 일본문학강좌를 위하여 노력하심이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¹⁸⁷⁾

조선문학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른바 ‘조선문학의 독자적 존재론’¹⁸⁸⁾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조선문학의 역사성과 특수성 그리고 조선문학과 세계문학의 관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언어와 문학만은 식민상황일지라도 지켜야할 것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던 그의 일면을 볼 수 있다. 박용철은 버너드 쇼를 예로 들며 그가 애란 출생이라도 그의 문학을 애란문학이라 하지는 않는다고 언급한다. 이처럼 영어로 된 애란문학이 영문학의 일부분인 것과 조선문학과는 조금도 상동점이 없는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한다. 제국과 식민지 사이에서 힘의 균형은 한편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 제국이 식민지를 통치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문화의 혼종성은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는데 특히 문학과 예술 등의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문학 및 예술 분야는 다른 분야보다 수용의 폭이 크고 허용의 범위 역시 넓다.¹⁸⁹⁾ 식민정책은 대등 관계가 아닌 이민족 사이에서 나타나게 되는 이민족 통치에 관한 문제다. 그 접촉 형태가 어떠하든 간에 식민지배국과 피지배국 사이에는 문화의 접촉이 있게 된다. 이 문화의 접촉 속에 언어도 포함되는데, 두 민족의 접촉

187) 박용철, 앞의 책, 111면.

188) 김용직(편), 앞의 책, 2005, 244면.

189) 김지영, 「조선적인 것’의 변주, 그 속에 감춰진 식민지 지식인의 내면- 장혁주의 일본어소설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39집, 한국현대문학회, 2013, 77-78면.

이 지배와 피지배의 양상으로 나타날 때는 식민정책이 시행되며 여기에 반드시 언어정책도 들어가게 마련이다. 따라서 식민지 언어정책은 이민족 언어정책으로 귀착되는 것이다. 190) 당시의 이러한 상황에서 박용철은 ‘조선문학이 크게 융성해서 그 일문번역이 일본문단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기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점은 조선을 세계와의 관계에서 인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박용철의 여러 글들에서 낭만주의적 혐의를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는 낭만주의를 극복하기 위하여 상실을 극복 또는 상실과 회복을 매개하는 지점에 조선어의 독자론적 가능성을 두었다. 따라서 그의 시적 언어에 대한 인식은 단순히 시인의 취향과 기호를 드러내는 것을 떠나 조선어와 조선문학의 가능성과 좌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이를 통해 그의 조선어에 대한 인식은 민족적, 국가적 차원으로 승화된다. 당시 식민지의 나약한 지식인이었지만 문학 외적인 요소인 일제 강점기라는 상황과 직결되는 민족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일제에 대한 외적인 저항보다는 내적 저항의 형태인 조선문학의 독자성을 주장했던 것이다.

개조사는 일본에서 진보적인 입장을 취한 도서출판사였으며 여기서 발행된 『개조』라는 잡지는 당시 조선에서도 손쉽게 구해 읽을 수 있었다. 따라서 조선의 문학 지망생들은 일본 문단의 상황이나 현상응모 소식도 바로 접할 수 있었고, 이른바 ‘내지문단’ 즉 일본 문단을 통해 등단하려는 문학 지망생들도 생겨나고 있었다.¹⁹¹⁾ 그러한 조선의 작가들은 ‘지방 거주 작가’로 분류되었으며 일본 문단에서 조선인 작가의 일본어 창작물의 평가 조건에서는 ‘지방성’ 또는 ‘지방색’을 잘 살렸다는 점이 언급되고 있는 실정

190) 이성연, 앞의 논문, 7면.

191) 개조사의 『개조』 현상 창작은 당시의 신인 작가의 등용문으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문학적 제도였다(나카네 다카유키, 「1930년대에 있어서 일본문학계의 동요와 식민지문학의 장르적 생성」, 『일본문화연구』 4집, 동아시아일본학회, 2001, 313면).

이었다.¹⁹²⁾ 그런 개조사에서 조선문학을 어떻게 인식한 것인가는 도서출판사의 문제에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박용철의 평설은 개조사라는 일개 출판사를 겨냥한 것이 아니었다. 적어도 그것은 일본의 지식인과 학계, 전체 문화계에 대한 화살이기도 했다. 박용철의 발언은 이광수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러한 예가 『일본문학강좌』는 1935년에 간행되었는데 여기에 「조선어와 조선문학」은 실리지 않았다. 이광수가 원고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일 것인데 이에 빌미를 제공한 것은 박용철의 「조선문학의 과소평가」이기 때문이다.

박용철은 조선문학의 독자성을 이어 나갈 수 있는 자양분을 전통의 발굴에서 찾았다. 그래서 그가 다른 언어로 대체될 수 없는 조선문학의 독자성을 찾기 위해 선택한 창작의 방향은 ‘방언’이었다.

박용철이 「편집후기」에서 언급한 ‘민족 언어의 완성’에 주목하여 보면 김영랑의 “향기와 같은 자연스러운 호흡”을 살린 시어나, 백석시집 「사슴」 평에서 잘 나타나는 ‘수정없는 평안도 방언’과 같은 토착어 지향에 대한 고평은 ‘조선어’ 발굴을 위한 언어, 시어에 대한 고뇌의 흔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논평은 식민지 현실을 살아가는 시인으로서 비평가로서 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저항이었다. 박용철은 도시 문명의 세례를 받은 지식인이자 냉철한 감정의 비평가였고 서구 편향의 감각을 경험한 시인이었다. 이런 그가 반근대적이고 퇴행으로 보이는 백석시집 「사슴」을 해명

192) 1920년대 후반에서 1930년대에 이르러서는 조선인 작가가 일본어로 쓴 작품으로 일본 문단에 진출하기도 한다. 1930년대 조선표상을 둘러싼 언설적 배치의 변용은 조선에 있어서 식민지교육과 동화주의 정책을 거쳐, 일본문학계에 있어서도 조선인 일본어 작가의 활약이라는 문화현상이 발단이 되어 나타난다. 당시 일본의 문학영역에 있어서 두드러진 점으로 장혁주를 선구로 한 조선인 작가의 일본어 작품이 양적으로 등장하는 현상이 언급되었다. 장혁주의 『개조』 등단을 둘러싼 당시 조선인 문학과 일본 문단의 관계는 나카네 다카유키, 위의 논문, 311-319면 참조. 장혁주는 『개조』지의 현상공모에 입선한 「아귀도」로 일본문단에 정식으로 데뷔하였다.

하는 데 있어 고평을 했다는 점은 박용철이 강력한 정치적 전언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논평의 기저에는 그 이상의 저항성이 내재되어 있으며 분명한 것은 제국주의의 폐해와 식민주의의 본질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박용철이 높이 평가한 『사슴』의 언어도 다수적 언어에 대항하는 소수적 언어¹⁹³⁾이다. 당시 조선의 언어가 ‘전반적으로 침식받고 있는 혼혈작용에 대해서 순수를 지키려는 의식적 반발’이었으며 ‘구차하지 않고 타협이 없는 강한 신념’이라 할 수 있다. 방언의 개념은 언어의 분열적 성격에 의거한다. 즉 한 언어의 방언은 개별언어로 될 정도의 큰 분화를 일으키지 않는 적어도 한 언어로서의 공통점을 유지하는 한도 안에서의 분화만을 거친 분화체이다. 그러므로 모국어라는 대명제 아래에서 각 지역의 방언은 그 의미의 명확성을 알지 못한다고 해도 시에서 시인의 개인적 의미에 국한되지 않고 공동의 공감대를 가질 수 있다.¹⁹⁴⁾ 이런 의미에서 박용철이 주목한 방언은 ‘우연하고 부수적인 사건이라기보다는 식민지 시대를 살아가는 시인의 본질적 표현’¹⁹⁵⁾이라 할 수 있으며, 민족어를 통한 민족문학의

193) 다수적인 것은 척도적인 것이기에 다수적이다. 척도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런 만큼 각각의 개체들이 스스로를 재도록 주어지는 잣대다. 따라서 척도적인 것은 이미 각각의 개체들에게 작용하는 권력을 내장하고 있다. 따라서 그것은 그 수가 적은 경우에도 언제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이유로 인해 언제나 지배적인 것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다수적 척도에 의해 소수적인 개체는 다수적 척도가 지배하는 상태와 다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으로 ‘타자’가 되는 것이다. 소수적인 문학이 다수적 언어를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창안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소수적 문학은 다수적 언어와 다른 새로운 종류의 언어 형식, 즉 소수적인 표현 형식을 창안하며 나아가 그것을 통해 새로운 언어적 규칙을 만들어낸다. 그리하여 소수적 문학은 소수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만들어내는 이런 언어적 변형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며, 그것을 더 한층 밀고 나간다. 들뢰즈에 의하면 소수자의 표현 형식인 소수적인 문학은 가장 사적이고 내면적인 것을 다룰 때조차도 항상 정치적이다(이진경, 「문학-기계와 횡단적 문학」, 고미숙 외, 『들뢰즈와 문학-기계』, 소명출판, 2002, 38-45면).

194) 이익섭, 『방언학』, 민음사, 1978, 12-13면.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한 예술적 수단이라 할 수 있다.

백석 씨의 시집 『사슴』 일 권을 처음 대할 때에 작품 전체의 자태를 우리의 눈에서 가리어버리도록 크게 앞에서는 것은 그 수정(修整)없는 평안도방언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작품의 주는 바를 받아들이려는 호의를 가지고 이것을 숙독(熟讀)한 결과는 해득(解得)하기 어려운 약간의 어휘(語彙)를 그냥 포함한 채로 그 전체를 감미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모어의 위대한 힘을 깨닫게 된다.¹⁹⁶⁾

이 시집은 수정(修正)없는 방언으로 아동기 회상을 그린 부분이 중심되어 있다. 그리하여 이 시집에 대한 일반의 흥미가 토속학적 또는 방언채집적 흥미와 혼효(混淆)되어 있는 것도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 시집의 가치는 이 시편들이 울려나오기를 토속학적 취미에서도 방언채집의 기호(嗜好)에서도 아닌 점에 있다. 외인의 첫눈을 끄는 이 기괴(奇怪)한 의상 같은 것은 모든 이 시인의 피의 소근거림이 언어의 외형을 취할 때에 마지못해 입은 옷인 것이다. 이 시집에서 감득(感得)할 수 있는 진실한 매력과 박력이 이 증좌이다.¹⁹⁷⁾

위의 글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박용철이 백석의 시집 『사슴』에서 드러나는 “수정없는 평안도방언”을 일상적인 생활 감정의 표출이나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표현이 아니라, 어떤 본질에 다다른 “필연의 표현”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는 백석의 토착어를 “피의 소근거림이 언어의 외형을 취할 때에 마지못해 입은 옷”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당시 ‘조선적인 것’을 발견하려는 시도들 가운데서 유행하고 있던 “토속학적 또는 방언채집적 흥미”가 아니라, “전생리”에 의거한 “시인의 본질적 표현” 혹은 “피 속에 용해된” 표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고유어나 토착어는 의미 공동체의 토대가 가장 확실히 드러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생리적 필연”을

195) 「백석시집 「사슴」 평」, 『전집』 2, 124면.

196) 「백석시집 「사슴」 평」, 『전집』 2, 121면.

197) 「병자시단의 일년성과」, 『전집』 2, 105면.

‘감각’하고 ‘표현’하기에 가장 적절한 “매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결국 박용철이 토착어에 주목했던 이유는 그것이 민족의 고유성을 드러내는 언어였기 때문이며 조국 상실의 현실을 유경험적 시어에 담기 위¹⁹⁸⁾함이고, 당시 조선어가 겪는 혼혈작용에 대해 순수를 지키려는 의식적 반발이라 할 수 있다. 식민지 조선에서의 방언을 문학어로 선택했을 때에 그 효과는 민족문학¹⁹⁹⁾의 형성이라는 방향을 갖게 하면서 방언을 통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박용철은 방언의 의미와 한계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방언(方言)은 곧 깨트려서 뿌다귀와 모소리가 있는 돌이오 사전에 오르는 표준어(중화어)는 그것들이 맞부딪쳐서 깎기고 달아져 동글아진 돌이다. 회화어가 막자갈이라면 文語는 바둑돌이다. 자연국어(自然國語)가 뿔있는 돌이라면 비화용어(非話用語) 한문고문(漢文古文)이나 나전문(羅甸文)이나 신조어(新造語) 에스페란토같은것은 동그라진 돌이다. 향토(鄉土)의 야성(野性)과 도회(都會)의 문화를 자연(自然)한돌과 연마(練磨)된 돌에 비길수도있다. 다듬이돌이 개념의 고정과 존재(存在)의 안정(安定)을 얻은 반면에 뿔있는 돌은 生生히 유동(流動)하는 생명을 가지고있다. 지나친 결론이나 문화란것은 그 자체가 체가 성장(生長)해나온 육신과 대지와 기후를 얼마쯤 떠난곳에서 연마(練磨)되고 원숙(圓熟)하는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때때로 그본원]에서 신규보충병(新規補充兵)의 증원(增援)을 받아야 그 생활(生活)한 생명을 유지한다.²⁰⁰⁾

위의 글에서 방언에 대해 고정되지 않고 안정을 얻지는 못했지만 ‘생생히 유동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순수를 지키려는 ‘의식적 반발’이

198) 이임규, 「박용철 시론의 내적 장치와 시적 거리」, 『비평문학』 53집, 한국비평문학회, 2014, 247면.

199) 민족문학은 자연발생적인 민족성의 표현에 그 본질을 두기 때문에 그 자체의 문학적 자율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민족문학은 국가의식 보다도 민족의 저층에 내재한 공감 영역에 가치를 둔다. 민족문학은 민족의 보편적 감수성에 토대를 두고 그들의 공감 영역을 최대로 집약한 이상적인 문학작품을 창작하여 민족적 속성을 문학적으로 승화시킨다(오세영, 앞의 책, 41-42면).

200) 「백석시집 「사슴」 평」, 『전집』 2, 122면.

라고 언급하였다. 민족어의 영역에 서로 상이한 것들을 채워 넣었던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²⁰¹⁾들 사이에서 이러한 분별은 시가 민족어의 완성이란 것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를 가장 잘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면은 박용철이 현실을 도외시 하지 않고 민족어로서의 ‘조선어’의 발굴을 획득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끊임없이 ‘조선어’를 환기하며 제국의 언어에 봉합되지 않으려 하는 그의 의지였을 것이다. 박용철이 언급한 ‘시에 쓰는 언어와 회화용어가 완전히 일치해야 할 것을 주장하는 언문일치론자는 아니다. 그러나 시의 언어가 생활하는 민족의 언어 속에 깊은 뿌리를 박고 있지 아니해서 이 암묵의 지지자를 잃은다면 그 시는 대지를 떠난 나무와 같이 될 것’이라는 부분은 그러한 인식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정리해보면 박용철은 조선문학이 일본의 지방문학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던 상황에서 일본 문화와의 대등한 위치에 조선문학을 설정하면서 조선문학의 독립을 요구하였다. 국권 상실기에 ‘민족어로의 조선어’는 ‘국어’일 수 없었던 상황에서 박용철의 경우 식민정책을 그대로 구현하는 입장이 아닌 식민정책에 대한 성찰과 그 변용으로서 ‘조선어’를 지향하는 노력을 보이며 조선문학의 독립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조선문학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조선문학의 독자적 존재론’은 조선문학의 역

201) 임화에게 방언은 매우 알아듣기 어려운 것이었고, 방언의 특수성은 칭찬할 것이 못되었다. 백석의 시에 대해 “우리 현대시의 분명한 새영토지만 그것이 영역적인 의미 이상의 의의를 얼마나 가졌는가는 자못 의문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임화, 「低徊하는 詩精神」, 『동아일보』, 1938.12.23); 오장환은 백석에 대해 “스타일만을 찾는 모더니스트”로서 “갓은 사투리”를 써서 “묵은 기억”을 질서 없이 나열한다고 말하였다(오장환, 「백석론」, 『풍림』 5호, 1937, 19면; 최두석(편), 『오장환 전집』 2, 창작과비평사, 1989, 15면); 김기림은 백석에 대해 “외관의 철저한 향토 취미에도 불구하고 주착 없는 일련의 향토주의와는 명료하게 구별되는 모더니티를 품고 있다”고 평가하였다(김기림, 『사슴』을 읽고, 『조선일보』, 1936.1.29; 김학동(편), 『김기림 전집』 2, 심설당, 1988, 372-373면).

사성과 특수성 그리고 조선문학과 세계문학의 관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제국언어와의 차별성, 제국언어와의 동등성을 말하며 조선어를 강조한다. 이러한 점에서 언어와 문학만은 식민 상황일지라도 지켜야 할 것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던 박용철의 일면을 볼 수 있다.

박용철의 언어에 대한 관심은 언어 민족주의의 일환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언어 민족주의는 문화 민족주의의 일환이라고 앞서 언급하였다. 특히, 언어 민족주의는 민족을 언어나 문화집단 또는 전통의 동질성에 의해서 형성된 집단으로 생각한다. 박용철도 조선문학의 독자성을 강조하기 위해 한 민족의 언어와 문학과 관계에서 민족언어의 완성에 그 사명이 있음을 강조하고 조선의 시를 규정할 수 있는 핵심 요소가 ‘조선말’임을 강조한다.

박용철이 내세운 순수문학은 ‘민족어의 가치를 수호하고 조선어의 미감을 발견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작업은 조선문학의 독자성을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점은 박용철이 문화를 민족의 구성요소로 중요하게 생각하였다는 점을 시사한다. 문화의 표지로써 조선어와 조선문학을 강하게 의식하였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조선말의 확산과 조선문학의 수립을 통해 민족 정서를 환기하고 민족 정체성을 찾기를 도모했던 박용철은 조선말의 진수를 방언이나 고어에서 찾았다. 식민지 조선에서의 방언을 문학어로 선택했을 때에 그 효과는 민족문학의 형성이라는 방향을 갖게 하면서 방언을 통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박용철은 민족의 언어와 문화, 즉 방언이나 고어 등에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중심언어에 대항하는 면모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점은 제국의 언어와 문학에 종속되지 않으려는 노력이다.

IV. 박용철의 시에 나타난 시대인식

1. 고향상실과 복원의식

1930년대는 역사적으로 일제의 무단정치 체제가 강화되어 물리적 궁핍과 정신적 위축감이 혼재된 절망의 시기였다. 그렇다보니 한국의 경우 식민지 현실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 일정한 삶의 근원으로부터 뿌리가 뽑혀진 방향의식이 당시 시인들의 지배적 감정을 형성하게 되었다.²⁰²⁾ 박용철 역시 시대적 상황의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박용철 시의 시작은 민족의 현실을 자각하는 것으로 즉, 역사적 공동체의 상실과 소외된 주체의 인식으로부터 시작된다. 무엇인가 누구에게 ‘빼앗겼다’고 느끼는 그의 시에 나타나는 상실의식의 저변에는 식민지 조선의 어두운 현실이 놓여있다.²⁰³⁾ 이러한 식민주의의 자각이 그의 시에는 고향상실과 복원의 염원으로 표출된다. 고향의 형상화와 향수라는 감정의 근원은 상실된 것의 복원이라는 염원 의지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박용철 시에서 드러나는 상실과 비애는 우리 민족이 겪었던 역사적 현실과 매우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박용철의 많은 시에서는 고향을 떠나는 혹은 떠돌아야 하는 자의 설움이 내재되어 있는데 이때 이향(離鄉)이란 식민지 현실 속을 살아가는 피식민자의 고통을 수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종철이 ‘30년대의 한국시의 두드러진 문학적 징후의 하나는 대부분의 시인들이 극심한 고향 상실감에 젖어 있다는 것’²⁰⁴⁾이라고 말한 이유도

202) 최원식·임형택 (편), 『한국근대문학사론』, 한길사, 1982, 443면.

203) 문혜원, 앞의 논문, 211면.

204) 김종철, 『시와 역사적 상상력』, 문학과 지성사, 1978, 11면.

이러한 시대 상황을 전제로 한 견해라고 볼 수 있다. 즉 “고착화되기 시작한 식민지 체제의 견고함은 시인들에게 악마적 현실로 작용하게 되고, 외적 억압의 강화는 그들의 의식 속에 좌절과 방황의 정서를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²⁰⁵⁾던 것이다. 그렇다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비롯된 ‘상실의식’은 ‘고향상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고향’은 시인들에게 있어 “현실적인 삶의 터전이자 개인적 민족적 정체성을 담지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고향상실’은 “절박한 상황 인식의 반영이며, 향수의 감정은 상실된 공간에 대한 복원의지”²⁰⁶⁾로 볼 수 있다.

박용철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인 「고향」은 식민지 체제하의 우리 사회가 지닌 궁핍상을 간접적으로 노래한 것으로 평가된다. 시인이 자각한 고향은 이미 타자에 의해 폐허가 되어버린 곳이다.

고향은 찾아 무얼하리
 일가 흩어지고 집흐너진데
 저녁 가마귀 가을풀에 울고
 마을앞 시내도 넷자리 바뀌었을라

어린때 꿈을 엄마 무덤우에
 남겨두고 떠도는 구름따라
 멈추는듯 불리온지 여나무해
 고향은 이제 찾아 무얼하리
 하날가에 새 기쁨을 그리어보라
 남겨둔 무엇일래 못잊히우라
 모진바람아 마음껏 불어쳐라
 흩어진 꽃잎 쉬임 어디 찾는다나

205) 류경동, 「잃어버린 시간의 복원과 허무의 시의식」, 『상허학보』 4집, 1998, 364면.

206) 류경동, 위의 논문, 364-365면.

힘한 발에 짓밟힌 고향생각
-아득한 꿈엔 달려가는 길이언만
서로의 굳은 뜻을 남게 앓긴
옛사랑의 생각 같은 쓰린 심사여라

- 「고향」 전문

이 시는 박용철이 번역한 하이네의 시 91 편 중 하나인 「앙젤리크V」(「아름다운 너의 키스에」 하이네 번역시 명)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아름다운 너의 키스에」는 조국에 대한 망명객의 향수를 주제로 한다. 「고향」 역시 조국을 은유적으로 읊은 것으로 애수적인 소재와 함께 일체에 대한 저항 정신이 시의 밑바닥에 깔려 있다.²⁰⁷⁾ 이러한 점은 박용철의 외국시 번역 작업이 “자신의 창작시를 살찌우고자 했으며 나아가 그것은 좋은 시를 위한 연습용으로 이용한 것이다”²⁰⁸⁾고 한 것임을 다시금 증명하게 한다. 박용철은 짧은 문학활동을 하는 동안 전문적인 번역가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다. 그 당시 시대적 풍조가 외국문학을 번역, 소개하여 우리문학을 발전적으로 건설하려는 경향이 짙었기 때문에 그가 번역에 손을 댄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대체로 번역하고자 하는 작품 선정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것이며, 번역자의 기호 및 취향에 관계된다. 그러나 번역자가 작품을 선정할 때 간과해서 안 될 일은 번역작품이 끼칠 문학사적 의의, 사회적 분위기, 독자의 기호 등이다.²⁰⁹⁾ 이와 관련하여 그가 하이네 시를 가장 많이 번역, 소개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물론 릴케, 괴테, 하이네, 쉴러 등의 시의 영향 관계도 인정되지만 하이네 시의 영향 관계를 주목하는 것은 그가 하이네 시를 가장 많이 번역, 소개했다는 사실에 근거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김학동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1920년대

207) 최박광, 앞의 논문, 83면.

208) 김용직, 앞의 책, 1996, 126면.

209) 김효중, 「박용철의 블레이크 시 번역 고찰」, 『번역학연구』 제7집, 한국번역학회, 2006, 71면.

까지의 국내 하이네 수용은 “하이네의 낭만과 서정성의 차원을 강조”하여 소개된 데 반하여 “1930년대에는 그 본격적인 단계로서 하이네의 정치 및 사회적 관심”²¹⁰⁾이 훨씬 강조되었다고 한다. 하이네 번역자로서 박용철이 원시를 선별할 때에 낭만과 서정성을 지닌 시들을 주로 선택한 사실은 명백하다. 박용철이 하이네의 혁명적 경향성에 대해서는 애써 눈을 감아버린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일제의 통제를 받고 있던 당시의 시대상황을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²¹¹⁾이다. 하이네는 유태인이라는 운명 때문에 반강제적, 반자의적으로 망명 생활을 해야 했었고 박용철은 일제 식민지 체제하에서 고향 상실감에 가득 차 있었다. 이러한 요인은 하이네의 시가 박용철의 정신적인 면에 영향을 끼쳤음을 추측하게 한다.

위의 시에서는 ‘서로의 굳은 뜻을 남게 앗기’므로써 ‘쓰린 심사’만 가지되 되는데 이는 타자에게 자신의 중요한 것을 상실 당함을 보여주고 있다. ‘고향은 찾아 무얼하리’에 집약된 상실감은 일제 식민지의 상황에 바탕을 두었을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고향’의 함축적인 의미는 주권을 상실한 조국과 일제 침탈로 폐허가 된 이미 버려진 고향을 뜻하는 것으로, ‘험한 밭에 짓밟힌 고향’은 식민지 시대의 인식이다. 이러한 인식은 「절망에서」의 ‘한없는 어둠’이라는 암담한 현실인식과 유사하다. 따라서 ‘떠나는 자’는 개별적인 시적 자아임은 물론 식민지 현실을 견뎌야 했던 보편적 피지배자의 모습을 의미한다. ‘고향은 찾아 무얼하리/일가 흩어지고 집 흐너진데’ 라는 부분은 시적 주체의 단순한 체념이 아닌 강하고 집요한 ‘고향’에 대한 애착으로 다가온다. 이러한 애착은 고향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복원의 염원으로 치환할 수 있다. 여기서 시적 주체는 ‘떠도는 구름’이나 ‘흩어진 꽃잎’처럼 고향 하늘을 배회할 뿐 안주의 장소를 발견하지 못한

210) 김학동, 「하이네의 移入과 그 影響」, 이유영 외, 『한독문학비교연구』 2, 서강대학출판부, 1980, 102-130면(안삼환, 앞의 논문, 122면에서 재인용).

211) 안삼환, 위의 논문, 122면.

다. 자신과 고향을 연결시켜주는 ‘엄마 무덤’이 있다 해도 지금은 험한 발에 짓밟혀 버린 고향이기 때문이다. “모진 바람”과 “흩어진 꽃잎”처럼 정처없는 “고향생각”에 주체는 결국 “옛사랑의 생각 같은 쓰린 심사”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박용철의 시작 태도에는 인생론적 성찰을 뜻하는 “사변적 속성”이 짙게 반영²¹²⁾ 되어 있지만 당시 우리 민족의 현실과 연관 지어 생각해보아야 한다.

고향 상실의식은 한국시의 경우 조국 상실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염두에 둘 때, 필연적으로 작자가 자신의 고향을 노래하는 경우에도 그 고향은 단순한 작자 자신의 개인적 고향의 의미를 초월하여 조국이라는 관념의 대상으로 발전할 개연성을 지니게 된다.²¹³⁾ 여기에서 향수의 감정을 드러내는 ‘고향’의 문학적 형식이 개인적인 고백 이상의 의미를 선취할 수 있는 건 국가 상실감의 구체화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박용철은 식민지라는 현실을 화자의 어두운 마음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밤은 깊고 바람은 구름 덮힌’ (「부엉이 운다」 일부) 조국의 식민지 현실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은 ‘아버지 어머니 다 잃어버린 다만 두 마리 병든 새아기’(「두마리의 새」 일부)처럼 힘없고 지친 모양으로 형상화된다. ‘새파란하날 아득이 높고 개아미 무리 다만 부지런하다’ (「솔개와 푸른 쏘」 일부)에서 보이는 새파란 하늘은 화자가 도달하고픈 현실인 것이다. 이처럼 박용철은 일제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느끼는 시대현실을 우리 민족의 현실이라는 모티브로 인식²¹⁴⁾하였다. 이외에도 상실의식으로 인해 받아들여지는 비극적인 공간을 ‘불기 없는 방’(「꿈은날개 편」)이나 ‘험상한 바위’ (「나는 그를 불사르노라」)로 묘사하였다.

212) 김용직, 앞의 책, 1996. 121면.

213) 임용택, 「1930년대의 한일근대시 비교고찰-실향의식을 중심으로」, 『일본학보』 55집, 한국일본학회, 2003, 320면.

214) 김경복, 앞의 논문, 333면.

아래의 시는 조국 상실에 대한 비애를 어머니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불도 없는 방안에 쓰러지며
내쉬는 한숨 따라 「아 어머니 !」 석기는 말
모진듯 참아오든 그의 모든 설어움이
공교로운 고임새의 문혀져 나뉘듯이
이 한 말을 따라 한번에 쏟아진다

많은 구박 가운데로 허위여다니다가
현숨같이 지친 몸은 일어날 기운 잃고
그의 맘은 어둠에 가득 차서있다
쉬일 줄 모르고 찬비작고 나리는 밤
사람 기척도 없는 싸늘한 방에서

뜻없이 소리내인 이 한 말에 마음 풀려
짓구진 마을애들게 부땃기우다
엄마 옷자락에 매달려 우는 애같이
그는 달래여주시는 손 이마 우에 느껴가며
모든괴롭 울어 잊으련듯 마음놓아 울고 있다

- 「비에 젖은 마음」 전문

위 시에서는 ‘설어움’으로 울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그 ‘설어움’은 ‘많은 구박 가운데로 허위여다니다가’ ‘불도 없는 방안에 쓰러지며’ ‘모진 듯 참아오든’ ‘설어움’이다. 여기서 형상화된 ‘불도 없는 방’, ‘찬비작고 나리는 밤’, ‘현숨같이 지친몸’은 민족의 현실이며 피지배자의 모습이다.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 어머니’가 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옷자락에 매달려 우는 애같이’ 품속에서 ‘달래여주시’고 모든 괴로움을 잊을 수 있도록 하여 주는 존재인 것이다. 이런 어머니를 ‘사람 기척도 없는 싸늘한 방에서’ ‘이마우에 느껴가며’ 우는 모습은 현재 어머니의 부재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며 그 고향은 조국이기도 한 것이다.

박용철은 다음의 시에서도 고향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표출하였다.

아 -그러나
고향 고향
이말속에는 무상의 명령이 숨어있네
나는 역센 팔장에서 몸을 뺏히려 부동거리는 애기와같이
나의 가슴은 두조각으로 빼개지려하네
여보게
내가 이고향을 사랑하지않게 되는 수를 가르쳐주게

눈을 감고 다니게
귀는 막고 다니게
그렇지 않거든 여기를 버리고 가게

- 「無題」 전문

위의 시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고향’이라는 시어를 반복하면서 드러낸다. 고향은 생명의 원천으로서 돌아갈 곳이 되어야 하고, 생활의 터전으로서 풍요로운 다산의 공간으로 연상되어야 하지만 박용철 시에 등장하는 고향은 제국에 의해 오염된 공간이다. 그래서 ‘고향’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가장 중요한 명제이며, ‘고향’ 속에는 그 위에 더할 수 없이 높은 명령 즉, “무상의 명령”이 숨어 있다. 고향을 잊으려고 하는 것은 고향이 싫어서가 아니라 고향을 잊지 못하는 간절함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고향 상실의 비애와 복원에 대한 간절한 염원은 ‘가슴이 두 조각으로 빼개지려’는 아픔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이 아픔은 제국의 횡포에 대항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민주체의 비애의식이기도 하며 시대상황에 강렬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자신에 대한 또 다른 분노의 표현인 것이다. 제국의 횡포에서 벗어나는 일은 고향을 버릴 때 가능하다. 그래서 이 시

의 ‘이 고향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수’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역설은 ‘눈은 감고 다니게 귀는 막고 다니게 그렇지 않거든 여기를 버리고 가게’라는 죽지 않으면 안되는 답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만큼 고향은 마지막까지 버릴 수 없는 공간이며 지켜내야 하는 공간인 것이다.

자유의 푸른하날은 우리의 젓어머니
우리는 어둔속에 엄마를 찾아오니
아즉도 젓먹고싶은 어린영웅 들이다

자유의 푸른하날은 우리의 젓어머니
우리는 시퍼런칼 피를보는 싸흠에서
얼굴에 칼흔적있는 사나히가 되련다

자유의 푸른하날은 우리의 젓어머니
가벼운 솜자리를 어느결에 거더차고
우리는 찬돌우에서 어린꿈을 맺는다

- 「우리의 젓어머니 (소년의말)」 전문

‘소년의 말’을 부제로 한 이 작품에서는 식민지 현실을 표현하고 있다. ‘아즉도 젓먹고싶은 어린영웅 들’, 즉 순수한 소년으로 표상된 시적 자아는 ‘자유의 푸른하날’을 마음껏 뛰고 싶은 심정이다. ‘시퍼런칼 피를보는 싸흠에서 얼굴에 칼흔적있는 사나히가 되’어서 ‘우리의 젓어머니’를 찾고 싶지만 그러한 각오는 ‘찬돌우에서 어린꿈’으로 되어버리고 마는 가냘픈 희망일 수밖에 없다.

이 작품에 절박함이 없고 시적 형상화의 작업이 부족하다 해서 비하할 수만은 없다. 박용철이 언급한 ‘작자가 흥분해서만 독자가 분기하는 것이 아닌 작품의 효과는 그리 단순히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무력한 조선의 현실묘사가 반드시 우리를 무력에 동화시키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

다'215)는 부분은 다시 생각해볼 만하다. 그의 시쓰기는 조선의 무력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다. '우리의 젓어머니'에 대한 간절함은 곧 고향에 대한 간절함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상실공간은 필연적으로 결여를 극복하기 위한 작업이 뒤따르며 그 결여의 극복은 박용철에게 있어서 희망과 평화로 충족된 공간을 회구216)하게 한다. 시가 인간 진실의 표현이라고 볼 때 시인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초탈하고 싶은 소망은 당연한 귀결이기 때문이다. 1920년대 시가 갖는 일반적 특징은 '영원한 나라', '밀실' 등 낭만적 도피의 열망이 동경과 관련하여 나타나지만 박용철의 시에 나타나는 동경은 현실 도피적인 것이 아니라 희망찬 미래를 향한 결단이라는 점에서 20년대의 낭만성을 극복하고 30년대로 발전하는 계기를 보여준다.

다습고 밝은해사발 이같이 내려흐르느니
숨어있던 어린풀삭 소근거리 나오고
새로피어 수접은 가지우 분홍 꽃잎들도
어느하나 그의 입마춤을 막아보려 안합니다

푸른밤 달비천 데서는 이슬비 구슬되고
길사발바닥에 고인물도 호수같이 별을 잠금니다
조그만 반디불은 여름밤버레라도
꼬리로 빛을 뿌리고 날아다니는 혜성입니다

오 그대시어 허리 가느란 계집애 앞에
무릎 꿇고 비는 사랑을 버리웁고
몸에서 스스로 빛을 내는 사나이가 되옵소서

고개 빠트리고 마음 떨리는 사랑을 버리웁고

215) 「문예시평」, 『전집』 2, 49면.

216) 김경복, 앞의 논문, 333면.

은비둘기같이 가슴 내밀고 날아가시어

다만 나의 흐린 눈으로 그대의 빛나는 자취를 따르게 하옵소서

- 「빛나는 자취」 전문

이 시는 ‘은비둘기’를 통해 꿈과 희망, 광명을 형상화하고 있다. ‘은비둘기’를 형상화하기 전에 ‘조그만 반딧불’, ‘꼬리로 빛을 뿌리고 날아다니는 혜성’, ‘그대의 빛나는 자취’를 내세우며 ‘빛’을 구현하고 있다. 그리고 시적 주체는 ‘무릎 꿇고 비는 사랑’ ‘고개 빠트리고 마음 떨리는 사랑’을 버리고 ‘스스로 빛을 내는 사나이’를 취하고자 한다. 버려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을 선별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은비둘기’처럼 ‘존재의 우월한 상태를 상징’²¹⁷⁾하고자 한 것으로, 어둠을 스스로 극복하려는 의지이며 광명을 복원하고자 하는 염원이다.

어느 해와 달에 끄을림이노
내 가슴에 밀려드는 밀물 밀물

둥실한 水面은 기름같이 솟아올라
두어 마리 갈매기 어긋져 서로 날고

뚝뚝은 바람가득 머금어
말리길 떠날 차비한다

그러나 이 순간을 스치는 한쪽 구름
가슴 폭 내려앉고 깃발은 꺾어지며

험한 바위 도로 다 제 얼굴 나타내고
검정 빨은 죽음의 손짓조차 없다

남은 웅덩이에 파닥거리는 고기들

217) 뉘 브느와, 윤정선(역), 『징표,상징,신화』, 탐구당, 1984, 66면.

기다림도 없이 몸을 내던진 해초들

우연은 머리칼처럼 헝클어지도 않았거니
너는 무슨 낚시를 오히려 드리우노

희망과 절망의 두 등치기 사이를
시계추같이 건네질하는 마음씨야

詩의 날랜 날개로도 따를 수 없는
걸음 빠른 술래잡기야 이 어리석음이야

들어오며 다시 나가며 부질없는 이 호흡
너는 그래 6월 소보다 더 험덕으릴뿐이나

- 「희망과 절망은」 전문

위의 시에서 시인의 시야에 들어온 ‘갈매기’의 자유로운 비상은 희망과 동경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화자의 마음도 그저 잠시일 뿐 ‘가슴 폭 내려앉고’, ‘깃발이 꺾어지며’ 불안과 공포로 치닫는 절망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이 부분에서는 시인이 비극적 시대 현실을 살아가면서 그 상황에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시인은 어둠과 밝음에 대해서 ‘밀물과 썰물’ 그리고 ‘두 거리를 왔다갔다 하는 시계추’와 같다고 생각한다. 술래잡기하듯이 밝음을 쫓고 어둠을 피하는 것을 어리석은 일이라고도 한다. 그리하여 새로운 삶을 위한 동경의 세계는 ‘갈매기’의 비상처럼 언제나 먼 곳에 자리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현실의 외상을 외면하기 위한 것이 아닌 현실을 인식하고 극복하기 위해 그의 시적 주체는 끊임없이 미래를 동경하게 된다. 이러한 동경은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려는 염원의 표출이기도 하다.

다음의 시에서는 제국의 침입을 받지 않은 평화로운 공간에 대한 지향이 드러난다.

조그만 시인이여 어찌 내 앞에 와 서는가
 내 앞에 와서 무슨 말을 써보려는가
 아프리카의 탁 터져 끝없는 별판에
 육어진 숲그늘과 찰찰거리는 시냇물이 그리워
 내 눈이 눈물을 흘린다고 마치
 계집애의 사랑을 잃고 가슴 짜내어 우는
 두 볼 여윈 시인의 얼굴로 내 낮을 그리려는가
 네 스사로의 달금한 서름을 버리고
 나의 가슴을 네 가슴에 받아드리여
 나의 곱은 말을 네 말을 삼으라 시인이여

- 「失題」 전문

위 시는 연애사건을 형상화한 시로 읽힐 수 있다. ‘조그만 시인’은 나의 또 다른 자아일 수 있다. ‘조그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보잘 것 없고 왜소하고 힘없는 시인의 존재다. 이 조그만 시인은 나의 눈물을 시로 형상화하려는 시인이다. 그는 내 눈물을 보고 ‘계집애의 사랑을 잃고’ 우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나’의 눈물은 아프리카의 탁 트인 별판과 우거진 숲과 시냇물의 자연에 대한 동경 때문이다. 한낱 사랑 때문이 아니라 자연이 주는 광활함과 평화로움, 풍요로움에 대한 지향이 제약되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다. ‘아프리카’는 외부의 침입을 받지 않은 제국의 주변부를 상징한다. 따라서 ‘아프리카의 탁 터져 끝없는 별판’은 조선의 어두운 현실과 대척되는 동경의 공간이고, 대지로의 귀환을 꿈꾸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고향과 같은 유사공간을 잃었거나 회귀할 수 없는 현실의 극한 상황 때문이다. 현재의 극한 상황을 나만의 상황으로 축소한 것은 순수문학만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상황과 연관지어 볼 수 있다. 평화의 공간을 지향하는 ‘나’의 눈물을 하나의 연애사건으로 인식하는 ‘조그만 시인’에게 ‘너’의 ‘달금한 서름’이라고 지적한다. ‘조그만 시인’의 시각은 달금한

서름이니 그것을 버리라고 ‘나’는 언급하는 것이다. ‘달금한’²¹⁸⁾과 ‘서름’의 조합은 조그만 시인이 가진 인식의 한계이다. ‘서름’은 달금할 수가 없다. 이는 아직 ‘서름’이라는 감정을 모르는 사람의 관념적 인식일 뿐이다. 그래서 ‘나’는 ‘달금한 서름’을 버리고 광활한 별판을 향해 달려나가는 ‘나의 가슴’을 ‘네가슴에’ 받아들이라고 말한다. 그러할 때 ‘조그만 시인’은 나의 진정을 알고 나의 가슴에 품은 참뜻을 전할 ‘굵은말’을 쓰게 될 것이다. 이 ‘굵은말’은 사랑을 잃고 가슴 짜내여 우는 울음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언어다. 이런 측면에서 박용철 시 텍스트의 표면에 존재하는 눈물은 ‘굵은말’이 내면화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불안이나 허무의 분위기가 문학주체들의 내면을 잠식해가는 시대적 감각은 파시즘적 억압의 강화와 역사적 전망의 상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시기 공통감각으로 시인들의 내면을 지배하였다. 이념의 체계 속에서 문학을 정립하려던 기존 시인들과 달리 박용철은 ‘내면’이라는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고 ‘시쓰기’에 대한 자각을 자신의 미학적 준거나 시적 출발로 삼았던 것이다.

다음의 시는 동물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였다.

내일 아침엔 반드시 새로운 태양이 동쪽에서 떠오르리라 믿고 살라는법은 어
디있노
이약이속같은 어둑나라를 위해 달을물어올 개는 누구며 해를물어 올 개는 누
군고

- 「失題」 전문

위의 시는 태양이 동쪽에서 뜬다는 일상성을 거부하고 있다. 이는 식민지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상성을 거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약이속같은 어둑나라’의 현실에서 ‘태양이 동쪽’에서 뜬다는 평범한 사실은 식민

218) 달금한 :달곰한, 맛이 알맞게 단. 달곰하다>달금하다(『전집』 1, 59면 참조).

지 현실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태양이 동쪽’에서 뜬다는 사실을 거부하는 것은 ‘어둠나라’인 현실을 거부하고 바로잡고자 하는 의지라 볼 수 있다. 여기서 ‘해’와 ‘달’ 즉 빛을 가져다 줄 존재는 ‘개’이다. ‘개’는 역동적인 이미지로 어둠을 몰아낸다는 점에서 식민지적 현실을 파괴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해’와 ‘달’이 있는 공간인 ‘어둠나라’를 밝혀 밝음의 세계를 복원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제 시대 우리 민족의 두드러진 정서는 상실의식으로 대표된다. 이때의 상실의식은 나라를 잃었다는 국권 상실감에서 오는 위기감과 절망감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식민지화가 진행되면서 우리 민족은 궁핍한 생활에 시달려 만주나 간도로 이주해 가거나 일제의 지배와 예속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향과 국토를 버리거나, 아니면 우리의 땅에서 고개 숙인 낮은 자세로 그 숨막히는 역사적 현실을 견뎌내거나 하는 길밖에 없었다. 어쨌든 모든 경우의 수도 우리 땅을 잃어버렸다는 상실감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게 했다. 이러한 고향 상실감이 갖는 당대적 의의는 국가 상실감의 구체화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²¹⁹⁾ 이러한 실향의 메시지는 식민화에 의해 훼손된 국토와 흩어지는 민족에 대한 우려와 저항의 목소리를 표출 시킨다.

박용철 역시 시대적 상황의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박용철 시에서 드러나는 상실과 비애는 우리 민족이 겪었던 역사적 현실과 매우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1930년대라는 시기를 감안해 보면 ‘상실의식’은 ‘고향상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고향’은 시인들에게 있어 삶의 터전이자 민족적 정체성을 담고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고향상실은 절박한 상황의 인식이며, 향수의 감정은 상실된 공간에 대한 복원의지로 볼 수 있다. 박용철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인 「고향」은 식민지체제 하의 우리 사

219) 최두석, 『시와 리얼리즘』, 창비, 1996, 174면.

회가 지닌 궁핍상을 간접적으로 노래한 것으로 평가된다. 여기서 ‘고향’의 함축적인 의미는 주권을 상실한 조국과 일제 참탈로 폐허가 된 이미 버려진 고향을 뜻하는 것으로, ‘험한 밭에 짓밟힌 고향’은 식민지 시대의 인식이다. 식민지 지식인의 상실감에서 비롯된 그의 정서적 테마인 우울과 비애는 바꾸어 말하면 그의 시가 간접적으로라도 식민지 현실에 반응하고 있음을 말한다. 고향상실의 비애와 그로 인한 그리움은 「비에 젖은 마음」, 「無題」, 「우리의 젖어머니 (소년의말)」 등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이러한 그의 인식은 조국 상실을 경험한 소외된 주체의 곁여를 극복하기 위해 희망과 평화의 공간을 회구하게 된다. 현실의 영역에서 회복되지 못한 문제는 탈위치화되고 재편된 세계로의 지향을 발현하게 되는 것이다²²⁰. 시인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초탈하고 싶은 소망은 당연한 귀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용철의 시에 나타나는 동경은 현실 도피적인 것이 아니라 희망찬 미래를 향한 결단이다. 식민지 질서 안에서 제국의 타자로서 존재해야만 하는 무기력한 식민지 지식인으로서의 소극적인 저항으로 이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박용철은 「빛나는 자취」, 「희망과 절망은」, 「失題」(조그만 시인이여~), 「失題」(내일 아침엔 반드시~) 등을 통해 밝은 미래에 대한 동경과 상실공간에 대한 복원의 열망을 드러내고 있다. 현실의 외상을 외면하기 위한 것이 아닌 현실을 인식하고 극복하기 위해 그의 시적 주체는 끊임없이 미래를 동경하게 된다. 이러한 동경은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려는 염원의 표출이기도 하다. 인류의 원초적 사고 가운데는 잃어버린 공간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회귀 본능이 강하게 작용한다. 특히 삶의 토대가 무너지고 신념이 붕괴되는 시대에 있어서 더욱 강하게 열망이 표출된다.

220) 로즈메리 잭슨, 서강여성문학연구회(역), 『환상성-전복의 문학』, 문학동네, 2001, 84-85면.

요컨대 박용철이 인식한 세계인식은 당시 일제에 의해 약탈당하고 상실되어진 식민지 우리 민족의 현실이었으며, 이러한 인식은 밝은 미래에 대한 동경과 상실공간에 대한 복원의 열망을 가능하게 하였다. 일제의 탄압 아래서 박용철 서정적 모티브는 사회적 맥락을 가지기도 한다. 시인이 사회적 현실과 시대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현실과 시대의 문제에 등을 돌린 채, 시적 소재를 사랑과 죽음 등 초역사적이고 구체성이 없는 대상에서 찾는 경우이며, 둘째는 좌절과 패배를 거듭하면서도 부단히 자기시대의 중대한 문제를 올바르게 설정하고 바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 현실에 어떠한 형태로든 참여하는 경우이다.²²¹⁾ 박용철의 경우 당시의 식민지 현실이라는 조선의 특수한 상황이 그의 서정성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의 순수한 서정성은 개인의 주관적 감정에 몰두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제국의 정책에 순응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그의 감정은 민족적 감정에 매개됨을 볼 수 있다. 고향을 형상화하거나 향수를 드러내는 감정 또는 상실된 것에 대한 복원의 염원이라는 근원적 감정은 식민지 조선인들의 보편적 경험 양상이었기 때문이다. 박용철은 조선의 현실에서 눈을 감은 것이 아닌 고향상실과 이에 대한 복원의지를 통해 민족의 공감성을 얻고자 했으며 이를 통해 운명공동체적인 연대의식을 추구하고자 하였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2. 절망극복과 유랑의식

박용철 시의 근간은 우울·절망·좌절 등의 센터멘탈한 정조로 휩싸여 있다. 그러나 그의 감상주의는 식민지 시대의 시인이 처한 삶의 운명적

221) 김남주 외, 『창작이란 무엇인가』, 정민미디어, 1994, 163-184면.

비극성에서 연원한다는 점에서 그만의 한계로 볼 수는 없다.²²²⁾ 박용철의 시에서는 생래적 감수성과 현실에서 겪는 절망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시들도 다수 있다. 현실에 대한 불만과 좌절은 선취공간에 대한 열망을 동반하는데 이러한 의지가 그의 시에서는 유랑의식으로 나타난다.

가끔 가끔(새삼스리)
살기가 싱거워집니다
그렇다고
엘써 죽기야 또 어찌합니까
그러기에
한 다리를 끌고 절름발이 걸음을 걷습니다
잇고 살다가도
돌쳐보면 싱거웁지요
엘써 살 값도 없지요마는
그렇다고
엘써 죽기는 또 힘들지요
우리 웃음은 속이 비이고
깃브단 말은 字典에서도 지워지오
나는 아조 비관하기로 결심을 했소

- 「단상1」 전문

현실에서 개인의 이상이 상실되고 좌절되면 그 현실에 저항하든지 아니면 좌절된 현실을 인정하고 그에 맞게 살아가는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다. 위 시에서 보여지는 ‘절름발이’는 소망이 좌절된 현실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표현한 것이다. ‘절름발이’ 형상화는 절름발이식으로 현실을 파악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응하여 절름발이로 현실을 살아가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살기가 싱거워진’ 현실에서 해방될 수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육체적 자아와 대비하여 시적주체는 정신적 자아를 통해 ‘죽음’에 대해서도

222) 신진숙, 앞의 논문, 196면.

표출한다. 그저 웃으며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생을 포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현실에서 살아가야 하는 모습은 ‘절름발이 걸음’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시적 자아는 속이 빈 웃음을 웃으면서 ‘아주 비관하기로 결심’을 하며 냉소적인 면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주체의 냉정한 단언은 세계관의 표현이 아니라 반어적인 문제제기인 셈이다. 희망이 좌절된 현실에서 절름발이로 걸어가는 형상은 식민지 현실에 대한 탄식인 것이다.

내마음은 어디로 가야 옳으리까
쉬임없이 굶은비는 내려오고
지나간날 괴로움의 쓰린기억
내게 어둔 구름되어 덮히는데.

바라지 않으리라든 새론 희망
생각지 않으리라든 그대 생각
번개같이 어둠을 깨친다마는
그대는 땅을길없이 높은데 계시오니

아 — 내마음은 어디로 가야 옳으리까

- 「어디로」 전문

위의 시에서는 나라를 빼앗긴 지식인의 고뇌와 비애의 정서를 발견할 수 있다. ‘내마음은 어디로 가야 옳으리까’라는 물음에서 시작하여 탄식과 절망이 강조된 ‘아 — 내마음은 어디로 가야 옳으리까’라는 물음으로 끝을 맺고 있다. 이는 시적 자아의 문제와 결부되는데 ‘내마음은 어디로 가야 옳으리까’라고 시적 자아는 본질적 자아에게 묻고 있다. 하지만 ‘쉬임없이 굶은비’와 ‘괴로움의 쓰린기억’으로 인해 ‘어둔 구름되어 덮’혀 있는 현실상황에서 보면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내 마음은 어디로 가야 옳으리까’

는 처음부터 대답이 차단된 질문이었던 것으로 안타까움을 강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쉬임없이 곳은비는 내리오’는 절박한 상황에서 떠나고 싶어 하는 열망과 ‘새론 희망’에 대한 머무르고 싶어 하는 열망 사이의 갈등은 자아에 대한 물음의 형태를 역설적으로 나타나게 한다. 떠나고 싶어 하는 자아의 열망이 강할수록 떠날 수 없는 현실의 자각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떠남을 예정하는 마음의 결단, 확고한 목적지 내지는 목적의식 자체가 결여된 막연한 여행 심리²²³⁾의 노출이라 해석할 수도 있으나 ‘지나간날 괴로움의 쓰린기억’과 ‘새론 희망’의 갈등 속에서 시적화자의 방황하는 심정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식민지 지식인의 갈등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어둠을 깨치기에 희망은 너무 먼 곳에 있어 다시 삶의 허무와 절망의 상태를 노래하는 것이다. 그의 절망은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절망이다.

걸으라 걸으라 무거운 짐 곤한 다리로
 걸으라 걸으라 가도 갈길 없는 너의 길을
 걸으라 걸으라 불꺼진 솟을 가슴에 안아
 새벽 돌아옴 없는 밤을 걸으라 걸으라 걸으라

- 「밤」 일부

위 시의 화자는 ‘걸으라 걸으라’고 스스로에게 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새벽 돌아옴 없는’ 어두운 식민지 현실에서 ‘불꺼진 솟을 가슴에 안’은 차가운 재를 품고 절규하는 목소리다. 이미 희망이 사라진 상황이지만 멈출 수 없는 처절한 목소리인 것이다.

다음의 작품은 ‘가슴에 머리에 넘치는 울음’으로 박용철의 감상성을 여실히 드러낸 작품이다.

223) 한영옥, 「용아 박용철의 시연구」, 『연구논문집』 22집, 성신여자대학교, 1985, 6면.

1

포름한 하늘에 햇빛이 우렷하고
은빛 비늘구름이 반짝 반득이며
「나아가갯구나 나아가갯구나」
가자니 아 — 어디를 가잔 말이나

솔나무 밑에 발을 멈추다 —
잔디밭에 가 꺾 주저앉다 —
아 — 그러지 않아 탁가운 가슴을
왜 이리 건드려 쭈석거려내느냐

가을날 우는 듯한 바이올린소리 따라
마련없는 나그네길로 나를 불러내느냐
무엇 찾아야 할 줄도 모르는 길로
발사슴하는 욕망에 가슴 조이며 걸으랴느냐

2

저 넓은 들에 누른 기운이 움직이고
저기 사과밭에 붉은빛이 얽혀지는데
병풍같이 돌린 산이 의젓이 맞는 듯하고
흰칠한 큰길이 끝없이 펼쳐 있는데

아 — 이 하늘 아래 이 공기 속에
열매 익히는 저 햇빛 가득 담은 술잔을
고마이 받들어 앞뒤없이 취하든 못해도
눈감은 만족에 바다같이 가라앉지도 못하고

가슴에 머리에 넘치는 울음을
눈썹 하나 까딱이지 못하는 사람은

- 「센터멘탈」 전문

이 시에서 ‘바다’는 눈에 보이거나 껴안은 육체가 아니라 인간의 역동적

공격에 대응하는 역동적 환경인 것²²⁴⁾으로 ‘눈감은 만족’의 상태로 갈등하고 방황하는 자아의 처지와 대비되는 모습을 보인다. 위의 작품 역시 떠남을 갈구하지만 안착할 장소가 마련되지 않은 불확실한 상황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자구나 나아가자구나’에서의 떠남의 다짐은 ‘아 — 어디를 가잔 말이냐’로 되물음되며 식민지 시기 지식인의 절망을 표출하고 있다. ‘나아가자구나 나아가자구나’의 반복은 간절함의 표현이다. 주변은 ‘포름한 하늘에 햇빛이 우렷하고/은빛 비늘구름이 반짝 반짝’하지만 화자는 이러한 현실에서 어디로 가야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다. 그러한 절망감은 ‘술나무 밑에 발을 멈추다/ 잔디밭에 가 퍽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지독한 절망이다.

박용철의 시에는 절망과 상실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밤 기차에 그대를 보내고」는 이별은 앞둔 ‘나’의 슬픈 심회를 그린 앞 부분과 ‘그대’의 강인한 의지²²⁵⁾를 따르려는 화자의 굳은 결심을 보이는 뒷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온전한 어둡가운데 사라져 버리는
 한낱 촛불이여.
 이 눈보라속에 그대보내고 돌아서 오는
 나의 가슴이여.
 쓰린듯 부인듯 한데 뿌리는 눈은
 드러 안겨서
 발마다 미끄러지기 쉬운 거름은
 자취 남겨서.
 머지도 않은앞이 그저 아득 하여라.
 밖을 내여다보려고, 무척 애쓰는
 그대도 설으렸다.

224) 가스통 바슐라르, 이가림(역), 『물과 꿈』, 문예출판사, 1998, 225면.

225) 문혜원, 앞의 논문, 207면.

유리창 검은밖에 제일굴만 비쳐 눈물은
그렇그렇 하렸다.
내방에 들면 구석구석이 숨겨진 그눈은
내게 웃으렸다.
목소리 들리는듯 성그리는듯 내살은
부뎃기렸다.
가는그대 보내는나 그저 아득 하여라.

열어붙은 바다에 쇠빙선같이 어둠을
헤쳐 나가는 너.
약한정 후리쳐 떼고 다만 밝음을
찾어 가는 그대.
부서진다 놀래랴 두줄기 궤도를
타고 달리는 너.
죽음이 무서우랴 힘있게 사는길을
바로 닦는 그대.
실어가는 너 실려가는 그대 그저 아득 하여라.

이제 아득한 겨울이면 머지못할 봄날을
나는 바라보자.
봄날같이 웃으며 달려들 그의 기차를
나는 기다리자.
「잇는다」 말인들 어찌참아! 이대로 웃기를
나는 배화보자.
하다가는 험한길 헤쳐가는 그의 거름을
본 받어도보자.
마침내는 그를 따르는 사람이라도 되어 보리라.

- 「밤기차에 그대를 보내고」 전문

김영랑에 의해 극찬을 받은 이 작품은 시인의 감정이 자기 연소에 의해
시적 형상화의 과정을 거쳐 승화된 형태로 표현된 역작²²⁶⁾에 속하는 것으로

226) 배경열, 「박용철 시의 세계」, 『문학춘추』 42호, 2003, 104면.

로 대상의 상실로 인한 ‘비애의 자기 침식’ 을 보이고 있다. 위의 시는 시적 소재의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의미내용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넋두리 이상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²²⁷⁾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넋두리는 오히려 강한 의지를 불러일으킨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단념할 수 없는 강한 미련이 생기는 것이다.

1연에서 ‘그대’를 보내는 ‘나’의 마음이 캄캄한 암흑 속에 있음에 비해 3연의 ‘떠나가는 그대’는 ‘약한 정 떼고 밝음을 향해 가는’사람으로 표현되어 있다. ‘나’에 관련된 표현들이 ‘춡불’, ‘쓰린 듯 비인 듯한데’, ‘발마다 미끄러지기 쉬운’ 등 섬세한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음에 반해, ‘그대’와 관련된 표현들은 ‘쇄빙선’, ‘두 줄기 궤도를 타고 달리는’, ‘죽음이 무서우랴 힘있게 사는 길을 바로 닫는’ 등 기차의 이미지와 연결된 거침없고 속도감 있는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기차’는 인생과 사회의 새로운 국면과 결부되어 굳은 의지의 새로운 표상적 의미를 획득하는 역할²²⁸⁾을 하고 있다. ‘기차’라는 소재는 시인의 단순한 선택이 아니다. 박용철이 일본 유학을 통해 얻은 신지식과 근대 문명에 대한 체험은 식민지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을 마련해주고, 이를 시어에 적극 차용함으로써 강인한 ‘그대’의 모습 표현하게 하였다. “시각은 자연스럽게 생리적인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것이기도 하다”²²⁹⁾는 점을 염두에 두면, 기차를 통해 구체화된 시각성은 사회·역사적인 인식과 관련이 있다. 이미지 자체는 사실성과는 무관하게 존재하지만 사실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현실을

227) 「밤 기차에 그대를 보내고」는 이별에 대해 시인이 충분히 극복과 초월의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바라보자’, ‘기다리자’, ‘배화보자’, ‘본받아보자’, ‘되어보리라’로 끝맺는 6개의 구절은 시적 형상화 이전의 소재 나열에 그쳐 오히려 넋두리 이상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한영옥, 앞의 논문, 4면).

228) 김행숙, 「기차의 탄생과 진화」, 『창조와 폐허를 가로지르다』, 소망출판, 2005, 71면.

229) 주은우, 『시각과 현대성』, 한나래, 2003, 19-22면 참조.

인식하는 주체를 강하게 구속하고 지배하기 때문이다. 4연에서 ‘나’는 강인한 기차같이 어둠을 밝히고 봄을 가져올 ‘그대’의 의지를 배우고자 한다. 즉 자신의 나약한 감상 대신 굳은 의지를 부러워하고 닮고자 하는 것이다.²³⁰⁾

박용철의 의지가 가장 잘 형상화된 것이 「싸늘한 이마」이다.

큰 어둠가운데 홀로 밝은 불 허
고 앉어있으면 모도 빼앗기듯
한 외로움
한포기 산꽃이라도 있으면 얼마
나한 위로이라

모도 빼앗기듯 눈덮개 고이 나
리면 환한 원뿔은 새파란불 붙어
있는 린광(燐光)
깜안 꺾도리하나라도 있으면 얼마
나한 기쁨이라

파란불에 몸을 사루면 싸늘한 이
마 맑게 트이여 기여가는 신경의
간지러움
기리는 별이라도 맘에있다면 얼마
나한 질김이라

- 「싸늘한이마」 전문

위의 시에서 화자는 어둠 속에 홀로 푹푹이 앉아 어둠을 견디어내려는 강한 의지를 보인다. 그러한 의지의 상황은 점층적으로 고조되며 각 2행의 단어들은 ‘위로’에서 ‘기쁨’으로, ‘기쁨’에서 ‘즐거움’으로 바뀐다. 이는 화자의 의지에 대한 점층적인 표현이다. 그러므로 이 시는 어둠 속에서

230) 문혜원, 앞의 논문, 209면.

외로움을 느끼는 주체의 센터멘털한 감성과 외로움을 견디어내려는 의지 사이의 갈등과 해결을 보여주는 시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곳곳한 의지와 정신적인 고고함에 대한 동경과 지향을 보여주는 시인 것이다. 또한 본래 수리에 능한 수재로 소문이 나 있던 박용철의 천재의식도 얼마간 작용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스스로 내놓으신 명편 가작을 그는 매양 사양하고 부족히 여기던가 하면 남이 시 한 편을 붙들고 그렇게 살살이 고비고비 뒤집고 파들어가서 완전히 알아버리고 맛보아버린 그의 천재형의 머릿박”²³¹⁾은 20년대의 낭만적인 센터멘탈리즘과 거리를 뒀으로써 감정표출에 의한 주관성의 함몰에 대해 견제하는 것이다.

시인은 진실로 우리 가운데서 자란 한 포기 나무다. 청명한 하늘과 적당한 온도 아래서 무성한 나무로 자라나고 장림(長霖)과 담천(曇天) 아래서는 험상궂은 버섯으로 자라날 수 있는 기이(奇異)한 식물이다. 그는 지질학자도 아니요 기상대원일수도 없으나 그는 가장 강렬한 생명의 의지를 빨아올리고 받아들이고 한다²³²⁾

박용철은 자신을 ‘가장 강렬한 생명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나무와 같은 존재로 본다. 박용철의 탈출의지는 수직적 상상력과 결합함으로써²³³⁾ 나무의 수직적 이미지를 통해 구원을 얻고자 하며 이 나무를 통해 보여지는 상승공간은 그의 진정한 자아를 되찾는 열린공간·성취공간을 의미한다.²³⁴⁾ 일반적으로 나무는 깊은 생명의 징표이며, 무의식 속에서 연출되는 생명의 완전성이다.²³⁵⁾ 절망 극복을 위한 그의 의지는 민족의식의 발현이라 할 수 있다.

231) 김영랑, 「후기」, 『전집』 1, 746-747면.

232) 「시적 변용에 대해서」, 『전집』 2, 7-8면.

233) 김경복, 앞의 논문, 335면.

234) 김경복, 위의 논문, 336-337면.

235) 엘리아데, 심재중(역), 『영원회귀의 신화』, 이학사, 2003, 189면.

한국의 낭만주의 시의 대부분은 우선 파토스적 감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파토스는 불운·고뇌·걱정 등의 어원적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현실적 삶의 조건에서 진정한 가치를 찾지 못하고 갈등하고 방황하는 자아에게 나타나는 걱정의 마음 상태이다.²³⁶⁾ 따라서 자아는 현실적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대립하면서 언제나 비현실의 세계 속에서 당위적 가치를 구하거나 해소하고자 한다. 낭만주의 시가 대체로 현실세계와 대립 갈등하면서 비현실의 이상세계를 동경한다는 점에서, 파토스적 감정은 이들 시의 정서적 구조를 이룬다. 다음의 시는 ‘파토스’의 어조가 두드러진다.

내 심장은 이제 몹쓸 냄새를 뿜으며
가마 속에서 끓어오르는 콜타르 모양입니다.

가죽이 들리는 시냇물소리도 귀찮고
개고리우름은 건딜 수 없이 내 부아를 건드립니다.
내가 고개 숙이고 들어가지 아니치 못할
저 숨막히는 초가집웅을 생각하고
나는 열 번이나 돌쳐서 나무칼을 휘둘러서는
애픈 풀잎사귀를 수없이 못지릅니다.

비웃어주는 별들도 숨어버리고
반 녀는 달이 구름에 싸여 희미합니다.
힘없는 조으름이 원나라를 다스리고
배고픔이 날랜 손톱으로 판장을 긁을 뿐입니다.

지리한 장마 속에 귀한 감정은 탕이가 피고
요행히 어리석음에 등말을 타고 돌아다녀서
난장이가 채주란답시 뒤궁굴으면
당나귀의 무리는 입을 헤버리고 웃습니다.
이러한 공격을 내가 어떻게 더 계속하겠습니까.

236) 에밀 슈타이거, 이유영·오현일(역), 『시학의 근본이념』, 삼중당, 1978, 210-212면.

이제 내 감정은 짓부비어 팽개친
종이 부스러기 꼴이 되어 버려져 있습니다.

- 「小惡魔」 전문

‘내심장’ ‘내감정’으로 표현된 내면세계의 갈등과 고뇌, 자기모멸감 등이 적절한 이미지의 구사를 통하여 드러나 있는 작품이다. 1연에서 ‘내심장’이란 몹쓸 냄새를 풍기며 가마 속에서 부글거리고 끓어오르는 콜타르처럼 부패하고 답답하며 석연치 않은 상태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무서운 권력 앞에서도 나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시적 주체는 무기력한 ‘나무칼을 휘둘러서’ 연약한 ‘풀잎사귀’를 무찌를 수 있을 뿐이다. 자연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는 태도를 통해 주체의 유약하고 소시민적인 성향을 드러낸다. 식민지 현실을 살아가는 지식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였다. 그저 시적 주체는 ‘짓부비어 팽개친/ 종이 부스러기 꼴이 되어 버려져’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내가 어떻게 더 계속하겠습니까.’ 이는 시적 주체의 행위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의미이기도 하다. 여기서 시적 주체는 ‘숨막히는 초가지붕’ 즉, ‘국권 상실의 현실’을 생각하면 ‘심장은’ ‘가마 속에서 끓어오르는 콜타르 모양’으로 끓어올라 시인의 감정을 부패시켜서 ‘몹쓸 냄새를 뿜’고 있다. 그만큼 그에게 현실은 절망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가 이처럼 의지적이고 지사적인 태도를 선했던 것은 그 자신의 기질적인 감상성을 극복하는 의도적인 지향²³⁷⁾이라 보여지며 실제로 그가 현실에서 오는 절망감을 견디어 내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지점이다.

파토스는 걱정이기 때문에 절제를 떠나 방황하는 마음상태다. 걱정과 적대감정으로서 파토스는 또한 무엇인가를 지향하는 갈망이다. 그래서 파토스는 무엇인가를 욕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욕구 자체는 실제로 있음

237) 문혜원, 앞의 논문, 210면.

과 있어야 함의 분리에 대한 반응이다. 있어야 함의 당위적 세계가 아직 지금 여기에 없으므로²³⁸⁾ 좌절, 비애, 걱정의 상태가 된다. 위의 시에서 표현되는 고백적인 언술은 걱정의 상황을 산문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반복은 현실의 절망으로부터 극복하고자 하는 굳은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박용철의 경우 일제에 맞서 직접 저항하거나 투쟁하는 행동성을 보여준 사실은 없지만 그의 시에서 저항성은 겉으로 드러나는 저항이 아닌 내적인 면에서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박용철의 시에서는 식민지 상황의 비극적 현실을 벗어나고자 하는 현실성과 서정성의 조화를 볼 수 있다.

그의 상실공간의 극복은 끝없이 밖을 동경하는 상상력의 발동이 되었고 이 밖에 이르기 위하여 그는 아주 치절한 탈출의지를 보인다.²³⁹⁾ 그러한 증거로 시적 소재와 공간의 확대를 들 수 있다. 그의 시적 공간의 확대는 유기체적 상상력과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배경의 확대는 이데올로기를 벗어난 현실대응이라는 점과 현실의 극복을 위한 서정성의 회복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함께 지니고 있다.

한 작가의 공간을 연구한다는 것은 그 공간에 투사된 그 작가의 특유한 존재의식을 연구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그 작가의 존재의식을 가능케 한 그 시대적 공간을 연구하는 것이 된다. 다시 말해 공간에 대한 문학적 인식은 자아와 세계 또는 존재와 세계라는 상호 관련 속에서 시대정신과 세계관이라는 지평으로 확대되어 이해될 수 있다는 이점²⁴⁰⁾을 갖는 것이며 공간이란 인간이 자기와 타자를 인지하고 세계인식을 체계화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기본 개념이다.

박용철은 식민지 상황의 현실을 이데올로기 없이 접근하기 위해 그 시적

238) 김준오, 『시론』, 삼지원, 2014, 51면.

239) 김경복, 앞의 논문, 333-334면.

240) 김은자, 『현대시의 공간과 구조』, 문학과 비평사, 1988, 18면.

배경을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지구까지 넓혀가는 의지적 주체의 모습을 보여준다. 시대의 한계 상황 속에서 명민한 지식인라면 느껴보았을 탈출예의 욕구는 ‘나약한 자기 호소에서부터 강박관념을 띤 강렬한 목소리’²⁴¹⁾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러한 절망적 상황에 대한 시각을 시간으로 보면 ‘현재’에 해당하고, 공간으로 살펴보면 시인이 위치한 ‘현실’이 되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준다.

나는 이제 절망의 흙 속에
파묻혀 었드린 한 개의 씨
아 — 한없는 어둠……
과 고요……
그러나 그러나
천 천 히 천 천 히
나는 고개를 든다
천 천 히 천 천 히
그러나 힘있게 우으로
나는 머리를 밀어올린다……
나는 숨을 쉬었다 지구를 나는 뚫었다 —
나는 팔을 뻗는다 —
나는 다리를 뻗는다 —
아 — 나는 이제 아침해 비천 언덕 우에
두 팔 쳐들어 온몸 훨씬 펴고 서 있는
오 — 서 있는 사람이로라

- 「절망에서」 전문

위의 시는 개인적·시대적 현실의 암담함을 노래하고 있다. 나는 현재 ‘절망의 흙속에’ ‘파묻혀 었드린 한 개의 씨’와 같은 존재이다. 하지만 절망의 현실에서 좌절하지 않고 ‘천 천 히 천 천 히’ ‘나는 밀어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결국 절망의 시간을 견디어 내는 한 개의 씨는 힘 있게 머

241) 김경복, 앞의 논문, 334면.

리를 밀어 올리고 숨을 쉬며 단순히 절망의 흑만을 뚫고 나온 것이 아닌 지구를 뚫었다. 이러한 시적 배경의 확대는 식민지라는 상황을 겪고 있는 당시의 피식민자의 보편적인 모습을 전달하는 효과를 가진다. 현재의 상황은 어둠과 고요의 절망적 상황이지만 그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천천히 천천히 그러나 힘있게 우으로’ 솟구치는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의 유기체적 상상력은 이러한 의지를 극대화시키고 있다. 절망 속에서 머리를 올리고 팔과 다리를 뻗쳐서 아침 해 비친 언덕 위에 우뚝 서고 싶은 것이다. ‘아 한없는 어둠…과 고요…’라는 형태를 통해 절망의 상황 속에 침잠하여 이후의 비상을 꾀하려는 심리의 추이²⁴²⁾는 식민지 현실에서 방황하는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이며 저항의지의 표현이다. 식민지 지배체제 아래에 있는 피지배 문학의 특징은 필연적으로 전복을 지향한다²⁴³⁾. 피지배 문학은 민중의 마음을 글로 표현하고 새로운 현실을 대변해야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²⁴⁴⁾

아래의 시는 젊은이의 심경을 ‘떠나가는 배’에다 비유²⁴⁵⁾한 것으로 가혹한 시대적 상황으로부터 떠나가려는 이의 견고한 의지와 흔들리는 불안감을 동시에 반영²⁴⁶⁾ 하고 있다. 식민지화를 통해 살 수 없는 공간으로 변해버린 국토로부터 내쫓기듯 물리게 된 우리 민족은 국토를 버리고 가지만 그러한 국토에 대해 ‘못 잊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나 두 야 간다
나의 이 젊은 나이를

242) 한영옥, 앞의 논문, 14면.

243) 빌 애쉬크로프트, 이석호(역), 『포스트콜로니얼문학이론』, 민음사, 1996, 58면.

244) 프란츠 파농, 남경태(역), 『대지의 저주받은 사람들』, 그린비, 2004, 252면.

245) 김병택, 「박용철 시론 -서구 시론의 수용을 중심으로-」, 『영주어문』 2집, 영주어문학회, 2000, 108면.

246) 유성호, 앞의 논문, 229면.

눈물로야 보낼거나
나 두 야 가련다.

아늑한 이항군들 손쉽게야 버릴거나
안개같이 물어린 눈에도 비취나니
골짜기마다 발에 익은 피스부리모양
주름살도 눈에 익은 아, 사랑하든 사람들

버리고 가는 이도 못 잊는 마음
쫓겨가는 마음인들 무어 다를거나
돌아다보는 구름에는 바람이 희살짓는다
앞대일 어덕인들 마련이나 있을거나

나 두 야 가련다
나의 이 젊은 나이를
눈물로야 보낼거나
나 두 야 간다.

- 「떠나가는 배」 전문

“나 두야 간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시적 주체는 어디론가 떠날 수 밖에 없는 존재이다. “눈에 익은 아 -사랑하든 사람들”로 지칭되는 친밀한 존재들을 떠나야만 하는 식민지 시대의 서러운 삶이 처연하게 표현되고 있다. 여기서 강조되어야 할 것은 시적 주체의 위치다. 즉, 시적 화자이기도 한 주체는 어디론가 떠나가는 존재이다. 그는 하나의 장소에 대한 추억과 기억들을 모두 “버리고” 가야하는 존재로서, 정착과 영토성을 추구하는 식민지 주체가 아닌 이동과 탈영토성을 지닐 수밖에 없는 타자의 위치를 상징한다.²⁴⁷⁾ 즉 ‘간’이라는 동사가 지닌 공간의 이동 속에서 시인은 식민지적 장소와 그 속에서 살아가는 흘러다니는 타자적 삶의 의미를 형상화하고 있다. 이는 박용철의 시가 지닌 완성도와는 별도로 식민지 현실의

247) 신진숙, 앞의 논문, 197면.

내면적 풍경을 드러내었다는 점에서 하나의 의미를 부여해야 할 부분이다. 탈영토화는 말 그대로 하나의 구조나 체계를 벗어나는 것이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탈영토화를 상대적 탈영토화와 적대적 탈영토화로 나눈다. 상대적 탈영토화는 물리적 심리적 사회적 탈영토화로써 대지 위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영토의 역사적 관계, 재난과 지질학적 관계, 그것의 일부를 이루는 우주와 성좌의 천문학적 관계를 가진다. 그리고 절대적 탈영토화는 사유-본성, 사유-존재라는 내재장을 가진다.²⁴⁸⁾

이 작품에서는 현실에서의 이동을 나타내는 유랑의 표상으로 ‘배’를 내세움으로써 ‘나두야 가련다. 이 젊은 나이를 눈물로야 보낼거냐’라고 토해낸다. ‘배’는 암울한 조선의 현실을 인식한 식민지인으로서 공포와 두려움을 체험하는 공간이기도 했다. 떠나려는 공간은 ‘안락한’ 항구인데 그 항구의 공간은 ‘발에 익은’ 친밀한 공간이며 ‘눈에 익은’ 익숙한 공간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다. 아늑한 공간을 굳이 버리고 떠나야 하는 것은 그 공간이 극한적인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항구로 표상되는 일제 강점기 현실에 더 이상 안주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민자와 탈항자를 싣고 가는 것이 ‘배’였으며, 조선인은 ‘앞대일 언덕인들’ 마련하지도 못한 채 국토로부터 내쫓기듯 내몰렸다.

이 작품의 창작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것을 지을 때의 경로로 보면 상징의 본격을 간 것 같네. 꿈같이 드러누운데 어쩐지 눈물 흘리며 떠나가는 배가 보이네, 그저 떠나가는 배일 뿐이야. 그래 그대로 풀어놓은 것이 그 시가 되었네. 잘잘못은 두고라도 성립의 과정은 상징의 본격이야” 이 글은 박용철이 영랑에게 보낸 편지의 구절이다. 『시문학』 창간호에 실렸던 「떠나가는 배」에 대한 찬사를 하자 그의 심정을 적어 보낸 것이다. 즉 조국의 현실에 대한 식민지 지식인의 비애를 상징적으로

248) 이택광, 『들뢰즈의 극장에서 그것을 보다』, 갈무리, 2002, 33면.

표현하고 있다. 덩어리에 의해 시를 써야 한다는 그의 생각과 직면하는 부분이다.²⁴⁹⁾ 문학의 본질을 천착하면서 현실을 도외시 하지 않고 살아가는 시인의 안목이 있음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1연의 “나 두 야 가련다”에서는 떠나려는 의지가 강하고 단호하게 드러난다. 이는 일제 강점기 현실 공간이 화자가 머무를 수 없는 곳임을 분명하게 강조해서 말하고 있다. 여기서 박용철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일제 강점기 현실에 대한 불만과 삶의 갈등이다. 일제 강점기 현실은 안주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며 지향하는 세계도 아니라는 것으로 탈속공간과 선취적 공간 제시를 통해 에둘러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²⁵⁰⁾ 이러한 그의 주제 의식은 유랑의식²⁵¹⁾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대일 언덕’이 없음으로 인해 자아는 방황을 하거나 결국은 유랑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동기를 형성한다. 1930년대 우리 민족은 일제의 탄압에 견디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해외로 유랑의 길을 떠나야 했다. 이와 같은 민족의 비극적 현실을 노래한 것이 「떠나가는 배」이다. ‘유랑’의 이미지는 다음 시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나는 이제 가네
눈물 한줄도 아니 흘리고 떠나가려네
어머니 치마로 눈을 가리지 마세요
너희들도 다 잘 있거라

- 「시집가는 시악시의 말」 일부

위의 시는 『시문학』 2호에 발표된 것으로 「시집가는 시악시의 말」

249) 김윤식은 「떠나가는 배」가 어느 정도 성공하게 된 것은 박용철이 ‘속에 덩어리’를 가졌기 때문으로 보았다(김윤식, 앞의 책, 1978, 129면).

250) 윤동재, 「박용철 시에 나타난 한시의 영향」, 『국제어문』 27집, 국제어문학회, 2003, 194면.

251) 윤동재, 위의 논문, 194면.

중에서 서두 부분에 해당한다. 여기서는 여성적 화자를 택하여 떠남의 상황을 전형적으로 표현하며 그 안에서 파생되는 심리적 갈등을 표현하고 있다. ‘눈물 한줄도 아니 흘리고 떠나가려네’ 하는 시의 서두는 지속적으로 어두운 현실에서 ‘떠나가는’ 이의 유랑의식을 형상화하고 있으며 비장함마저 느끼게 한다. 그의 시에서 ‘유랑의식’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설만들 이대로 가기야 하라마는
이대로 간단들 못 간다 하라마는

바람도 없이 고이 떨어지는 꽃잎같이
파란 하늘에 사라져버리는 구름꼭같이

조그만 열로 지금 숫더리는 피가 멈추고
가는 숨길이 여기서 끝맺는다면 —
아 — 얇은 빛 들어오는 영창 아래서
차마 흐르지 못하는 눈물이 온 가슴에 젖어나리네

- 「이대로 가라마는」 전문

위 시의 화자는 “설만들 이대로 가기야 하라마는/ 이대로 간단들 못 간다 하라마는” 하면서 떠나가는 혹은 떠나보내는 상황 속에 놓여 있다. ‘설마’의 집념은 강력한 의지일 수도 있지만 결국 ‘조그만 열로 지금 숫더리는 피가 멈추고/ 가는 숨길이 여기서 끝맺는다면’에 와서는 깊은 비애로 변주되어 나타난다. 시적 자아는 ‘떠나감’의 상황에 저항하는 듯 하면서도 동시에 그 상황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인다. 결국 “차마 흐르지 못하는 눈물이 온 가슴에 젖어나리네”라면서 그 떠나감의 필연성과 속절없음을 감상적으로 수용하게 된다. 이러한 감상과 체념 혹은 운명적 수용의 자세는 그의 시에서 ‘(눈)물’ 혹은 ‘비’의 이미지로 나타난다.²⁵²⁾ ‘바람도 없이 고이

252) 유성호, 앞의 논문, 231면.

떨어지는 꽃잎같이/ 파란 하늘에 사라져버리는 구름꼭같이' 살아가는 연약한 자아 즉, 식민지 현실에서 살아가는 화자는 '설마'하는 생각을 하게 하지만 결국 '얇은 빛 들어오는 영창 아래서/ 차마 흐르지 못하는 눈물이 온 가슴에 젖어나리'는 상황일 뿐이다. 이러한 점은 투병생활 속에서 문학을 해야 했던 박용철의 개인사적 고통에서 기인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식민지 상황에 대한 인식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박용철 시의 근간은 우울·절망·좌절 등의 센터멘탈한 정조로 뭉쳐져 있다. 「단상1」, 「어디로」, 「밤」, 「센터멘탈」 등에서 보이는 절망은 '절름발이'로 형상화되며 '긋은 비'와 '쓰린기억'으로 인해 '어둔 구름'으로 덮혀 있는 현실로 나타난다. 화자는 이러한 현실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다. 그러한 절망감은 '솔나무 밑에 발을 멈추다/ 잔디밭에 가 퍽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지독한 절망으로 표현된다. 하지만 박용철의 시에는 절망과 상실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박용철의 시에서는 생래적 감수성과 현실에서 겪는 절망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시들도 다수 있다. 「밤 기차에 그대를 보내고」, 「짜늘한 이마」에 형상화된 의지는 민족의식의 발현이라 할 수 있다. 「밤 기차에 그대를 보내고」에 차용된 '기차'라는 소재는 시인의 단순한 언어 취향은 아니다. 박용철이 일본 유학을 통해 얻은 신지식과 근대 문명에 대한 체험은 식민지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을 마련해 주고, 이를 시어에 적극 차용함으로써 강인한 '그대' 모습을 상징하게 하였다. 「짜늘한 이마」를 통해서도 어두운 현실에 대한 갈등과 이를 견디어 내려는 끈끈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현실에 대한 불만과 좌절은 선취공간에 대한 열망을 동반하는데 이러한 의지가 그의 시에서는 유랑의식으로 나타난다. 「떠나가는 배」, 「이대로 가라마는」, 「시집가는 시악시의 말」 등에서 드러난 유랑의식은 단순한 도피가 아닌 식민지 상황에 대한 인

식으로써 민족공동체를 상상하며 인식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떠나가는 배」는 조국의 현실에 대한 식민지 지식인의 비애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덩어리’에 의해 시를 써야 한다는 그의 생각과 직면하는 부분이다. 그의 마음 깊숙이 있던 덩어리는 문학의 본질을 천착하면서 현실을 도외시하지 않고 살아가는 시인의 민족의식이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박용철의 경우 일제에 맞서 직접 저항하거나 투쟁하는 행동성을 보여준 사실은 없지만 그의 시에서 저항성은 겉으로 드러나는 저항이 아닌 내적인 면에서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박용철의 시에서는 식민지 상황의 비극적 현실을 벗어나고자 하는 현실성과 서정성의 조화를 볼 수 있다. 개인적 차원의 절망을 넘어선 사회·역사성 내지 시대성에 대한 자각을 바탕으로 한 의지가 담겨있는 까닭이다.

3. 민족어로서의 방언과 고어 사용

1930년대 조선인들에게 규정된 언어는 문화어로서의 일본어였으며, 금지된 것은 민족어로서의 조선어였다. 이러한 이중언어 상황에서 박용철의 시어에 대한 자각은 조선어를 통한 것이었다. 박용철이 어떠한 방법으로 ‘민족의 언어를 완성’하고자 했는지는 그의 시에 나타난 방언²⁵³⁾과 고어를

253) 김현은 시문학과를 대표하는 김영랑·박용철·김현구 세 시인을 ‘강진시파’라고 처음 별칭하고 있다(김현, 「찬란한 슬픔의 봄」, 『책 읽기의 괴로움』, 민음사, 1984, 53면); 이에 대해 김선태도 다음의 이유를 들어 동의하고 있다. 정지용·신석정·이하운 등의 시문학과파의 다른 동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셋만을 묶어 굳이 ‘강진시파’라고 별칭한 이유는 첫째, 이들의 고향이 전라도(엄격히 말하면 전라남도)라는 점이다. 물론 강진이 고향인 김영랑·김현구와는 달리 박용철의 고향은 송정리(지금의 광주광역시 광산구)이긴 하지만, 지역적으로 그리 멀리 않은 거리에 있다는 점이다. 둘째, 『시문학』 창간을 주도한 박용철이 사전에 김영랑을 만나기 위해 수시로 강진을 오갔었다는 점, 셋째, 시

통해 알 수 있다.

다음의 시에서는 방언의 활용과 고어의 활용을 두루 볼 수 있다.²⁵⁴⁾

나도 새벽을 사랑하는데 하기가 새벽보다 해으름을 더 사랑하지만 그에게
는 밝은 빛의 앞장임으로써이고 내게는 해으름이 해으름으로써이다.
내 사랑 가는 곳은 해으름 모든 그림자 서로 지워지는 지음
포란빛 다홍빛 놀미야한 자개빛 하늘에 피었다 사라지는 빛갈
귓속에 거문고줄을 살짝 울리고는 그만 사라지는 소리
바람 없는 푸른 거울물결 자마리 날개 스치고 지나가는 듯한 가는 웃음 그
애의 주정체 입을 맞추려한다고 그애가 귀썸을 죽였지 사람은 싸룩 사랑스러
아차 저애들 둘의 소리가 나는구나.

<중략>

오라 동모야 한데로와 한기빨아래 가만이 모디여
가만 가만이 모래성밑 스며들어가 주추를 문흐자

<중략>

나는

다음지 못한 몸맵시 입에서 나는 김치내음새
검고 푸르른 손으로 눈으로 참아 잡지못하야
불고푸른 전기불아래 탄스와 서양술을 일삼아
다만 아름다움의 선과 비준을 따라헤매어 이곳에 자짚는
페트로니우스
아름다움만이 '비듬이발목'이야 붉히든마든 봄비만이 명주고름을 호북히 적시나
니

문학과 동인들 중 이들 셋만이 창간 당시 무명이었으며 끝까지 시문학과로서만 충실했다는 점, 넷째로는 무엇보다 박용철이 순수시운동의 이론적 기반을 마련했다면 김영랑과 김현구가 이를 작품으로서 충실하게 구현시켰다는 점에서 충분히 그 이해가 가능하다(김선태, 『김현구 시 연구』, 국학자료원, 1997, 32면). 하지만 실제 이들의 시적 경향은 차이가 있기에 본고에서는 박용철의 시어에서 활용된 방언을 전남방언으로 확장하여 전개하였다.

254) 정확한 어휘의 분석을 위하여 선문대학교 중한번역문헌연구소, 『필사본 고어 대사전』 1-7, (학고방, 2010), 이기갑, 『전남방언사전』, (태학사, 1998), 김재홍, 『한국현대시 시어사전』,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7) 참고하였다. 그리고 『전남방언사전』에서 제시되지 않은 방언은 『전집』 1의 주석을 참고하였다.

<중략>

너히는 산을 넘는 개아미 무리
산넘어 또 산이요 구름은 겹겹이란디
한번 가신 님은 다시 올 길이 없다
무심한 두견아 봄사랑의 가슴을 울리지 말아
피를 모조리 뿌린다한들 꽃마다 진달래꽃 되어 피 묻히랴
한시절 청춘을 앞뒤 돌보지 말고 온이 질기자

- 「三部曲(夏의部)」 일부

위 작품은 박용철의 시 중에서 유일하게 시극의 형식을 빌려 쓴 장편 시이다. 위에서 밑줄 그은 시어들은 박용철의 시어들이 지닌 특성을 잘 보여준다. 여기서 보이는 ‘해으름’, ‘포란빛’, ‘놀미야한’, ‘자마리’, ‘겹겹이란디’, ‘온이’, ‘질기자’ ‘한데’ 등은 전남방언의 향토성을 극명히 보여주는 어휘다. ‘해거름’, ‘파란빛’, ‘노르스름한’, ‘잠자리’, ‘겹겹이라는데’ ‘한 곳’ 등을 방언을 통해 표현함은 개인적 체험을 감각적으로 구현하는 시적 언어로서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겹겹이라는데’의 무미건조함에 비해 전남방언의 종결어미 ‘-디’를 사용한 ‘겹겹이란디’는 전체적으로 친근하고 향토적인 느낌을 준다. ‘호북히’는 ‘호복이’ 또는 ‘호북허니’의 형태를 ‘호북히’의 형태로 나타낸 것이고, ‘내음새’는 전남방언 ‘내금새’의 형태를 변형한 것이다. 이는 박용철이 자기 나름의 시어를 갈고 닦는데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며 더 나아가 방언을 통한 시의 공감력을 확보한 부분이다. 또한 ‘개아미’는 다른 지역의 방언으로도 쓰이고 있지만 고어의 형태와 겹치는 부분이다. ‘문호자’는 ‘무너뜨리자’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고어에서 쓰이는 ‘흐느-’ (헐다, 무너뜨리다)의 형태에서 음운의 생략과 추가를 통한 시어 조탁의 형태로 보인다. 제국의 중심 언어와 문학에 의해 억압 당하는 언어와 문학은 식민주체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토착적인 것들을 찾게 한다. 그런 의미에서 박용철은 민족어로서의 방

언을 통해 제국과의 차별성을 확장하면서 우리의 고유성을 고수하고자 하였다. 박용철이 예술적 측면, 실감적 측면, 시대인식적 측면에서 언어의 자각을 보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시에 나타난 방언과 고어의 활용은 당시의 시대상황에 비추어 볼 때 민족어를 빛냄으로써 민족정서를 환기시키려는 의도로 평가될 수 있다. 민족수립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것은 조선말로 쓰인 글의 확산이라는 인식 아래 민족정신과 민족정서의 고유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표출한 것이다. 이것은 문학 중에서도 언어의 정수를 다루는 시가 결국 그 민족의 언어를 완성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선언을 실천한 부분이며, 왜 시를 살로 새기고 피로 쓰듯 써야 한다고 주장했는지가 더욱 선명²⁵⁵⁾해지는 지점이다. 언어는 ‘내면’과 ‘외면’을, ‘자연’과 ‘인위’를 매개함으로써 비로소 언어다울 수 있는 것이며 그래서 또한 정치(精緻)하며 또한 강력한 사회적 요소²⁵⁶⁾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구체적으로 박용철의 시를 ‘방언의 활용’, ‘고어의 활용’으로 세분하여 살펴보겠다.

가. 방언의 활용

문학의 여러 장르 가운데서 언어의 활용이 가장 넓고 날카로운 분야가 ‘시’라고 할 수 있다. 시에서는 언어의 활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표준어 외에 방언과 외래어를 사용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 시인이 말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 가운데서도 시적 활용의 폭이 가장 넓은 언어는 방언이라고 할 수 있다.²⁵⁷⁾ 방언의 사전적 정의는 “원래는 질적이던 한 언어

255) 이승원, 앞의 논문, 213면.

256) 이연숙, 앞의 책, 305면.

257) 고희진, 「방언의 시적수용과 미학적 기능」, 『동방학지』 125집, 연세대학

가 지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분화되어 생겨난 분화체로서, 특정 지역 또는 사회 계층에서만 사용하는 음성, 음운, 문법, 어휘의 체계를 가리킨다.”²⁵⁸⁾ 방언은 음성, 음운, 문법, 어휘의 체계 등 언어와 문장의 모든 구성 요소에 걸쳐 새로운 언어 체계를 지니므로, 언어의 기의와 기표의 폭을 획기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다. 그래서 시인들은 종종 표준어의 한정된 낱말을 넘어 방언의 새롭고 다양한 언어의 군집에서 시어를 채집하여 자신이 추구하는 시 세계를 완성시키곤 한다.

박용철이 시어로서의 언어에 대한 자각, 그리고 민족어의 시적 가능성을 자각하는 일은 방언을 통해서였다. 박용철의 시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언은 표준어로서는 도달할 수 없는 독특한 뉘앙스와 구체적 의미를 생동감 있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박용철이 자기 나름의 시어를 갈고 닦는데 게을리 하지 않았음은 다음의 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우선 그의 시에 방언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누이야 그래 네 심장이 물마른 데 뛰는 고기처럼 두근거리느냐
 마른 잎사귀같이 그냥 바사지려 하느냐
 기름마른 빈 물레 돌아가듯 돌아간단 말이나
 아- 애처로워라 그럼서도 너는 걱정이
 오빠의 얼굴빛이 피끼없이 누르다는 것
 가슴에 피는 동백꽃잎이 배알어나오는 것
 아- 우리의 손이 서로 닿으면 하얀 초같이 싸늘하고나

메마른 황토의 이 나라에 움추린 이 집웅 아래 태어난 우리라
 무슨 기쁨 어느 질겅을 하늘 끝으로 실려보내고 살아왔지만
 금비단 장막을 바라고 몸소 머리 쫓는 우리다

빈사의 백조는 날개나 찬란스럽다더라

교 국학연구원, 2004, 289-290면.
 258) 방언연구회, 『방언학사전』, 태학사, 2001, 119면.

변변치 못한 우리의 날개는 젖은 병아리같이 애처롭구나

우리는 아무부지 어머니 다 잃어버린 다만 두 마리 병든 새아기
이 무슨 바람이길래 가지가 이리 오들오들 떨려진다냐

- 「두 마리의 새」 일부

위의 시는 감성적이고 애처로운 분위기에 많이 기울어져 있다. ‘바사지려’는 ‘부서지려’의 뜻으로 전남방언 ‘바수다’를 기본형으로 한다. ‘그림서도’는 전남방언 ‘그람서도’의 변형된 형태로 ‘그리면서도의 뜻을 가지고 있다. ‘질검’은 ‘즐거움’의 뜻을 가진 것으로 전남방언 ‘질겁다’의 활용을 보여주고 있다. ‘-길래’는 전남방언에서 자주 쓰이는 연결어미다. 중앙어 ‘-기에’에 해당하는 어미로 연결어미에 ‘-길래’²⁵⁹⁾가 있다. ‘무슨 바람이길래 가지가 이리 오들오들 떨려진다냐’라고 표현함으로써 현실의 불안감을 실감나게 드러내고 있다. ‘떨려진다냐’는 ‘-대’, ‘-다니’의 뜻을 가진 전남방언 종결어미의 활용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의 시에서도 방언의 형태를 볼 수 있다.

-달을잠근 맑은새암 같은 눈이 — 「仙女의 노래」 일부

-술뉘사이 지저귀는 미영새를 — 「仙女의 노래」 일부

-깜안 바위날 아래 푸른쏘 — 「술개와 푸른 쏘」 일부

-가면 아조가나, 잔사정 작별을 내 이리하게! — 「시집가는 시악시의 말」 일부

‘새암(샘, 우물)’, ‘미영새(박새)’, ‘낭(벼랑)’ 등의 시어들은 전남 특유의 냐새가 물썩 풍기는 형태다. ‘아조’의 원래 음상은 ‘아주’가 된다. 그러나 ‘아주’가 보통의 경우보다 훨씬 넓고 많은, 그 범위에 있어서 확대되는 느

259) 전남방언의 특징 중에서 모음 체계는 ‘ㅈ’와 ‘ㅊ’가 중화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때(時)’와 ‘때(群)’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낌을 주는 반면 ‘아조’의 음상이 주는 느낌은 좁고 세밀하게 응축되는 느낌을 갖도록 만들어 준다. ‘ㅌ’에서 ‘ㄱ’로 양성 모음화 된 ‘아조’는 이어지는 ‘가나’를 수식함으로서 화자의 심리 상태를 더욱 깊고 어둡게 침잠하도록 느끼게 만든다. 그러나 모음이 ‘ㅌ’에서 ‘ㄱ’로 변형되는 것은 전남의 전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박용철의 출생이 전남 송정리임을 감안할 때 그는 시어를 조탁하는 방법에 있어 전남의 방언이 자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시어는 고도의 언어 조탁에 의해 선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의식, 또는 비의도적으로 시어를 구사하지는 않는다. 박용철은 점차 말해지지 않고 사라져가는, 또는 규범화되지 못하고 주변언어로 밀려나는 방언을 통해 민족의 정서를 환기시키는 작업을 한다.

이외에도 방언을 사용한 시어의 용례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앞대일 어덕(언덕)인들 마련이나 있을거나 — 「떠나가는 배」 일부
- 기리는(그리는, 그리워하는)별이라도 맘에 있다면 — 「짜늘한 이마」 일부
- 시집가는 시악시(새색시, 색시)의 말 — 「시집가는 시악시의 말」 일부
- 붉은단기 울(올타리)넘으로 번득이는 자랑스러움 — 「시집가는 시악시의 말」 일부
- 갈피없는 걱정 쓸데없는 양탈을 이냥(이대로),삼키고 — 「시집가는 시악시의 말」 일부
- 저기 구름은 어느발로(어느 쪽으로) 넘는다오 — 「공은날개 편」 일부
- 자네 말이 날 다려(더러) — 「공은날개 편」 일부
- 나는 억센 팔장에서 몸을 뺄히려 부둥거리는 애기(아기, 아이)와같이 — 「무제」 일부
- 희망과 절망의 두 등치기 (언덕),사이를 — 「희망과 절망은」 일부
- 살기가 승거워집니다(싱거워집니다) — 「단상 1」 일부
- 나는 다만 깊이 백인(박힌)사랑의 총명함으로 알아볼 수 있느니 — 「사랑하든 말」 일부
- 나는 너를 사랑는다. 내눈에는 네가 아죽(아직) — 「나는 네것이 아니라」 일부
- 부엉이 운다 불이 까물친다(까무러친다) — 「부엉이 운다」 일부

- 그릇친 習字紙는 고대 부벼(비며) — 「망각」 일부
- 내사(나야)안단다. 보았드란다 — 「로만스」 일부
- 온 누리를 덮어싼제(덮어싼 때) — 「새로워진 행복」 일부
- 조금만 반디불은 여름밤버레(벌레)라도 — 「빛나는 자취」 일부
- 다숨고(따뜻하고) 밝은 해스발 이같이 내려흐르느니 — 「빛나는 자취」 일부
- 용감스런 암꿩같이 후두둑 날아오르는 젊은 아오(아우)야 — 「三部曲(夏の部)」 일부
- 수많은 입살(입술)이 욕념의 입살이 미칠 듯 빠든손이여 — 「三部曲(夏の部)」 일부
- 나의 애끼고(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것을 가지신 그이들 — 「나는 그를 불사르노라」 일부
- 중한 보배구슬을 손소(손수)산산 깨트리네 — 「나는 그를 불사르노라」 일부
- 이같이 말라붙고 웅그라져(웅크러져), — 「다시」 일부
- 이약이(이야기)속같은 어둑나라를 위해 — 「失題1」 (내일 아침엔~) 일부
- 저녁때 개고리(개구리), 울더니 마춤내(마침내) 밤을 타서 비가 나리네 — 「어느 밤」 일부
- 공중분해로 혈갈려 떨어지는 비행기는 얼마나 호수울까(재미있을까) — 「사티르」 일부

문학을 하는 사람이 방언을 통해 그 지방의 독특한 향토성은 물론 거기에 담긴 어감이나 뉘앙스를 개발하고 소박한 정서를 발굴하여 형상화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향토성은 그 성격상 전통성에 집착되어 있으며 그 지방 나름의 특수성과 다양성으로 민족문화를 형성하는 구조적 특성이 되고 있다. 또한 그 특수성이 풍부할수록 즉, 특정의 문화권과 언어권에서 역사적·사회적으로 형성·변화·발전되어가는 공동체적 삶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에 활용된 방언은 시인의 개인적 의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독자로 하여금 공동의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한다.

박용철이 사용한 방언 표현에는 기존의 방언을 또 한 번 변형한 형태가

많이 보이는데, 이러한 언어의 변용은 우리말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시인의 창조성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박용철은 1904년 6월 21일 전남 광산구 송정면 소촌리에서 태어났다. 태어나 12세때 광주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3세에 학업생활을 위해 서울로 올라간다. 1919년(16세)에는 모친의 병환과 3.1만세 운동의 발발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고 낙향한다. 이후 17세 때에는 일본 동경으로 건너간다. 23세에는 고향에 머물면서 문학수업을 하게 된다. 이후 서울에서의 생활이 잠깐 있기는 하지만 26세 무렵에는 고향에 머물며 시작 및 번역에 전념한다. 일반적으로 특정 지역의 토박이들은 그 지역 방언만을 쓰는 것인 상례이지만 그 지역 출신의 문인이라고 해서 그가 쓰고 있는 모든 언어·음운·문법·어휘면에서까지 그 방언만을 고스란히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일상생활의 언어가 아닌 문자화된 문학작품 특히 고도의 언어조탁을 필요로 하는 시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박용철의 경우도 전남방언과 중앙어를 적절히 섞어쓰면서 시작활동을 하였다. 박용철은 시어에 대한 자각을 늘 염두에 두고 있었다. 다음의 시에서는 방언의 형태를 재창조한 시어를 볼 수 있다.

비가 조록조록 세염없이 내려와서...
 쉬일 줄도 모르고 일도 없이 내려와서...
 나무를 집웅을 고만이 세워놓고 축여준다...
 올라가는 기차소리도 가죽이 들리나니...
 비에 흙추리 젖은 기차모양은 애처롭겠지...
 내 마음에서도 심상치 않은 놈이 흔들려 나온다...

비가 조록조록 세염없이 흘러나려서...
 나는 비에 흙출 젖은 닭같이 네게로 달려가련다...
 물 건너는 한줄기 배암같이 곧장 기여가련다...
 감고 붉은 제비는 매끄름이 날러가는 것을...
 나의 마음은 반득이는 앞사귀보다 더 흔들리어...

밝은 불 혀놓은 그대의 방을 무연이 싸고돈단다...
 나는 누를 향해 쓰길래 이런 하소를 하고 있단가...
 이러한 날엔 어느 강물 큰애기 하나 빠져도 자취도 아니 남을라...
 전이나 뒤이나 빗방울이 물낫을 튀길 뿐이지...
 누가 물어보낸 물 아니고 설기야 무어 설으리마는...
 저기 가는 나그네는 누구이길래 발자취에 물이 된다니...
 마음 있는 듯 없는 듯 공연한 비는 조록조록 한결같이 나리네...

- 「비」 전문

‘흙추리젓은’과 ‘흙출젓은’은 ‘흙뻘 젓은’의 뜻을 가진 것으로 전남방언으로 ‘흙초라이’가 있다. ‘매끄름이’의 전남방언은 ‘메끔허다’로 미끈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가죽이’의 전남방언은 ‘가직다’로 ‘가깝게’의 뜻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변형은 향토적 정서를 생생하게 표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방언의 어감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시인의 노력을 보여준다. 위의 시에서는 ‘반득이는’, ‘고만이’는 ‘변득이는’, ‘가만히’보다 가볍고 작은 느낌을 준다. 일반적으로 음성 모음이 어둡고 크며 무거운 느낌을 주는 것에 비해서, 양성 모음은 그와 반대로 밝고 날카로우며 작고 가벼운 느낌을 주는데 박용철은 시어의 음상을 문맥의 특성을 고려하여 변형시켜 삽입함으로써 기존의 언어가 가지는 의미에 비해 압축적이고 감각적으로 만들고 있다. 전남방언을 변용한 활용은 다음의 시에서도 볼 수 있다.

쉬일줄 모르고 찬비작고 나리는 밤 — 「비에 젖은 마음」 일부

‘작고’는 전남방언에 ‘자꼬’가 있다. ‘자꼬’는 ‘자꾸’가 양성모음화 된 것이다. 아래의 시들을 통해서도 방언의 형태를 재창조하여 사용한 시어를 볼 수 있다.

모도 빼앗기듯 눈덧개 고이 나
리면 환한 원뿔은 새파란불 붙어
있는 린광(燐光)
깜안 꿇도리 하나라도 있으면 얼마
나한 기쁨이라

- 「싸늘한 이마」 일부

- 탐스러운 한송우리 모란꽃은 — 「선녀의 노래」 일부

- 난장이가 제주란답시 뒤궁굴으면 — 「小惡魔」 일부

- 헬스한 저 달빛을 옴시런이 비취과져 — 「무덤과 달」 일부

- 두손 안고 얼굴 가만히 보랏으며 — 「로-만스」 일부

‘눈덧개(눈꺼풀)’, ‘꿇도리(귀뚜라미)’, ‘송우리(송이)’, ‘뒤궁굴으면(나뿔굴면)’, ‘옴시런이(고스란히)’, ‘보랏으며는(바라보며)’의 형태는 방언의 형태를 변형하여 재창조한 시어들이다. 전남방언에서는 일반적으로 ‘눈뚜껍’, ‘귀또리’, ‘송아리’, ‘궁구르다, 궁굴다’, ‘옴쓰라니’, ‘보라코, 보랏다’의 형태로 많이 쓰인다. 이러한 언어들은 외국어로 번역해서는 결코 본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전할 수 없는 형태들이다. “모든 창조적인 시인은 자기 하나를 위해서 또 그 한 때를 위해서 언어를 개조하고 있는 것이다.”²⁶⁰⁾를 도달해야 할 목표로 삼았던 박용철에게 있어 시어는 단순한 단어의 의미를 넘어서 시의 분위기와 의미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언어의 연금술의 재료였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그는 민족어로서의 ‘조선어’를 발굴하고자 하였다. 이는 식민지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침식받고 있는 조선어의 위상을 위한 의식적 반발이었으며 조선문학의 독자적 가능성을 위한 노력이었다. 전남방언의 형태가 변용된 시어는 다음의 시에서도 나타

260) 「기교주의 설의 허망」, 『전집』 2, 21면.

난다.

- 골잭이마다 발에 익은 피스부리모양 — 「떠나가는 배」 일부
- 검고 붉은 골작이 주름에 — 「나는 그를 불사르노라」 일부
- 그대도 설으렸다 — 「밤기차에 그대를 보내고」 일부
- 개고리우름은 견딜수 없이 내 부아를 건드립니다 — 「小惡魔」 일부
- 희망과 절망의 두 등처기 사이를 시계추같이 건네질하는 마음씨야 — 「희망과 절망은」 일부
- 일하지 않고사는 새가 되려 부러웁소 — 「斷想 2」 일부
- 발사슴하는 욕망에 가슴죄이며 걸으라느냐 — 「센티멘탈」 일부

골잭이(골짜기), 골작이 (골짜기)의 전남방언은 ‘골짝, 골차기, 골창’ 등의 형태가 있다. 설으렸다.(서러우렸다)의 전남방언은 ‘서릅다, 서름, 서름, 서러서, 서러와서’ 등이 있다. ‘부아’는 전남방언 ‘부애’의 변형으로 ‘여기서는 분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건네질’은 ‘건너서 왔다갔다하는’으로 풀이 되는데 전남방언의 명사형으로 ‘건네’(건너)가 있고 동사형으로 ‘건네다’가 있다. ‘건네질’은 ‘건네’에 접사 ‘-질’를 합성하여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되려’는 전남의 여러 지역에서 ‘되레, 됩데, 됩테로’의 형태로 쓰이며 ‘도리어’의 뜻을 가진다. ‘발사슴’은 ‘발싸심’으로 볼 때²⁶¹⁾ 방언 ‘발싸심’은 ‘팔과 다리를 움직이며 몸을 비틀어서 부스대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상과 같이 박용철은 시에서 방언의 활용을 통해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박용철은 점차 말해지지 않고 사라져가는, 또는 규범화되지 못하고 주변언어로 밀려나는 방언을 통해 민족의 정서를 환기시키는 작업을 하였다. ‘바사지려’, ‘질검’, ‘떨려진다냐’, ‘미영새’, ‘어덕’, ‘등처기’, ‘호수울까’ 등은 전남방언의 향토성을 극명히 보여주는 어휘들이다. 이외에도 박용철은 방언의 형태를 변형한 ‘호북히’, ‘내음새’, ‘문흐자’ 등의 형태를 통

261) 김재홍, 앞의 책, 465면.

해 시어 조탁의 노력을 보여주었다. 시에서 방언의 사용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방언을 시인의 무의식적인 고향 말투의 표출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방언의 적극적인 활용이 시대적 맥락과 함께 고향의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하여, 혹은 식민지시대 민중의 간고한 삶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는 해석의 중요성은 인정해야 한다.²⁶²⁾ 1930년대의 식민지 상황에서 문학에 활용된 방언에 대해 ‘맥락적인’²⁶³⁾ 물음을 가지고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 1930년대라는 문화 정치주의적 지평 속에서 방언 의식을 해석, 평가해본다면 방언의 모어적 성격과 민족 공동체 주의적 언어 현상을 동질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방언을 모어의 확장된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조선이 처한 식민지라는 특수한 시대적 상황은 ‘모국어=조선어=민족어=방언’이라는 도식을 성립하게 하는 충분조건²⁶⁴⁾ 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용철에 있어 시어는 단순한 단어의 의미를 넘어서 시의 분위기와 의미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재료였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그는 민족어로서의 ‘조선어’를 발굴하고자 하였으며 민족 공동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예술성의 측면에서든 실감의 측면에서든 지방어로서의 개성의 측면에서든 제국의 언어가 가지는 현실적 우위의 논리에 대항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이는 식민지 상황에서 조선어의 위상을 위한 의식적 반발이었으며, 조선문학의 독자적 가능성을 위한 노력이었다.

나. 고어의 활용

262) 여태천, 「1930년대 조선어의 위상과 현대시의 형성과정」, 『한국시학연구』 27호, 한국시학회, 2010, 134면.

263) 윌리엄스는 문화적 생산을 사회 문화적 맥락과의 연관 속에서 해명하고자 하였음에 주목하였다(앨런 스윈지우드, 박형진·김민규(역), 『문화사회학 이론을 향하여』, 한울 아카데미, 2004, 148면).

264) 여태천, 앞의 논문, 2010, 130면.

박용철의 시어에서 방언 못지않게 고어의 사용 비중도 높게 나타난다. 시에 나타난 고어의 용례는 다음과 같다.

- 하날가에 새 기쁨을 그리어보랴 — 「고향」 일부
- 공은 날개를 너는 헐되이 나래질 치나니 — 「공은날개 편」 일부
- 우리우슴은 속이 뵈이고 깃브단말은 字典에서도 지워지요 — 「斷想1」 일부

고어의 사용은 김영랑뿐만 아니라 그 당시 시인들의 시에서도 종종 보이는 현상이지만 박용철의 경우 고어를 즐겨 사용하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시어의 활용에 있어 ‘기쁨’ 이나 ‘날개’, ‘하늘’의 형태도 나타나지만 구태여 ‘깃브단’, ‘나래’, ‘하날’ 등의 시어 형태를 취했다는 건 이러한 사실을 증명한다.

- 안개같이 물어린 눈에도 비최나니 (비추나니) — 「떠나가는 배」 일부
- 그대의 빛나는 자최(자취)를 따르게 하옵소서 — 「빛나는 자최」 일부
- 세염도 없이 원하로(하루) 나리는비에 — 「비나리는 날」 일부

‘비최나니’, ‘자최’, ‘하로’ 등은 고어를 사용하면서 음성모음을 양성모음화 시킴으로써 맑고 부드러운 음조의 효과를 내고 있다.

- 내몸을 찾을 수 있고 개굴형에도 빠지지 않았다. — 「三部曲(夏의部)」 일부
- 산기슭 외딴집의 그물어가는 촛불로 — 「밤」 일부
- 구름밑에서 따우에까지 — 「부엉이 운다」 일부

‘개굴형’은 ‘개구렁’의 뜻으로 풀이되며 ‘굴형’은 움푹하게 팬 땅, 구덩이, 구렁 등의 고어형태다. ‘그물어가는’은 ‘꺼져가는 저물어가는’의 고어로 ‘그

플-'의 형태는 '이 ㄷ리 다 그므러 가되 <현풍곽씨 29 언상이 오나노>'을 보면 그 쓰임을 알 수 있다. '따'는 다소 강한 소리가 나는 종성 'ㅇ'을 탈락시킴으로써 '땅위에'대신 훨씬 부드러우면서도 예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고어의 형태 '따우에'로 쓰이고 있다. 이외에도 고어가 사용된 시어는 다음과 같다.

- 죽음이 무서우랴 힘있게 사는길을 바로 닷는 (달리는)그대 — 「밤기차에 그대를 보내고」 일부
- 발마다 미끄러지기 쉬운 거름(걸음)은 — 「밤기차에 그대를 보내고」 일부
- 봉선화야 너는 거년(작년)까지 내손가락에 물드리였지 — 「시집가는 시약시의 말」 일부
- 큰 어둠가운데 홀로 밝은 불 혀고 (켜고) — 「싸늘한 이마」 일부
- 일가 흠어지고 집흐너진(무너진)데 저녁 가마귀(까마귀) 가을풀에 울고 — 「고향」 일부
- 서로의 굳은 뜻을 남게 앗긴(빼앗긴) — 「고향」 일부
- 쉬임없이 굶은비 나려오고(내려오고) — 「어디로」 일부
- 나의 마음은 반득이는 앞사귀보다 더 한들리어 (흔들리어) — 「비」 일부
- 곤웃음 지어보냄 너를 괴려함(사랑하려함)이라고 — 「선녀의 노래」 일부
- 가마속에서 끓어오르는 (끓어오르는) 콜타르 모양입니다. — 「小惡魔」 일부
- 아 나는 이제 아침(아침)해 비친 언덕우에 — 「절망에서」 일부
- 하이얀 그림자 아즈랑이(아지랑이)같이 — 「무덤과 달」 일부
- 나는 한갓(단지, 오직) 두려워 한단다 — 「失題2」 (당신은 웃으십니다~) 일부
- 그릇친 習字紙는 고대(지금, 막) 부며 — 「망각」 일부
- 고마이(고맙게) 받들어 앞뒤없이 취하든못해도 — 「센티멘탈」 일부
- 검푸른 밤이 거룩한(거룩한) 기운으로 — 「새로워진 행복」 일부
- 기쁘가슴 물결같이 움즐기(움직이고) — 「새로워진 행복」 일부
- 저 나라는 어둡고 칩지(춡지) 앓으릿가 — 「그 전날밤」 일부

위에 사용된 고어는 본래의 형태를 그대로 활용한 시어다. 박용철은 고어의 형태 그대로 시어를 사용하기도 했지만 고어의 음운을 변이시켜 사용

하기도 했다.

돌아다보는 구름에는 바람이 희살짓는다 — 「떠나가는 배」 일부

‘희살짓는다’는 ‘장난치며 흠어놓는다’의 뜻으로 볼 수 있는데 ‘희살’은 고어 ‘혜살’의 변형된 형태로 볼 수 있다. ‘혜살’은 ‘훼방’의 뜻을 가진다.

이상과 같이 박용철의 시어에서 방언 못지않게 고어의 사용 비중도 높게 나타난다. 고어의 사용은 김영랑뿐만 아니라 그 당시 시인들의 시에서도 종종 보이는 현상이지만 박용철의 경우 고어를 즐겨 사용하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 할 수 있다. 박용철은 고어의 형태 그대로 시어를 사용하기도 했지만 고어의 음운을 변이시켜 사용하기도 했다. 그는 민족어를 통해 전통적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점은 단순한 시적 취향이 아닌 민족언어의 완성이라는 시문학과 문학적 이념과도 합치되는 부분이기도 하며 민족의 정신을 고양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보여진다.

시에서 방언과 고어를 활용한 측면에서 박용철의 시대인식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어를 구할 수 있는 것이 민족의 문학이라고 인식한 박용철은 식민지 현실에서 조선어 글쓰기는 어떠한 것이며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를 고민하였다. ‘제국의 언어’가 ‘국어’로서 지배력이 점차 강화되고 조선어와 조선어문학의 상황이 열악해지는 국면에서 당대의 식민지 작가가 고민해야 했던 지점은 여러 갈래로 갈라질 수 있다. 어떻게 해서든지 미래에 올 자국어 공동체를 상상하며 ‘제국의 문학’에 대응하여 조선어로 문학하기를 계속 견지하는 것도 하나의 길이 된다. 당시 대부분의 작가에게 이러한 점은 문제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으나 최고의 글을 쓰고 싶었던 박용철은 특히나 필연적인 문제가 되었을 것이다. 이중언어 상황에서 박용철의 시어에 대한 자각은 조선어를 통한 것이었다. 그가 시에 활용한 방

언, 고어는 민족어를 빛냄으로써 민족정서를 환기시키려는 의도로 평가될 수 있다. 민족수립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것은 조선말로 쓰인 글의 확산이라는 인식 아래 민족정신과 민족정서의 고유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표출한 것이다. 방언과 고어는 가장 조선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언어로서, 일본의 제국주의가 투과하기 어려운 어떤 물질성을 그 안에 가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민족어를 선택했을 때 그 인식은 민족문학의 형성이라는 방향성을 갖게 된다. 민족어에 대한 애착의 궁극적 지향점은 민족에 대한 애착이었으며, 방언과 고어는 조선인의 내면과 조선적 삶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언어였기 때문이다.

V. 민족어의 완성과 민족의식의 고양

이상에서 박용철의 시에 나타난 시대인식을 살펴보았다. 그의 순수시론은 서정시론의 본질에 다가서기 위한 논의에서 출발한 것이었으며 그의 시론에 나타난 순수성과 서정성의 본바탕은 민족어에 대한 애정에 있었다. 땅이 생존권과 주권, 그리고 민족혼의 실제적인 표상이라면 말과 글은 실제적이면서도 정신적인 생존권과 주권, 그리고 민족혼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²⁶⁵⁾ 여기에 박용철이 전개한 문학적 훈련이 지니는 참된 민족사적, 문학사적 의미가 드러난다. 이러한 개괄을 토대로 박용철의 시에 나타난 시대인식의 측면을 재구성해보면 다음과 같다.

앞에 설명되었듯이 30년대의 식민지 현실은 일제 제국주의의 수탈체제가 노골적으로 강화된다는 데 그 핵심이 있다. 일제는 세계경제의 불황으로 인한 곤경을 이겨내기 위해 군국주의로의 이행이 불가피하게 되자 식민지 조선을 침략전쟁의 병참기지로 만들려 했던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조선 민족의 민족해방운동을 철저히 탄압·말살하고 수탈체제를 더욱 확고히 할 필요가 있었고, 그 결과 20년대의 소위 문화정치라는 형식적·부분적 자유 조차 박탈하고 파쇼적 억압을 강화해 나갔던 것이다.

그렇다보니 당시의 상실감을 드러낸 많은 작품들에서 수탈의 현장인 핍진한 고향을 강조하고, 고향으로부터 내몰림의 참담한 심정을 강조함으로써, 정착하지 못하고 유랑하는 조선인의 삶을 시적 형상화한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특히 고향의 파탄은 물론, 피식민인으로서 겪는 심리적 균형의 와해는 복구되기 힘든 극도의 상실감을 표출한다. 이러한 참담한 상태를

265) 김재홍, 앞의 책, 117면.

당시의 시인들은 작품으로 시화해낼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민족주의 진영 이거나 계급주의 진영이거나 순수시를 지향하는 계파이거나 민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시대적 당위감에 기인한 것이다. 1930년대의 뚜렷한 시적 징후로 고향상실감을 들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특수성 속에서 가능한 것이다.

박용철의 시에는 당대 유랑민의 발생이라는 사회현상과 고향 상실감이라는 시대감정이 근저에 깔려 있다. 국가를 상실한 상황에서 잃어버린 것과 부재하는 것에 대한 복원의식을 갖게 되는데 고향 상실감은 그것이 발현된 대표적인 양상이라 할 수 있다. 고향은 그곳을 잃어버린 실향민에게 다시 돌아가야 할 원점회귀의 상징적 공간이며, 삶의 근원적 뿌리이기 때문이다. 박용철의 시에 나타나는 ‘고향’이 낭만적일 수만 없는 이유는 이러한 배경에서 기인한다. 낭만적 차원의 이상향의 감정을 넘어서, 국가 상실감이라는 민족의식의 근원적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하이데거는 홀더린(Holderlin)의 시를 읽으면서 고향의 본질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귀향이란 고향에 도착하는 것이나 동향인들과 해후하는 것’이나 귀향자가 고향에 도착하는 것만 가지고서는 아직 고향의 본질에 이르지 못했다고 지적²⁶⁶⁾했다. 이런 점에서 박용철의 시에 나타난 고향은 하이데거가 지적한 대로 지리적 고향을 뛰어 넘어, 정신적·이념적 고향을 지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고향’을 시적으로 형상화하는 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첫째는 ‘고향’의 무수한 사건들과 풍물들을 소재적 차원으로 대상화하는 것이며, 둘째는 대상화된 ‘고향’을 넘어서, 사회적·역사적 현실이 투영된 의식체로 구조화하는 것이다. 박용철의 ‘고향’은 그 자체로 소재이면서 동시에 초월적인 이념체를 형성하고 있다. 박용철의 시에서 나타나는 ‘상실의식’은 이러한 보편성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의 시가 비록 감상적

266) 하이데거, 소광희(역), 『시와 철학』, 박영사, 1974, 17-19면.

이고 주관적이지만, 구체적으로 ‘고향’을 복원하고 그것을 이념적 고향으로 승화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박용철의 시에서는 생래적 감수성과 현실에서 겪는 절망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시들도 다수 있다. 박용철은 자신에 대해 ‘가장 강렬한 생명에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나무와 같은 존재로 본다. 박용철의 의지는 수직적 상상력과 결합함으로써 나무의 수직적 이미지를 통해 구원을 얻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나무는 깊은 생명의 징표이며, 무의식 속에서 연출되는 생명의 완전성이다. 절망을 극복하기 위한 그의 의지는 민족의식의 발현이라 할 수 있다. 현실에 대한 불만과 좌절은 선취공간에 대한 열망을 동반하는데 이러한 의지가 그의 시에서는 유랑의식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시에서 나타난 유랑의식은 개인적 도피에서 벗어난 것이 아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²⁶⁷⁾으로 민족 공동체²⁶⁸⁾를 상상하며 민족의 현실을 인식한 지점이다. 우리의 문학사 안에서 ‘유랑의식’이 드러나는 작품을 가려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인간의 원형의식 안에 침잠되어 있는 유랑의식은 인간의 오랜 무의식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30년대 시인들의 시편에서 그려지는 ‘유랑의식’은 단순히 인류의 원형적 내면의식을 반영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당대의 시대적 상황과 연관되어 민족 현실이 처해 있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유이민의 비극을 담고 있다. 박용철의 시도 다분히 신화적이고 원형적인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는 것들이지만 당대 민족의 현실에 비추어 읽어낼 때, ‘유이민의 비극은 한국근대사, 그리고 거기에 구체적인 뿌리를 둔 한국현대사의 집약적 표현’²⁶⁹⁾이라는 점을 되새길 필

267) 윤동재, 앞의 논문, 195면.

268) 민족은 공동체로 상상된다. 왜냐하면 각 민족에 보편화되어 있을지 모르는 실질적인 불평등과 수탈에도 불구하고 민족은 언제나 심오한 수평적 동료의식으로 상상되기 때문이다(베네딕트 앤더슨, 윤희숙(역), 『상상의 공동체』, 나남출판, 2002, 27면).

269) 윤영천, 『한국의 유민시』, 실천문학사, 1987, 10-11면.

요가 있다.

박용철은 작품에서 보이는 낭만주의의 주관성으로 인해 시대현실에 침묵하는 문학자로 평가되어 왔다. 하지만 박용철의 낭만주의 문학관은 현실에 접근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박용철은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1930년대의 문학적 현실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회적·역사적 상황 또한 바르게 인식하고 있었다. 식민지 지식인은 피식민인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식민체제와 피식민인 집단 사이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다. 또한 그는 식민 지배와 피지배 사이의 중간이라는 긴장의 영역에 속해 있다.²⁷⁰⁾ 이러한 중간 지점이야말로 식민주의의 이데올로기가 피식민인에게 작용하기 시작하는 지점임과 동시에 또한 이데올로기적 저항이 가능한 지점이기도 하다. 물론 식민지 지식인은 체제 순응적이고 따라서 특권을 향유하는 존재가 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 식민지 지식인은 식민지 체제에 저항하는 자세를 갖추으로써 비판적 지식인이 될 수도 있다. 문제는 지배/피지배 관계를 인식할 때, 그리고 식민 체제하의 모순을 의식하면서 그 모순을 드러내는 것을 자신의 사명이라고 인식할 때 피식민 집단에 대한 조작과 주입에 맞설 수 있다. 이러한 식민 저항은 숨겨진 식민 이데올로기의 작용을 드러내 밝히는 데서 시작하며 이러한 작업은 식민 지배 체제와 피식민 집단 사이의 중간에 위치한 식민지 지식인의 몫이다.²⁷¹⁾

지식인은 보편적 가치의 구현을 추구하는 담론행위자로서 ‘주어진 지적 체계’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시대를 해석하고 그를 바탕으로 자신의 위치를 정립하는 존재인 것이다. 지식인은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존재이며 그

270) 제국은 식민지와 제국을 연결시키기 위한 ‘소비적 고리’로서 식민지 지식인 통역자가 필요했지만, 식민지 지식인은 식민지가 유행처럼 소비되는 그 시기적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제국의 언어’로 ‘식민지의 특수성’을 통역하면서 그 사이의 균열을 증명한다(김지영, 「제국과 식민지, 일상에서의 혼종/혼혈과 분열증」, 『한국현대문학연구』 41집, 한국현대문학회, 2013, 310면).

271) 고부웅, 『초민족 시대의 민족 정체성』, 문학과지성사, 2002, 55면.

언어를 매개로 하여 세계와 대면하고 언어로써 그 세계를 표상한다. 언어의 권력에 속아 넘어가 버리는 것도 지식인이지만 박용철은 자신의 그러한 언어를 통해서 문학의 사회적 책임을 거론하였다. 박용철의 이것저것에의 관심은 그로 하여금 끝내 먼 데서 바라보는 정신, ‘소리개처럼 내리치는 서구적 지성’²⁷²⁾을 발휘하는 비평가로 그의 본령을 삼게 하였다. 식민지를 살아가는 지식인으로서 박용철은 조선의 현대시에는 “희망없는 골자구니에 막다다른 그 생활감정이 있을 뿐”²⁷³⁾이라고 하고 나서 이것이 “우리의 심정상태의 숨김없는 표현”이라고 자각하는 부분은 시 속에 현실을 투영한다는 사실에 대해 부정하거나 외면하지 않았다는 측면을 드러낸다.

현실에 접근하려는 노력은 『문예월간』 창간호에 발표한 「효과주의적 비평논강」에서 볼 수 있다. 그는 여기에서 예술작품이 발표되면 하나의 사회적 존재가 되어 그것은 사회적인 효과를 일으킨다고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박용철은 문학이 한 개의 독자적인 존재임을 부각시키면서도 독자의 수용과정에서 초래될 영향관계를 의식함으로써 문학이 현실과 분리될 수 없는 것임을 피력한다. 그런 점에서 박용철은 비평가를 특별히 예리한 감수력을 지닌 비범한 천재로 간주하고 있다. 이 부분은 ‘존재의 시론’과 ‘수용과정의 관점’을 결부시키고 이를 더 확장하여 사회적 효용론으로서 비평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지점이다. ‘한 개의 작품이 개인의 심리에서 나아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은 문학의 사적인 것을 공적인 것으로 전환하여 표현하는 형식으로 정립함으로써 고립된 개인과 사회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식민지 조선에서 이러한 가능성이 지닌 사회적 가치는 쉽게 측정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것이다. 청우계가 되어야 하는 비평가의 목소리는 단순히 개인과 사회를 충실하게 재현하는데 그치지 않고, 문학의

272) 김윤식, 앞의 책, 1978, 135면.

273) 「정축년시단회고」, 『전집』 2, 114면.

사회적 효과와 책임을 촉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박용철은 낭만주의 시관을 피력하는 가운데, “그 나라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면 다 감격할 수 있는 작품이 있다면 누가 그 앞에 이마를 숙이지 않으랴. 그러한 작품을 알아보는 눈이 있다면 누가 그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으랴”라는 언급을 통해 민족 공동체에 공명할 수 있는 문학을 역설한 바 있다. 그런 점에서 박용철은 ‘감정의 전염’을 중시하며 텍스트가 전달하는 감정이 독자의 해석과 상호 영향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결국 박용철이 말하는 감정의 시화는 감정을 직접 표출하는 하나의 방식이 아닌, 감정의 전염을 통한 시대인식의 측면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그의 낭만성이 사회·역사적 의미와 무관하지 않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현실에 대한 인식이 곧바로 시적 인식이나 표현이 될 수 없음을 자각한 박용철은 시어로서의 언어에 주목하였다. 박용철의 시론을 여타의 시론과 구별할 수 있는 요소는 ‘시어’에 대한 자각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언어에 대한 자각은 문학 외적인 상황과도 연관이 있다. 1920년대부터 한국문학은 크게 민족문학과 계급문학이 서로 대립하는 형태로 발전해 왔다. 여기에 해외문학과가 가세해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 문학은 양으로나 질로나 이전 시기와 견줄 수 없을 만큼 다채로워졌다. 그러나 카프가 침체에 빠지고 해산하기에 이른 것과 맞물려서 계급문학은 더는 활로를 개척하지 못하고 그 역사의 의미를 상실해 가고 있었고 ‘조선심’으로 대변하는 민족문학은 시조부흥운동과 같은 지엽의 문제에 매달려 그 시대의 문학 구성원들의 중심이 되기에는 모자랐다.

1930년대 국내에서는 한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었다. 한글과 철자법·문법에 대한 연구가 20년대를 거치면서 언어학적 차원이 아니라 문학적 차원에서 논의의 전면으로 부각되기 시작하고 30년대 들어 그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되면서 1933년 맞춤법 통일안이 제정되는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²⁷⁴⁾ 박용철은 표현의 매재로써 언어가 갖는 한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필연성을 동시에 자각하고 있었다. 영감의 시적 변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표현과 생각간의 오차’의 극복을 모색하게 된 지점이다. 그는 일찍부터 “새로운 개념언어”를 주시하고 있었다. 우리 쪽에 없는 말을 새로 만들어서 써야 한다는 ‘시적 언어의 혁신’을 늘 가슴 속에 품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새롭게 이해되어야 할 것이 ‘변용’이라는 개념으로 ‘변용’은 체험과 영감이 시가 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다. 즉 시는 문자화되기 이전에 시인의 마음 속에 영감으로 자리 잡는다. 이것이 시 이전의 선시적 체험으로 이것은 무명화를 거쳐 시로 변용된다. 박용철의 시론을 변용의 시론이라 칭하게 된 것은 체험의 시적 변용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그가 이루고자 했던 순수시의 조건은 모방의 장난에서 벗어나 진실한 자기 체험의 경지에서 가능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감정의 전염을 통한 민족의 공감과 단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진실한 체험을 통해야만 함을 내포한 것이다. 문학의 사회적 효용으로써의 감염력을 뒷받침하는 견해라고 볼 수 있다. 시를 쓰는 데 있어서 언어에 대한 자각은 필수 요소지만 현실에 대한 부분도 도외시 할 수 없었던 식민지 시인 박용철이 추구하는 순수 서정의 세계는 진실한 자기 체험의 경지에서 가능한 것이었고, 그러한 체험을 바탕으로 한 그의 시론은 식민지 상황에서 무한한 고난과 수련의 길을 밟아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박용철이 3.1만세 운동을 겪은 건 16세 때이다. 이 때 그는 모친의 병환도 있었지만 3.1만세 운동의 영향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고 낙향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식민지 현실에 대한 저항 의식은 분명 지니고 있었을 것이다. 식민지배국과 피지배국 사이에는 문화의 접촉이 있게 된다.

274) 한계전 외, 앞의 책, 151-152면.

이 문화의 접촉 속에 언어도 포함되는데, 두 민족의 접촉이 지배와 피지배의 양상으로 나타날 때는 식민정책이 시행되며 여기에 반드시 언어정책도 들어가게 마련이다. 따라서 식민지 언어정책은 이민족 언어정책으로 귀착되는 것이다. 275) 식민주의자가 염두에 두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지배대상은 피지배인의 정신세계이다. 피지배인들이 그들 자신을 감지하는 방법과 세계와의 관계를 구축하는 방법 등을 문화를 통해서 통제하려는 것이다. 정신세계에 대한 지배 없이 정치·경제적 지배의 완성은 허구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식민지 민중문화의 통제는 고로 타자와의 관계에서 자기정체성을 규정하는 도구를 통제함을 의미한다. 식민주의는 이 과정을 두 가지 속성을 통해 드러낸다. 하나는 피지배 민중의 문화·예술·가무·종교·역사·지리·교육 그리고 문학의 가치를 해체하거나 의도적으로 폄훼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배자의 언어적 가치를 의식적으로 고양하는 것이다. 식민지 민중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언어를 지배자의 언어 밑에 종속시키는 것이다. 276) 이러한 현실적 관심을 기반으로 하여 박용철은 『시문학』을 창간할 때부터 문학에 대한 인식은 모국어의 완성을 바탕으로 깔고 있었다. 박용철은 일제 식민 정책의 압박으로 인해 조선어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던 상황에서 조선어의 독자성을 강조하였다.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으로서 제국의 언어이자 공용어로서 일본어가 가지는 현실적 우위에 대항할 수 있는 논리를 마련한 그는 구체적인 민족 현실을 각성하면서 현실주의적인 균형 감각을 획득하게 된 것이다.

박용철이 내세운 순수문학은 ‘민족어의 가치를 수호하고 조선어의 미감을 발견하는 형태’²⁷⁷⁾로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작업은 조선문학의 독자성을

275) 이성연, 앞의 논문, 7면.

276) 응구기 와 씨옹오, 이석호(역), 『탈식민주의와 아프리카 문학』, 인간사랑, 1999, 51-52면.

위한 것이었다. 그러한 사실은 「조선문학의 과소평가」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박용철이 계급주의 문학가들과 대결 관계를 형성하면서 이데올로기의 상대방에 두었던 것은 민족어로서의 ‘조선어’였다. 그는 조선문학이 일본의 지방문학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던 상황에서 일본 문화와의 대등한 위치에 조선문화를 설정하면서 조선문학의 독립을 요구하였다. 국권 상실기에 ‘민족어로의 조선어’는 국어(국가어)와 비국어(방언과 토착어)의 합성물이었다. ‘조선어’는 ‘국어’일 수 없었고 ‘국어’이되 그 속엔 방언, 토착어 지향성이 강하게 작동되는 긴장의 공간이 형성²⁷⁸⁾된 상황에서 박용철의 경우 식민정책을 그대로 구현하는 입장이 아닌 식민정책에 대한 성찰과 그 변용으로서 ‘조선어’를 지향하는 노력을 보인다. 이러한 점은 시문학과 시문학의 시적경향과 일치하는 면이라 할 수 있다. 시문학과가 강조한 시적 경향은 『시문학』 창간호 편집후기에서 ‘민족 언어의 완성’이라는 과제를 제시하며 드러난다. 이는 민족수립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것은 조선말로 쓰인 글의 확산이라는 인식 아래 민족정신과 민족정서의 고유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표출한 것이다. 이것은 문학 중에서도 언어의 정수를 다루는 시가 결국 그 민족의 언어를 완성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선언이다. 시문학과가 노린 것은 국어로서의 언어가 아니라 시어로서의 언어에 대한 자각, 그리고 민족어의 시적 가능성을 자각하는 일이었다. 이는 시문학과와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 박용철의 현실주의적 균형감각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순수시인 박용철의 마음 바닥에는 뚜렷이 조선문학, 곧 모국어 문학에 대한 인식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에게 모국어란 민족의 역사·전통이었고 그 혼을 집약, 승화시켜 나갈 그릇이었다. 이렇게 본다면 그의 언어에 대

277) 여태천, 앞의 책, 287-310면.

278) 김윤식, 『한·일 근대문학의 관련양상 신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13-14면.

한 자각은 감정의 남발, 즉흥적인 감정 표출이라는 점을 극복한 지점이며 더 나아가 조선어의 시적 가능성을 보여준 부분이다. 민족의 언어는 문어(文語)를 번역한 것이라는 사실이 잊혀지고 감정이나 내면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될 때 완성²⁷⁹⁾되기 때문이다.

조선문학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조선문학의 독자적 존재론’은 조선문학의 역사성과 특수성 그리고 조선문학과 세계문학의 관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제국언어와의 차별성, 제국언어와의 동등성을 말하며 조선어를 강조한다. 이러한 점에서 언어와 문학만은 식민 상황일지라도 지켜야 할 것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던 박용철의 일면을 볼 수 있다. 박용철은 조선문학 자체를 일본 문학에 편입하려던 일본의 정치적 속셈을 미리 파악하고 일본 문화와의 대등한 위치에 조선문화를 설정하여 상호 영향의 강도를 살펴야 함이 타당한 것이라고 내세운다. 그는 민족의 현실과 조선문학의 역사적 위치를 파악함으로써 진정한 조선문학의 진로를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결국 그의 시적 언어에 대한 인식은 단순히 시인의 취향을 드러내는 것을 떠나 조선어와 조선문학의 가능성과 좌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이를 통해 그의 조선어와 조선문학에 대한 인식은 민족적, 국가적 차원으로 승화된다. 당시 식민지의 나약한 지식인이었지만 문학 외적인 요소인 일제 강점기라는 상황과 직결되는 민족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일제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보다는 소극적 저항의 형태인 조선문학의 독자성을 주장했던 것이다. 박용철의 언어에 대한 관심은 언어민족주의의 일환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언어민족주의는 민족을 언어나 문화집단 또는 전통의 동질성에 의해서 형성된 집단으로 생각한다. 박용철도 조선문학의 독자성을 강조하기 위해 민족의 언어와 문학과 관계에서 민족 언어의 완성에 그 사명이 있음을 강조하고 조선의 시를 규정할 수 있는 핵

279) 가라티니 고진, 송태욱(역), 『일본정신의 기원』, 이매진, 2003, 13면.

심 요소가 ‘조선말’임을 강조한다.

박용철이 내세운 순수문학은 ‘민족어의 가치를 지키고 조선어의 미감을 발견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작업은 조선문학의 독자성을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점은 박용철이 문화를 민족의 구성요소로 중요하게 생각하였다는 점을 시사한다. 문화의 표지로서 조선어와 조선문학을 강하게 의식하였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박용철은 조선문학의 독자성을 이어나갈 수 있는 자양분을 전통의 발굴에서 찾았다. 그래서 그가 다른 언어로 대체될 수 없는 조선문학의 독자성을 찾기 위해 선택한 창작의 방향은 ‘방언’의 활용이었다. 고유어나 토착어는 의미 공동체의 토대가 가장 확실히 드러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생리적 필연”을 ‘감각’하고 ‘표현’하기에 가장 적절한 “매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박용철이 주목한 방언은 조선인의 기억 깊은 곳을 건드리고 있어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시를 위한 그의 선택이었으며 ‘우연하고 부수적인 사건이라기보다는 식민지 시대를 살아가는 시인의 본질적 표현’²⁸⁰⁾이라 할 수 있다.

대체로 방언의 시적 기능은 두 가지 층위에서 실현되고 있는 바, 하나는 시어, 율격, 음운 등 표현기법적 층위이고, 또 하나는 향토성, 심미성, 민족의식 등 정서환기적 층위이다.²⁸¹⁾ 1930년대 시인들의 시어로서의 방언활용은 전달의 문제라기보다는 자각적 선택의 경우로 볼 수 있다. 가령 토착어로 향토정신을 불어넣는다던가, 민족 고유의 감각적 순수성을 되살려낸다던가 하는, 민족의 정체성을 자극하는 방언의 의도적인 활용이 그러하다.²⁸²⁾ 이러한 해석은 결과적으로 1930년대에 활동한 시문학과 박용철의

280) 「백석시집 「사슴」 평」, 『전집』 2, 124면.

281) 김영철, 「현대시에 나타난 지방어의 시적 기능 연구」, 『우리말 글』 25호, 우리말글학회, 2002, 101면.

282) 고영근, 『한국어운동과 근대화』, 탐출판사, 1998, 320면.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본다.

식민지 조선에서의 방언을 문학어로 선택했을 때에 그 효과는 민족 문학의 형성이라는 방향을 갖게 하면서 방언을 통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방언은 그것이 특정한 지역의 민중들의 생활언어라는 점에서 민중성과 지방성을 구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 지방성과 민중성은 독서대중의 정서적 감염효과에 적절히 기능한다. 방언은 민중들의 삶의 현장에 밀착된 일상언어이다. 그런 점에서 방언은 직접성과 현장성을 띠며 방언을 통해 민중들의 질박한 삶이 여과 과정 없이 진솔하게 표출되는 것이다. 따라서 방언은 민중들의 정서적 감염에 가장 효과적인 매개인 것이다. 강한 전달력과 호소력을 통해 민중의 공감대 형성에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또한 지방성은 향토성을 의미하는 바, 지역적 향토성이 민족적 향토성으로 환유됨으로써 민족공동체 의식으로 승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방언의 선택은 민족어의 완성과 민족의식의 고양이라는 효용론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사회시학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이다. 283)

김명인은 “민족어의 완성”이라는 표현을 두고 ‘문학어로서의 민족어의 가치를 되새기자는 주장’이라고 제시한 바 있다.²⁸⁴⁾ ‘민족어의 완성’이란 과제는 토착어나 방언에 집착하는 몇몇 감각적인 어휘의 취사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전체의 언어사용의 배후에 자리 잡는 민족어의 역사적 중량감과 관련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어의 완성’이란 1930년대라는 역사적 시점에서의 민족어 보존과 확장이라는 함의를 지니기도 하는 것²⁸⁵⁾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에서 박용철의 시쓰기는 제국의 언어에 쉽게 포착

283) 김영철, 앞의 논문, 100-101면.

284) 김명인, 「한국 근대시의 토착어 지향성 연구」, 『한국학연구』 25집,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6, 285면.

285) 김명인, 위의 논문, 286면.

되지 않는 방식으로 쓰여지고 있었다. 여전히 ‘식민지의 영토 안에서 쓰여 지지만 제국의 언어라는 그물에 걸리지 않는 그들의 언어로는 잘 포착되지 않는 글쓰기’ ‘피식민자의 위치에서 만들어가는 시쓰기의 탈주선을 그어가는’²⁸⁶⁾ 것이었다. 결국 박용철의 시에 나타난 방언은 민중의 공감대를 형성되도록 하고 감정의 전염에 효과적인 매재로 활용되면서 박용철이 민족 문학 수립의 의지가 있었음을 확인하게 한다.

박용철의 시에서는 고어의 사용 비중도 높게 나타난다. 고어의 활용은 작가의 관심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박용철은 의도적인 고어의 활용을 통하여 민족의 정신과 정서를 재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점은 그가 서구문명의 글쓰기와 교섭하면서도 우리의 본질적 특질을 잃지 않으려는 지점과 일맥상통한다. 그는 시조와 정형률을 실험하면서 외부의 문학을 우리의 시각으로 변용하면서 우리의 것을 발견하려고 애썼다. 이러한 점은 그의 번역활동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용철이 번역가로서 자질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은 번역하는 과정에서 우리말 어휘를 알맞게 구사하고 원어의 의미와 현저하게 다르게 의역하거나 임의로 생략한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²⁸⁷⁾ 괴테 번역시들에서 보이는 뛰어난 우리말 구사력²⁸⁸⁾ 은 그러한 증거라 할 수 있다. 그는 번역을 비롯한 모든 문학활동을 우리 문학에 기여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으로 보면서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순수한 우리말로 번역할 것을 주장하는 한편 번역에 임하는 태도에 있어서 행위, 태도, 사고, 말씨, 구두점 등의 문제를 충분히 배려하면서 당대의 현실적 상황을 번역에 반영하였다.²⁸⁹⁾ 그는 번역가이기도 했지만 비평가요 시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286) 서준섭, 「한국 근대 시인과 탈식민주의적 글쓰기」, 『한국시학연구』 13호. 한국시학회, 2005, 37면.

287) 김효중, 「정보 재생의 정확성과 민족 언어의 조탁- 박용철의 번역문학」, 『시로 여는 세상』 9호, 2004, 221면.

288) 안삼환, 앞의 논문, 115면.

번역을 하는 데 단 하나의 어휘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세심한 배려를 했다. 번역과정에서 우리말 어법과 문화에 맞추어 존칭어법을 쓴 점, 우리말 고유의 의성어를 첨가하여 시의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살린 점, 문장부호를 첨가하여 대화체를 살린 점 등²⁹⁰⁾은 박용철이 적합한 번역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심사숙고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은 본디 순수 우리말을 찾아 쓰는 것을 선호했던 박용철의 의도와 무관하지 않은 것이며 또한 번역문법이란 표현된 문자들 밑으로 흐르는 의미의 흐름을 잡아내는 데 일조²⁹¹⁾하는 것이기에 조선어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그의 숨은 노력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박용철의 창작시와 번역시 작업은 둘 다 같은 시기에 동시에 병행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양 작업은 상호보완적인 입장에서 동시에 작업이 진행되었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그에게 해외시 번역 작업은 조선어의 진수를 발굴하는 계기를 마련해주었고 더 나아가 그의 문학세계를 보다 원숙한 단계로 나아가게 하였다. 이 작업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토속적 시어 혹은 조선어 진수의 발굴 작업은 그의 민족과 문학에 대한 인식과도 연관된다.

시인은 앞으로 예견될 사회 현상을 예상할 뿐만 아니라 비전을 제시하면서 세계화 방향에도 주력하여야 한다. 박용철은 ‘조선문학이 크게 융성해서 그 일문번역이 일본문단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기까지 기다려야 할’ 그 날을 위해 세계문학을 조선말로 번역하는 작업을 했을지도 모른다. 흔히 비서구 식민지 작가들은 서구의 문장을 글쓰기 방법으로 삼았고 “일종의 새로운 문학 양식을 만들기 위한 ‘창작’행위의 일종”²⁹²⁾으로 번역을 했듯이

289) 김효중, 앞의 논문, 2004, 221-222면.

290) 김효중, 앞의 논문, 2006, 82면.

291) 김재혁, 「새로 발굴된 박용철의 번역 원고의 번역문법적 분석- 초벌 번역원고를 통해 본 박용철의 번역태도」, 『독일문학』 제107집, 한국독어독문학회, 2008, 262-269면.

식민지 조선의 작가들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박용철은 이와 더불어 서구 문명의 번역과 수용을 통해 조선어의 위상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박용철은 냉철한 지식의 소유자였다. 그는 새로운 어휘의 수용을 거부하고, 오로지 조선어, 민족어, 방언을 통해서만 민족의 정신적 위상과 언어적 독립을 확보하려는 폐쇄적 생각의 소유자는 아니었다. 조선어의 확립과 위상을 위하여 조선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그는 서구 문명의 번역과 수용을 통해 조선어의 위상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식민지 시대를 감안한다면 번역은 제국의 국어 일본어와 맞서는 조선어의 위상을 인정하는 작업인 셈이다.

즉 박용철의 시적태도는 조선문학의 방향성 탐색과 연결되며 조선인으로서의 삶의 연대감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문학 외적인 상황에 위축되어 문학의 현실 대응의 모습이 직접적인 서술보다는 비유적 표현이 요구되는 때나 문학 내적인 역량의 미성숙으로 인해 현실에 대한 창작 주체의 문학적 대응력이 미약할 때 시라는 장르를 선택한다고 한다.²⁹²⁾ 박용철의 경우는 전자의 경우라고 본다. 그는 일제 탄압 하에서 시의 표현 방법의 일환으로 ‘순수서정’과 ‘언어의 문제’에 방향을 전환시켜 시대적 예민성을 피하고자 하였다. 그가 식민지라는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방법이었다. 이러한 점이 내적 심화의 방향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남기기는 하지만, 이것은 문학 중에서도 언어의 정수를 다루는 시가 결국 그 민족의 언어를 완성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선언을 실천한 부분이다.

박용철의 순수서정은 감정의 공감력을 불러일으키고, 식민성 극복을 위한 언어의 발굴은 우리 민족의 공감력을 획득하는 것이었다. 박용철이 민

292) 리어우관, 장동천 외(역), 『상하이 모던』, 고려대학교출판부, 2007, 250면.

293) 윤여탁, 『시의 논리와 서정시의 역사』, 태학사, 1995, 65면.

족적 정서와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우리말로 된 잡지의 편집이나 출판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도 모두 이러한 인식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의 조선어에 대한 인식은 식민지 조선에서 언어적 공동체 형성이라는 문학적 비전을 제시해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민족의 감정을 형성하는 문화적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토대를 표상하는 것은 언어이기 때문이다. 박용철의 민족에 대한 역사적 인식은 ‘시어의 완성’의 과정에 있었던 것이며 조선말의 정립을 통해 민족문학을 수호하려는 관점이었다. 민족어의 멸실이란 국가는 물론 민족의 쇠퇴와 그 운명을 같이 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일제 치하 시인들의 우리시 쓰기 작업이란 바로 우리말과 글을 지킴으로써 민족혼과 역사를 살려내기 위한 민족운동이자 독립운동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 분명하다. 시인의 궁극적인 사명이란 바로 민족어의 완성을 지향해 감으로써 민족혼을 지키고 민족의 정서와 민족의 삶을 고양시켜 나가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²⁹⁴⁾ 일제 강점기에 우리말로 시를 쓰는 행위는 우리의 민족혼과 민족 정체성을 고양하는 일에 해당되는 것이기에 이러한 작업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94) 김재홍, 앞의 책, 117면.

VI. 결론

1930년대 시사에서 한 획을 그었던 박용철의 문학은 낭만주의 영향으로부터 감성주의 내지 예술지상주의의 문학으로 평가되며, 사회의식이나 시대의식을 배제한 순수성의 문학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박용철의 순수시론은 서정시론의 본질에 다가서는 논의였고 1930년대 시론의 미학적 수준을 한층 심화시키는 공헌을 하고 있다. 하지만 순수한 감각의 세계를 추구하기 위해서 현실적 측면이 배제되어도 무방하다는 것은 아니다. 본고에서는 박용철의 시를 통해서 드러나는 시대인식의 양상을 고찰하였다.

II장에서는 박용철 문학의 시대인식의 근거가 될 수 있는 1930년대 식민정책을 살펴보고 순수문학이 대두하게 된 배경을 고찰하였다. 시문학과가 형성된 1930년은 일제의 식민 통치가 문화통치에서 군국주의적 무단통치로 강화되기 시작한 전환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제의 노골적인 식민지 정책에 의해 일어와 조선어를 동시에 사용해야 하는 이중언어의 상황이 고착화되기 시작하는 시기였다. 1920년대 후반의 한국문단에서는 프로문학과와 민족문학과와 문학운동이 대립하고 있었다. 시문학과가 형성된 문단적 배경은 문학 자체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문학에 대한 성취욕구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카프파와 민족문학과와의 근본적인 결합인 이데올로기 문학에 대한 반성과 거기에서 촉발되는 새로운 문학에 대한 성취욕구가 시문학과와의 출현을 이끌어 낸 것이다.

III장에서는 박용철 시에 나타나는 시대인식이 시론에서는 어떠한 전제조건을 제시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박용철의 시론과 언어의식을 제시하였다. 박용철은 순수시론을 통해 시문학과와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는 역할

을 했다. 그의 ‘순수시론’은 현대 시사에서 최초로 순수시의 이론을 정립했다는 점 외에 ‘현대시’의 진정한 모습을 최초로 시론화 했다는 의의를 지닌다. 박용철은 비애, 환희, 우수, 격렬 등 인간 존재의 근원적 문제와 관련하여 개성 있는 표현을 통한 시의 예술성을 추구하였다. 그렇다면 박용철은 낭만주의자로 분류되었다. 하지만 박용철의 낭만주의 문학관은 현실에 접근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박용철의 순수시론은 민족의식이 강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인생의 체험’이라는 ‘덩어리’를 통해 민족의식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효과주의적 비평논강」에 드러나는 문학의 사회적 효과에 대한 인식은 시대의 절망을 파악한 지식인으로서 문학인으로서 당연한 민족의식의 발현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회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예술의 조건으로 ‘감정의 전염’을 요구한 점이다. 박용철이 말한 ‘감정의 전염’은 무력한 존재로서의 자아를 넘어서 초개인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민족’의 공감과 단합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이었으며 정서의 확장을 통해 민족의 결집을 이루고자 한 의도였다. 그리고 감정의 공감력을 얻기 위해 박용철은 시어로서의 언어에 주목하였다. 박용철은 체험의 시적 변용을 강조하며 시는 체험의 세계임을 강조한다. 그가 말하는 체험은 직접 경험한 사실이나 독서, 그리고 다른 사상의 영향 등에 의한 것으로 외계의 상황과 전혀 무관할 수 없는 부분이다. 체험을 통한 변화된 감정을 시적으로 형상화하기 위한 언어 선택의 고민은 시대에 대한 고뇌가 전제되어야 했던 것이다.

또한 여타의 비평을 통해 조선어의 수립과 조선문학의 독자성을 주장하며 식민시기를 강하게 의식하는 측면을 드러낸다. 박용철은 조선문학이 일본의 지방문학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던 상황에서 일본 문화와의 대등한 위치에 조선문화를 설정하면서 조선문학의 독립을 요구하였다. 조선문학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조선문학의 독자적 존재론’은 조선문학의 역사

성과 특수성 그리고 조선문학과 세계문학의 관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제국언어와의 차별성, 제국언어와의 동등성을 말하며 조선어를 강조한다. 이러한 점에서 언어와 문학만은 식민 상황일지라도 지켜야 할 것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던 박용철의 일면을 볼 수 있다. 박용철의 언어에 대한 관심은 언어 민족주의의 일환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언어 민족주의는 민족을 언어나 문화집단 또는 전통의 동질성에 의해서 형성된 집단으로 생각한다. 박용철도 조선문학의 독자성을 강조하기 위해 한민족의 언어와 문학과 관계에서 민족언어의 완성에 그 사명이 있음을 강조하고 조선의 시를 규정할 수 있는 핵심 요소가 ‘조선말’임을 강조한다.

박용철이 내세운 순수문학은 ‘민족어의 가치를 수호하고 조선어의 미감을 발견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작업은 조선문학의 독자성을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점은 박용철이 문화를 민족의 구성 요소로 중요하게 생각하였다는 점을 시사한다. 문화의 표지로서 조선어와 조선문학을 강하게 의식하였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조선말의 확산과 조선문학의 수립을 통해 민족 정서를 환기하고 민족 정체성을 찾기를 도모했던 박용철은 조선말의 진수를 방언, 또는 고어에서 찾았다. 식민지 조선에서의 방언을 문학어로 선택했을 때에 그 효과는 민족 문학의 형성이라는 방향을 갖게 하면서 방언을 통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박용철은 민족의 언어와 문화, 즉 방언이나 고어에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중심언어에 대항하는 면모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점은 제국의 언어와 문학에 종속되지 않으려는 노력이다.

IV장에서는 박용철 시에 나타난 시대인식을 살피기 위해 박용철의 시세계를 ① ‘고향상실과 복원의식’ ② ‘절망극복과 유랑의식’ ③ ‘민족어로서의 방언과 고어 사용’으로 추출하여 살펴보았다.

①박용철의 시에서 드러나는 상실과 비애는 우리 민족이 겪었던 역사적

현실과 매우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1930년대라는 시기를 감안해 보면 ‘상실의식’은 ‘고향상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고향’은 시인들에게 있어 현실적인 삶의 터전이자 개인적 민족적 정체성을 표상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절박한 상황 인식의 반영이며, 향수의 감정은 상실된 공간에 대한 복원의지로 볼 수 있다. 박용철이 인식한 세계인식은 당시 일제에 의해 약탈당하고 상실되어진 식민지 우리 민족의 현실이었으며, 이러한 인식은 밝은 미래에 대한 동경과 상실공간에 대한 복원의 열망을 가능하게 하였다. 박용철의 경우 당시의 식민지 현실이라는 조선의 특수한 상황이 그의 서정성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의 순수한 서정성은 개인의 주관적 감정에 몰두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제국의 정책에 순응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그의 감정은 민족적 감정에 매개됨을 볼 수 있다. 박용철은 조선의 현실에서 눈을 감은 것이 아닌 고향상실과 이에 대한 복원의지를 통해 민족의 공감성을 얻고자 했으며 이를 통해 운명공동체적인 연대의식을 추구하고자 하였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② 박용철 시의 근간은 우울·절망·좌절 등의 센터멘탈한 정조로 휩싸여 있다. 하지만 박용철의 시에는 절망과 상실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박용철의 시에서는 생래적 감수성과 현실에서 겪는 절망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시들도 다수 있다. 현실에 대한 불만과 좌절은 선취공간에 대한 열망을 동반하는데 이러한 의지가 그의 시에서는 유랑의식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시에서 나타난 유랑의식은 개인적 도피에서 벗어난 것이 아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민족 공동체를 상상하며 시대를 인식한 지점이다. 박용철의 경우 일제에 맞서 직접 저항하거나 투쟁하는 행동성을 보여준 사실은 없지만 그의 시에서 저항성은 겉으로 드러나는 저항이 아닌 내적인 면에서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박용철의 시에서는 식민지 상황의 비극적 현실을 벗어나고자 하는 순수성과 서정성의 조화를 볼 수

있다. 개인적 차원의 절망을 넘어선 사회·역사성 내지 시대성에 대한 자각을 바탕으로 한 의지가 담겨있는 까닭이다.

③ 조선어를 구할 수 있는 것이 민족의 문학이라고 인식한 박용철은 식민지 현실에서 조선어 글쓰기는 어떠한 것이며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를 고민하였다. 이중언어 상황에서 박용철의 시어에 대한 자각은 조선어를 통한 것이었다. 그가 시에 활용한 방언과 고어는 민족어를 빚냄으로써 민족정서를 환기시키려는 의도로 평가될 수 있다. 민족수립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것은 조선말로 쓰인 글의 확산이라는 인식 아래 민족정신과 민족정서의 고유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표출한 것이다. 이것은 문학 중에서도 언어의 정수를 다루는 시가 결국 그 민족의 언어를 완성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선언을 실천한 부분이다.

방언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는 효과를 지닌다. 방언은 단순히 지역어일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문화를 대변하고, 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정서와 정체성을 반영하는 상징적인 언표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방언 사용은 민족어의 완성과 민족의식의 고양이라는 효용론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박용철은 고어의 형태 그대로 시어를 사용하기도 했지만 고어의 음운을 변이시켜 사용하기도 했다. 그는 민족어를 통해 전통적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점은 단순한 시적 취향이 아닌 민족언어의 완성이라는 시문학과 문학적 이념과도 합치되는 부분이기도 하며 민족의 정신을 고양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보여진다.

V장에서는 III장과 IV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박용철의 시론에 나타난 시대인식과 시에 나타난 시대인식 양상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박용철의 시대인식은 시의 보편과 본질의 문제, 기술의 문제, 순수성의 문제 등과 긴밀하게 상응하는 것이었다. 언어에 대한 인식을 자각적으로 실천하며 창작 방향을 모색했던 박용철이 내세운 순수시론은 서정시론의 본질

에 다가서기 위한 논의에서 출발한 것이었으며 그의 시론에 나타난 순수성과 서정성의 본바탕은 민족과 민족어에 대한 애정에 있었다.

이상과 같은 맥락을 통하여 박용철의 순수문학의 바탕에는 민족이라는 거대한 서사가 가능함을 제시하였다. 박용철을 일제에 강하게 저항한 투사로 보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박용철이 선택한 창작의 방향은 당시 조선어가 처한 상황과 조선문학의 방향에 대한 의미 있는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것이었으며 민족의 현실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민족의식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그동안 박용철 시론과 시세계의 균열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물론 박용철을 두고 현실 도피 성향의 시인으로만 평가하던 기존의 평가를 재고하여 그에 대한 평가를 좀 더 보완하는 데 의미를 두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1. 기본자료

- 김용직(편), 『박용철 유폐원고 자료집』, 깊은샘, 2005.
- 박용철, 『박용철 전집』 1·2, 깊은샘, 2004.
- _____, 「조선문학의 과소평가」, 『신동아』, 1934년 2월.
- 김재홍, 『한국현대시 시어사전』,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7.
- 선문대학교 중한번역문헌연구소, 『필사본 고어 대사전』 1-7, 학교방, 2010.
- 이기갑, 『전남방언사전』, 태학사, 1998.

2. 단행본

- 고미숙 외, 『들뢰즈와 문학-기계』, 소명출판, 2002.
- 고부용, 『초민족 시대의 민족 정체성』, 문학과지성사, 2002.
- 김남주 외, 『창작이란 무엇인가』, 정민미디어, 1994.
- 김선태, 『김현구 시 연구』, 국학자료원, 1997.
- 고영근, 『한국어운동과 근대화』, 탑출판사, 1998.
- 김상성, 『문예사조론』, 일신사, 1990.
- 김용직, 『한국현대시연구』, 일지사, 1974.
- _____, 『한국근대시사』 下, 학연사, 2005.
- _____, 『한국현대시사』 1, 한국문연, 1996.
- _____, 『한국현대시사연구』, 일지사, 1983.

- 김윤식, 『근대한국문학연구』, 일지사, 1973.
- _____, 『한국근대작가론고』, 일지사, 1978.
- _____,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 일지사, 2011.
- _____, 『한·일 근대문학의 관련양상 신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 김은자, 『현대시의 공간과 구조』, 문학과 비평사, 1988.
- 김종철, 『시와 역사적 상상력』, 문학과 지성사, 1978.
- 김종훈, 『한국 근대 서정시의 기원과 형성』, 서정시학, 2010.
- 김준오, 『시론』, 삼지원, 2014.
- 김학동, 『국어국문학총론』, 탑출판사, 1977.
- _____, 『한국근대시의 비교문학적 연구』, 일조각, 1981.
- _____, 『현대시인연구』 2, 새문사, 1995.
- _____, (편), 『김기림 전집』 2, 심설당, 1988.
- 김행숙, 『창조와 폐허를 가로지르다』, 소망출판, 2005.
- 김 현, 『책 읽기의 괴로움』, 민음사, 1984.
- 박찬승, 『민족주의의 시대-일제하의 한국 민족주의』, 경인문화사, 2007.
- 방언연구회, 『방언학사전』, 태학사, 2001.
- 여태천, 『미적 근대와 언어의 형식』, 서정시학, 2007.
- 오세영, 『서정적 진실』, 민족문화사, 1983.
- 오형엽, 『한국근대시와 시론의 구조적 연구』, 태학사, 1999.
- 윤여탁, 『시의 논리와 서정시의 역사』, 태학사, 1995.
- 윤영천, 『한국의 유민시』, 실천문화사, 1987.
- 이경훈, 『이광수의 친일문학 연구』, 태학사, 1998.
- 이광규, 『신민족주의의 세기』, 서울대출판부, 2006.
- 이광호, 『미적 근대성과 한국 문학사』, 민음사, 2001.
- 이명찬, 「박용철 시론의 의미」, 『한국현대문학연구』, 한국현대문학회,

1993.

- 이승훈, 『한국 현대 시론사』, 고려원, 1993.
- 이연숙, 『국어라는 사상-근대일본의 언어인식』, 소명출판, 2008.
- 이익섭, 『방언학』, 민음사, 1978.
- 이택광, 『들뢰즈의 극장에서 그것을 보다』, 갈무리, 2002.
- 정지용, 『정지용 전집』 2, 민음사, 1988.
- 조동일 외, 『한국문학연구입문』, 지식산업사, 1982.
- 조연현, 『한국현대문학사』, 성문각, 1982.
- 주은우, 『시각과 현대성』, 한나래, 2003.
- 최두석, 『시와 리얼리즘』, 창비, 1996.
- _____ (편), 『오장환 전집』 2, 창작과비평사, 1989.
- 최원식·임형택(편), 『한국근대문학사론』, 한길사, 1982.
- 하정일, 『탈식민의 미학』, 소명출판, 2008.
- 한계전, 『한국현대시론연구』, 일지사, 1990.
- _____ 외, 『한국 현대 시론사 연구』, 문학과 지성사, 1998.

3. 번역본

- 가라티니 고진, 송태욱(역), 『일본정신의 기원』, 이매진, 2003.
- 가스통 바슐라르, 이가림(역), 『물과 꿈』, 문예출판사, 1998.
- 로즈메리 잭슨, 서강여성문학연구회(역), 『환상성-전복의 문학』, 문학동네, 2001.
- 뤽 브느와, 윤정선(역), 『징표·상징·신화』, 탐구당, 1984.
- 리어우판, 장동천 외(역), 『상하이 모던』, 고려대학교출판부, 2007.

- 미우라 노부타카(외), 이연숙 외(역), 『언어 제국주의란 무엇인가』, 돌베개, 2005.
- 베네딕트 앤더슨, 윤형숙(역), 『상상의 공동체』, 나남출판, 2002.
- 빌 애쉬크로프트, 이석호(역), 『포스트콜로니얼문학이론』, 민음사, 1996.
- 앨런 스윈지우드, 박형진, 김민규(역), 『문화사회학 이론을 향하여』, 한울아카데미, 2004.
- 에밀 슈타이거, 이유영·오현일(역), 『시학의 근본이념』, 삼중당, 1978.
- 엘리아데, 심재중(역), 『영원회귀의 신화』, 이학사, 2003.
- 응구기 와 씨옹오, 이석호(역), 『탈식민주의와 아프리카 문학』, 인간사랑, 1999.
- 톨스토이, 이철(역), 『예술이란 무엇인가』, 범우사, 1988.
- 프란츠 파농, 남경태(역), 『대지의 저주받은 사람들』, 그린비, 2004.
- 프레신깃트 두아라, 한석정(역), 『주권과 순수성』, 나남, 2003.
- 프레더릭 바이저, 김주휘(역), 『낭만주의의 명령, 세계를 낭만화하라』, 그린비, 2011.
- 피에르 부르디외, 정일준(역), 『상징폭력과 문화재생산』, 새물결, 1997.
- 하이데거, 소광희(역), 『시와 철학』, 박영사, 1974.
- _____, 전양범(역), 『존재와 시간』, 시간과 공간사, 1992.

4. 학위논문

- 김미경, 「박용철시 연구」, 동덕여대 석사학위논문, 1995.
- 김상윤, 「박용철 시론 연구」, 인천대 석사학위 논문, 1991.
- 김종란, 「박용철 시론과 미적 근대성 연구」, 충남대 석사학위논문, 2009.

- 김효중, 「박용철의 하이네 번역과 수용에 관한 연구 - 박용철의 창작시와 한국문단에 미친 영향을 주로하여」, 영남대 박사학위논문, 1986.
- 박영순, 「박용철의 시와 비평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1982.
- 박청호, 「용아 박용철 연구」, 호남대 석사학위논문, 2010.
- 서경수, 「용아 박용철 시 연구」, 목포대 석사학위논문, 2008.
- 송명희, 「이광수의 문학비평 연구- 민족주의 문학사상을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85.
- 오경수, 「박용철 시 연구」, 호남대 석사학위논문, 2007.
- 오형엽, 「1930년대 시론의 구조적연구 -김기림, 임화, 박용철을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98.
- 유윤식, 「<시문학과> 연구」,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1988.
- 이기서, 「용아 박용철 연구 -시사적 위치를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71.
- 이성연, 「열강의 식민지 언어정책에 관한 연구」,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1988.
- 이임규, 「박용철 시의 한 연구」, 공주대 석사학위논문, 2005.
- 정양완, 「박용철 연구 -주로 비교문학적인 견지에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64.
- 정영미, 「용아 박용철론 -순수시론을 중심으로」, 인천대 석사학위논문, 1999.
- 조영희, 「박용철 시의 죽음의식 연구」 박용철 시의 죽음의식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03.
- 진창영, 「시문학과 연구」, 동아대 박사학위논문, 1993.
- 추방원, 「용아 박용철의 시세계 고찰」, 조선대 석사학위논문, 1982.
- 하재연, 「1930년대 조선문학 담론과 조선어 시의 지형」, 고려대 박사학위

논문, 2007.

홍영기, 「용아 박용철 연구: 시와 시론을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09.

5. 일반논문 및 평론

강용식, 「서정시의 고고(孤高)한 길, 혹은 창조적 주체의 길」, 『한국학 연구』 47집, 2013.

_____, 「박용철의 시론 연구-존재와 무명화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39집,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1.

고형진, 「방언의 시적수용과 미학적 기능」, 『동방학지』 125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4.

권혁재, 「부끄 까라지치(Vuk Karadžić)와 세르비아의 언어적 민족주의 연구」, 『동유럽발칸학』 4권 1호, 아시아 중동부유럽학회, 2002.

김경복, 「박용철 시의 공간의식 연구」, 『한국문학논총』 11호, 한국문학회, 1990.

김동근, 「박용철 시론의 변용적 의미」, 『한국언어문학』 34호, 한국언어문학회, 1995.

김동리, 「순수문학과 제3세계관」, 『대조』, 1947. 8.

_____, 「순수문학의 정의」, 『민주일보』, 1947. 7. 11.

_____, 「순수문학의 진의」, 『서울신문』, 1946. 9. 14.

김명인, 「순수시론의 환상과 현실」, 『어문논집』 22집, 고려대 국어국문학연구회, 1981.

_____, 「한국 근대시의 토착어 지향성 연구」, 『한국학연구』 25집, 고

- 려대학교 한국한연구소, 2006.
- 김미미, 「박용철 시론 연구- "순수"의 의미지평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57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4.
- 김병택, 「박용철 시론-서구시론의 수용을 중심으로」, 『영주어문』 2집, 영주어문학회, 2000.
- 김영철, 「현대시에 나타난 지방어의 시적 기능 연구」, 『우리말 글』 25호, 우리말글학회, 2002.
- 김용직, 「최초로 공개되는 유고들 - 작은 거인의 큰 발자취」, 『시로 여는 세상』 9호, 2004.
- 김윤식, 「용어 박용철연구」, 『학술원논문집』 9집, 1970.
- 김재혁, 「박용철의 릴케 문학 번역과 수용에 관한 연구 - 릴케의 문학이 박용철의 창작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독일문학』 93집, 한국독어독문학회, 2005.
- _____, 「새로 발굴된 박용철의 번역 원고의 번역문법적 분석- 초벌 번역 원고를 통해 본 박용철의 번역태도」, 『독일문학』 제107집, 한국독어독문학회, 2008.
- 김재홍, 「시어와 민족어 완성의 길」, 『새국어생활』 12호, 국립국어연구원, 2002
- 김정동, 「고공 건축과 학생 시대의 김해경」, 『이상 리뷰』, 창간호, 2001.
- 김지영, 「제국과 식민지, 일상에서의 혼종/혼혈과 분열증」, 『한국현대문학연구』 41집, 한국현대문학회, 2013.
- _____, 「조선적인 것'의 변주, 그 속에 감춰진 식민지 지식인의 내면- 장혁주의 일본어소설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39집, 한국현대문학회, 2013.

- 김진경, 「박용철비평의 해석학적 과제 - 효과주의적 비평논장을 중심으로」, 『선청어문』 13집, 서울대 국어교육과, 1982.
- 김춘식, 「박용철 시론 연구」, 『한국문학연구』 45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3.
- 김효중, 「용아의 괴테시 번역에 관한 고찰」, 『영남어문학』 43집, 영남어문학회, 1984.
- _____, 「용아의 릴케시 번역에 관한 고찰」, 『국문학연구』 8집, 효성여자대학교 국어국문과, 1984.
- _____, 「박용철의 블레이크 시 번역 고찰」, 『번역학연구』 제7집, 한국번역학회, 2006.
- _____, 「정보 재생의 정확성과 민족 언어의 조탁- 박용철의 번역문학」, 『시로 여는 세상』 9호, 2004.
- 나카네 다카유키, 「1930년대에 있어서 일본문학계의 동요와 식민지문학의 장르적 생성」, 『일본문화연구』 4집, 동아시아일본학회, 2001.
- 남진숙, 「박용철 시전집에 대한 재검토」,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45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9.
- 류경동, 「잃어버린 시간의 복원과 허무의 시의식」, 『상허학보』 4집, 1998.
- 문혜원, 「박용철의 시세계 - 애상적인 정조와 의지에의 지향」, 『시로 여는 세상』 9호, 2004.
- 박광현, 「언어적 민족주의 형성에 관한 재고-‘국문’과 ‘조선어’의 사이」, 『한국문학연구』 23집,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00.
- _____, 「경성제대 ‘조선어학조선문학’강좌 연구-다카하시 토오루를 중심으로-」, 『한국어문학연구』 41집,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3.
- _____, 「검열관 니시무나 신타로에 관한 고찰」, 『한국문학연구』 32집,

-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07.
- 박미령, 「순수시의 기대지평」, 『용인대학교 논문집』 11집, 용인대학교, 1995.
- 박상의, 「『조선문학』의 재기를 바람」, 『조선일보』, 1934.10.19.
- 박현호, 「식민지 조선에서 작가가 된다는 것-근대 미디어와 지식인, 문학의 관계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17집, 상허학회, 2006.
- 배경열, 「박용철 시의 세계」, 『문학춘추』 42호, 2003.
- 서준섭, 「한국 근대 시인과 탈식민주의적 글쓰기」, 『한국시학연구』 13호. 한국시학회, 2005.
- 손광은, 「박용철 시론 연구」, 『용봉논총』 29집, 전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0.
- 송기환, 「박용철 시의 순수성과 그 한계 연구」, 『개신어문연구』 31집, 2010.
- _____, 「해방 공간에서의 정지용 문학연구」, 『한민족어문학』 66호, 한민족어문학회, 2014.
- 송명희, 「이광수의 문학평론 연구(3) 톨스토이(Leo Tolstoy)와의 문학관 비교」, 『논문집』 33호, 부산수산대학교, 1984.
- 신재기, 「박용철의 시적 언어론」, 『어문학』 83집, 한국어문학회, 2004.
- 신진숙, 「시문학과 시의 근대성과 공간 인식 고찰」, 『우리문학연구』 27집, 우리문학회, 2009.
- 안삼환, 「박용철 시인의 독문학 수용」, 『비교문학』 38집, 한국비교문학회, 2006.
- 안한상, 「박용철의 순수시론시고」, 『인문과학연구논총』 19집, 명지대학교, 1999.
- 양혜경, 「박용철 시론의 전통지향성 연구」, 『동남어문논집』 3집, 동남

- 어문학회, 1993.
- 여태천, 「1930년대 어문운동과 조선문학의 가능성」, 『어문논집』 56집, 민족어문학회, 2007.
- _____, 「1930년대 조선어의 위상과 현대시의 형성과정」, 『한국시학연구』 27호, 한국시학회, 2010.
- 오문석, 「박용철 시론의 재구성」, 『비평문학』 45호, 한국비평문학회, 2012.
- 오세영, 「『시문학』 지와 순수시파」, 『국어학논집』 12호, 단국대 국어국문학과, 1985.
- 오형엽, 「김수영 시론과 박용철 시론의 관련성 연구 -한국근대비평의 구조와 계보」, 『어문연구』 39집, 어문연구학회, 2002.
- _____, 「박용철 시론의 구조와 계보」, 『비평문학』 18호, 한국비평문학회, 2004.
- 유성호, 「박용철 시 연구」, 『한국시학연구』 10호, 한국시학회, 2004.
- 유윤식, 「박용철의 문예운동연구」, 『한국시문학』 15호, 한국시문학회, 2004.
- 윤동재, 「박용철 시에 나타난 한시의 영향」, 『국제어문』 27집, 국제어문학회, 2003.
- 이광수, 「문학의 신도표3」, 『매일신보』, 1943 .2. 7.
- 이승원, 「김영랑 시정신의 민족사적 의의」, 『태릉어문연구』 16집, 서울여자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2010.
- _____, 「박용철의 시론과 비평」, 『시로 여는 세상』 9호, 2004.
- 이승희, 「조선문학의 내셔널리티와 아일랜드」, 『민족문학사연구』 28집, 민족문학사학회, 2005.
- 이임규, 「박용철 시론의 내적 장치와 시적 거리」, 『비평문학』 53집, 한

- 국비평문학회, 2014.
- 임용택, 「1930년대의 한일근대시 비교고찰-실향의식을 중심으로」, 『일본학보』 55집, 한국일본학회, 2003.
- 정봉래, 「용아 박용철의 변용의 시학」, 『문예운동』 40호, 1989.
- 정은기, 「“순수”문학개념의 전개와 변용」, 『한국문학이론연구』 62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5.
- 정 훈, 「박용철 시론 연구」, 『동남어문논집』 26집, 동남어문학회, 2008.
- 조동구, 「박용철의 시론고」, 『1930년대 민족문학의 인식』, 한길사, 1990.
- 조성문, 「박용철 시의 음운론적 특성 분석」, 『동아문화연구』 28집, 2011.
- 주영중, 「박용철 시론 연구」, 『한국시학연구』 32호, 한국시학회, 2011.
- 진순애, 「시문학과 연구-순수성을 중심으로」, 『한국시학연구』 8집, 한국시학회, 2003.
- 진창영, 「시문학과 의 유파적 의미 고찰- 박용철을 중심으로」, 『동아어문논집』 2집, 동아어문학회, 1992.
- 최동호, 「시문학과 의 문학사적 의미망과 정지용」, 『한국시학연구』 34호, 2012.
- 최박광, 「박용철의 외국 문학 수련과 그 위상」, 『인문과학』 37집,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6.
- 한계진, 「박용철에 있어서 하우스만 시론의 반응」, 『관악어문연구』 2집,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77.
- 한영옥, 「용아 박용철의 시연구」, 『연구논문집』 22집, 성신여자대학교, 1985.